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요한복음

JHN · 복음서 · 헬라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21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요한복음 1장

JHN-001 · 복음서 · 헬라어

태초의 결. 같은 말이 다른 지점에서 다시 열린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1장 — 관찰된 사실

무대·배경·소품 (1단계)

- 1-18절은 무대 없음(서곡·찬송 형식). 19절부터 구체 무대가 열림.
- 19-28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Bethany beyond the Jordan, 28절).
- 29-34절: 같은 지역의 이튿날.
- 35-42절: 같은 지역, "열 시쯤"이라 시간 기록 (39절).
- 43-51절: 갈릴리로 이동, 빌립·나다나엘.
- 주요 소품: 빛·어둠, 말씀(*Logos*), 육신(*sarx*), 장막(*skēnē*, 14절 동사 *eskēnōsen*), 영광(*doxa*), 은혜와 진리(*charis kai alētheia*), 가죽 샌들 끈(27절), 비둘기(32절), 무화과나무(48절), 사다리 이미지(51절).
- 14-18절의 "장막·영광·은혜와 진리" 3어가 출애굽기 33-34, 40장의 성막 영광 장면 어휘와 공명.

첫 느낌·분위기 (2단계)

- *Ev ἀρχῆ*가 창 1:1을 겹쳐 올림. 동사 전환 감지 (*ἐποίησεν* → *ἦν*).
- 1-18절은 찬송·운율, 19절부터 대화 중심으로 공기 전환.
- 장 전체가 "날수 세기"로 리듬화됨. 6인 중 2인이 즉시 포착.

시작·끝 (3단계)

- 시작: *Ev ἀρχῆ ἦν ὁ λόγος* (1절) — 수직 상단.
- 끝: *ὄψεσθε τὸν οὐρανὸν ἀνεωγῶτα καὶ τοὺς ἀγγέλους τοῦ θεοῦ ἀναβαίνοντας καὶ καταβαίνοντας ἐπὶ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51절) — 하늘이 열리고 수직 연결.
- 14절 "*ὁ λόγος σὰρξ ἐγένετο καὶ ἐσκήνωσεν ἐν ἡμῖν*"이 1절과 51절 사이의 경첩.
- 1 (선재) → 14 (성육) → 51 (하늘 열림) 삼축 구조.

등장인물·사물·사상 (4단계)

서곡 등장어(1-18절)

말씀(Logos) / 하나님 / 그분을 통해 된 만물 / 세상(kosmos) / 자기 땅(τὰ ἴδια)·자기 백성(οἱ ἴδιοι) / 영접한 자·그 이름을 믿는 자 / 독생하신 하나님(μονογενῆς θεός, 18절 주요 사본) / 아버지 / 모세 / 예수 그리스도 (17절 첫 등장).

Day 1 (19-28절)

세례요한, 제사장·레위인, 바리새인 일부.

- 요한의 자기 진술 구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 "엘리아도 아니다" / "그 선지자도 아니다" / "나는 광야의 소리다" (사 40:3 인용).

Day 2 (29-34절)

요한이 홀로 예수를 가리킴.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려와 머무심을 증언. "하나님의 아들"(34절).

Day 3 (35-42절)

요한의 두 제자 → 한 명은 안드레, 다른 한 명은 이름 없음. "무엇을 구하느냐"(38절 예수의 첫 발화), "랍비여 어디 거하시나이까"(38절), "와서 보라"(39절). 시몬 → Kēphas(42절).

Day 4 (43-51절)

빌립 → 나dana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46절). "무화과나무 아래"(48절). 나dana엘의 고백 3중: "랍비여 /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49절). 예수의 결어: "인자"(ho huios tou anthrōpou, 51절).

이름 목록 (장 전체 누적)

말씀(Logos) → 생명 → 빛 → 참 빛 → 독생하신 하나님 → 예수 그리스도 → 하나님의 어린양(ἄμνος τοῦ θεοῦ, 29·36) →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 → 하나님의 아들(34, 49) → 랍비(38, 49) → 메시아/그리스도(41) → 게바(42, 개명) →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이(45) →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45) → 참 이스라엘 사람의 왕 암시(49, "이스라엘의 임금") → 인자(51).

증언 동사

μαρτυρία/μαρτυρέω 계열이 본 장에 집중 (6-8, 15, 19, 32, 34 등). 요한(세례자)이 "증언하러 왔다"(7)로 등장.

장면 컷 (5단계)

- 컷 1 (1-18, 서곡): Logos — 선재·창조·빛·성육·영광·은혜와 진리.
- 컷 2 (19-28, Day 1): 세례요한의 자기 축소 — "나는 그가 아니다".
- 컷 3 (29-34, Day 2):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 + 비둘기·성령·하나님의 아들.
- 컷 4 (35-42, Day 3): 두 제자 → 안드레 → 시몬 → 게바 개명.
- 컷 5 (43-51, Day 4): 빌립 → 나dana엘 → 무화과나무 → 하늘이 열림·사다리.

원어 카드 (6단계 포함)

헬라어

- *Ἐν ἀρχῇ* — "태초에". 창 1:1 LXX와 정확 일치.
- *ἦν* — "계시니라" (불완료 과거). 창 1:1 *ἐποίησεν*(단순과거)와 동사 층위 다름.
- *λόγος* — "말씀". 본장에 4회 (1절 3회, 14절).
- *πρὸς τὸν θεόν* (1절) — "하나님을 향하여/하나님과 함께". 방향성 전치사.
- *θεός* (1절 c항) — 관사 없이 앞에 놓임. 어순 해석 논쟁의 결, 본문 어순만 기록.
- *ἐσκηνώσεν* (14절) — "장막을 치셨다". 어근 *σκηνή*(성막).

- *δόξα* (14, 16, 18과 공명) — 영광. 출 40:34-35 LXX와 어휘 공유.
- *μονογενής* (14, 18) — "독생한, 유일한".
- *χάρις καὶ ἀλήθεια* (14, 17) — "은혜와 진리". 출 34:6 히브리어 *ḥesed we-'ēmet*의 가능한 헬라 대응.
- *ἄμνὸς τοῦ θεοῦ* (29, 36) — "하나님의 어린양". 사 53:7, 출 12 유월절 양과 어휘 공명.
- *μαρτυρία/μαρτυρέω* — 증언. 서곡과 요한 발화에 집중.
- *εὐρήκαμεν* (41, 45) — "우리가 찾았다" 완료형, 두 제자가 동일 동사 반복.
- *ἔρχου καὶ ἴδε* (46) / *ἔρχεσθε καὶ ὄψεσθε* (39) — "와서 보라" 초대의 두 형태.
- *ἀναβαίνοντας καὶ καταβαίνοντας* (51) — "오르락내리락". 창 28:12 LXX와 어휘 공유.

아랍어

- *Μεσσίας* (41) — 헬라어 음역. 본문이 "곧 그리스도"로 번역 첨부.
- *Κηφᾶς* (42) — 아랍어 "반석". 본문이 "곧 베드로"로 번역 첨부.
- *Ραββί* (38, 49) — "나의 선생". 본문에 번역 첨부("선생님이라 번역됨").

히브리어 배경

- *bereshit* (창 1:1) ↔ *Ἐν ἀρχῇ* (요 1:1) 상호 공명.
- *sukkah* / *sulam ya'aqov* (야곱의 사다리, 창 28) / *seh elohim* (하나님의 양) — 배경 어휘.

문학 구조 (6단계 포함)

- 서곡 찬송 구조(1-18): 학자 간 세부 chiasm 분석 다양. 일반적 관찰 — 1·18절이 inclusio, 4-5와 9-10이 빛/세상, 12-14가 중심.
- 날수 프레임(19-51): "이튿날"(29, 35, 43) 세 번 + 초기 1일 = 4일. 2:1이 "사흘째 되던 날"로 이어지며 혼인 잔치.
- 이름 누적: 장 전체가 예수에 대한 타자 증언의 이름 목록으로 쌓임.
- 초대 반복: *ἔρχεσθε καὶ ὄψεσθε* (39) ↔ *ἔρχου καὶ ἴδε* (46) 이중 초대.
- 발견 반복: *εὐρήκαμεν* 41·45, 동일 동사 두 번.
- 보라 반복: *ἴδου/ἴδε* 29, 36, 47.
- "참"(*ἀληθινός*) 어휘: 9(참 빛), 47(참 이스라엘 사람).
- 야곱의 사다리 echo: 51절이 창 28:12 LXX와 어휘 일치 (*ἀναβαίνοντας καὶ καταβαίνοντας*).

ANE/유대 배경 (배경 자료)

- 제2성전기 유대 지혜 문학 (잠 8, 시락서 24, 솔로몬 지혜서) — 의인화된 지혜·말씀의 선재 모티프. 배경.
- 필로 알렉산드리아의 *Logos* 용어 — 헬라 철학·유대 전통 혼합 사용. 배경.
- 타르굼의 *Memra*(말씀) — 창세기·이사야 타르굼에서 "주의 말씀"으로 대체하는 경향. 배경.
- 유월절 양 (출 12) + 대속죄일 양 + 이사야 53 양 — "하나님의 어린양" 어휘 배경의 3중 공명.

교차 참조 노트

- 요 1 ↔ 창 1:1-5 (*en archē*, 빛·어둠).
- 요 1 ↔ 창 28:10-17 (야곱의 사다리).

- 요 1 ↔ 출 33:18-23, 40:34-38 (영광과 장막).
- 요 1 ↔ 출 34:6 (*ḥesed we-’ēmet* ↔ *charis kai alētheia*).
- 요 1 ↔ 출 12 (유월절 양).
- 요 1 ↔ 잠 8:22-31 (지혜의 선재).
- 요 1 ↔ 시 33:6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심).
- 요 1 ↔ 사 40:3 (광야의 외치는 자 — 요 1:23 명시 인용).
- 요 1 ↔ 사 53:7 (어린양).
- 요 1 ↔ 말 3:1 / 4:5 (엘리야).
- 요 1 ↔ 신 18:15 (그 선지자).

동영상 요약 (7단계)

광대한 서곡 안에서 태초의 말씀이 울리고, 그 말씀이 빛과 생명으로 세상에 들어온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영광이 드러났다. 장면은 요단 건너편 베다니로 좁혀진다. 요한이 자기를 내려놓고 광야의 소리로 서 있다. 이튿날 그는 예수를 향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라 가리킨다. 그 다음날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 "어디 거하시나이까" 묻고, "와서 보라"는 답을 받는다. 안드레가 시몬을 데려오고, 시몬은 그 지점에서 "케바"라 이름 받는다. 그 이튿날 갈릴리로 향하며 빌립이 부름받고, 나다나엘이 "와서 보라"는 초대에 이끌려 오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말로 무너진다. 장이 닫히기 전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초별 제목·부제 (8단계)

- 초별 제목: "태초의 말씀이, 장막을 치시다"
- 초별 부제: "보라 · 와서 보라 · 보리라"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헬라어 14개, 아람어 3개, 히브리어 배경 5개)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야곱의 사다리 echo, 장막·영광 어휘 공명, 서곡 구조, ANE 배경 3종)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md 9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v1 블랙리스트 "기록해 두지요" 0회
-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참가자 P07의 "사상" 언급 시 "관찰까지만"으로 접음.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서곡 무대 없음 포함)
- [x] 2단계 첫 느낌 (창 1 echo, 날수 리듬 감지)
- [x] 3단계 시작·끝 (1절·51절·14절 삼축)
- [x] 4단계 인물·사물·사상 (이름 누적 목록 완성)
- [x] 5단계 장면 컷 5개 (서곡+4일)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 [x] 7단계 동영상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드리프트 관찰

- 1절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어순 해석은 본문 어순만 기록하고 해석 보류 — 드리프트 방지 성공.
- 서곡의 *Logos*를 필로·스토아 철학 프레임으로 확장하지 않음 — 배경으로만 기록.
- "영접한 자들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12)를 구원론 프레임으로 확장하지 않음 — open_questions로 이월.
- *Kēphas* 개명을 교회론적 해석으로 확장하지 않음 — "만난 그 지점에서 이름이 바뀌었다"까지만.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대 위로 내려와, 사람들의 이름 부름을 차례로 받는 장이다.

한 문단: 무대 없는 서곡(1-18절)이 먼저 울린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만물이 되었으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14절). 18절에서 서곡이 닫히면 무대가 열린다 —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가 아니다"로 자기를 내려놓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예수를 가리킨다. 그 뒤 나홀에 걸쳐 안드레·시몬·빌립·나다나엘이 차례로 따라오며 메시아·랍비·하나님의 아들·이스라엘의 임금이라 부른다. 장은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리라"(51절)는 약속으로 닫힌다.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	1-18절은 무대 없는 서곡. 19절부터 요단 건너편 베다니(28) → 갈릴리. 소품 = 빛·어둠·장막 (eskēnōsen)·영광·비둘기·무화과나무·사다리 이미지.
2 첫 느낌·분위기	Ἐν ἀρχῇ가 창 1:1을 겹쳐 울림. 1-18 찬송 → 19절부터 대화. "이튿날"의 날수 리듬.
3 시작과 끝	1절 선재("계시니라") → 14절 성육 → 51절 하늘 열림. 수직 상단에서 하늘·땅 연결로.
4 등장인물·사상	말씀·요한·예수·안드레·시몬·빌립·나다나엘. 예수를 부르는 이름이 장 전체에 누적됨.
5 장면 컷	컷 1 서곡(1-18). 컷 2 요한의 자기 축소(19-28). 컷 3 어린양(29-34). 컷 4 두 제자·게바(35-42). 컷 5 나다나엘·사다리(43-51).
6 의문·발견·정보	1절 theos 어순. eurēkamen(41·45) 반복. "와서 보라"의 두 형태(39·46). 게바 개명. 51절 야곱 사다리 echo.
7 동영상	서곡 → 베다니 증언 → 어린양 → 따라옴·개명 → 무화과나무 → 하늘 열림 약속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태초의 말씀이, 장막을 치시다". 부제 — "보라 · 와서 보라 · 보리라".

단계	핵심 발견
9 동영상 안 건 기·기도	서곡과 베다니와 갈릴리를 걸으며 "와서 보라"의 부름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선재에서 성육으로:** 동사 하나가 결을 가른다. 창 1:1은 "지으시니라"(ἐποίησεν)인데 요 1:1은 "계시니라"(ἦν)다.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계신 말씀이 14절에서 "육신이 되어"(ἐγένετο)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친다.
- 결 2 — 쌓이는 이름:** 한 인물이 한 번 부르고 끝나지 않는다. 요한이 "어린양", 안드레가 "메시아", 빌립이 "기록된 그이", 나dana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스라엘의 임금"이라 부른다. 장 전체가 예수를 향한 타자 증언의 목록으로 쌓인다.
- 결 3 — 부름의 형태:** "보라"(29·36·47), "와서 보라"(39·46), "발견했다"(eurēkamen, 41·45)가 반복된다. 본문은 가르치기보다 보러 오라고 부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다른 권 — **창 1:1-5**(en archē·빛과 어둠), **창 28:10-17**(야곱의 사다리 — 51절), **출 40:34-38**(영광과 장막), **사 40:3**(광야의 소리 — 23절 명시 인용), **사 53:7**(어린양).
- 같은 권 안 — 51절의 "인자"는 요한복음 전체에 이어질 자기 칭호의 첫 자리이며, 1장의 "와서 보라"는 6장의 "생명의 떡" 강론으로 흐르는 부름의 문이 된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복음서 4중주에서 **요한복음은 '최종·우주적 완성'의 좌표**를 비춘다. 마가가 권능의 메시아를(숨김→드러남), 마태가 하늘 나라를(구약 성취→천상), 누가가 인격적 통치를(내면→열방) 비춘다면, 요한은 **친밀함(아버지)의 차원에서 태초의 로고스가 성육신을 거쳐 영적·우주적 완성으로** 가는 호(arc)를 연다(book-telos.json). 1장은 그 호의 서곡이자 진원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1절)는 창세기 1:1을 다시 열어, 창조의 그 말씀이 곧 빛으로 세상에 오시는 분임을 밝힌다. 닫혔던 침묵을 깨고 증언자 요한이 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14절)는 성육신이 선언되며, 그 우주적 선언이 요단 건너편 베다니의 한 부르심으로 좁혀진다. 태초(로고스)→성육신→완성이라는 책 전체 운동의 **첫 두 마디(태초·성육신)**가 이 한 장에 압축돼 있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태초의 말씀(logos)→우리 가운데 장막(sarx·eskenosen) / 알지 못함(어둠)→"와서 보라"의 영접.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우주적 태초에서 한 사람의 부르심으로 미는 운동이다. 무대 없는 서곡(1-18절) → 증언자 요한의 "나는 아니다"(19-28절) →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29·36절) → 두 제자의 "어디 거하시나이까"·"와서 보라"(38-39절) → 나dana엘의 "하나님의 아들"(49절) → "하늘이 열리고"(51절). 정지된 한 쪽의 신학이 아니라, 광대한 로고스가 점점 가까이 내려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서곡·증언·첫 제자들의 부르심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영원한 말씀이 시간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친밀함**이다(빙산의 아래). "장막을 치셨다"(eskenosen, 14절)는 광야 성막의

임재를 떠올리는 말로, 멀리 계시던 분이 사람 가운데 천막을 치고 함께 사신다는 것이다. 표면의 "와서 보라"는 호기심의 초대처럼 들리지만, 아래에서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던 세상(10-11절)이 영접을 통해 "자녀 되는 권세"(12절)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 명의의 눈으로는 증언과 부르심의 사건이지만, 신의의 눈으로는 창조의 말씀이 육신으로 와 사람을 다시 자녀로 빛는 원인 자체의 회복이다 — 본문이 미는 데까지만 본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와서 보라"는 부름 앞에서, 따지기 전에 한 걸음 다가가 머무는 그 운동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나다니엘의 회의("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결과 두 제자의 따라감("와서 보라")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영접의 그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와서 보라.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와서 보라"로 따라온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 잔치로 — 말씀의 영광이 첫 표적(물→포도주)으로 드러나고, 성전이 자기 몸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1장 — 미해결 질문 (묵상·사김 단계로 이월)

Q1. 1절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의 관사 없는 *θεός* 어순은 무엇을 의도하는가?

- 사실: 1c항에서 *θεός*가 관사 없이 술어 곁 앞에 놓임.
- 헬라어 문법적 가능성 여러 개 공존. 본문은 해석을 주지 않음.
- 묵상·사김에서 재방문.

Q2. 서곡(1-18)과 내러티브(19-51)의 관계는?

- 문학적 장르 전환 — 찬송 → 대화체.
- 서곡이 뒤의 내러티브를 "요약"하는지, "배경"을 제공하는지, "선언"을 먼저 하는지 본문은 명시하지 않음.

Q3. 날수 세기는 왜 4일로 끊기는가?

- 19절 Day 1 → 29절 "이튿날" → 35절 "또 이튿날" → 43절 "이튿날" → 2:1 "사흘째 되던 날".
- 1:19부터 2:1까지 합하면 일주일 구조가 가능(4일 + 사흘). 창 1의 6일 구조와의 관계는 본문이 말하지 않음. 관찰로만.

Q4. 무대가 "요단 건너편 베다니"로 특정된 이유는?

- 28절이 지명을 정확히 기록함. 예루살렘 근교 베다니(나사로의 고향)와 혼동되기 쉬우나 본문은 "요단 건너편"을 붙여 구분.
- 왜 이 지역에서 요한이 증언했는지는 본문 안에서 설명되지 않음.

Q5. 안드레와 함께한 이름 없는 제자는 누구인가?

- 35-40절에서 두 제자 중 한 명만 안드레로 이름이 기록됨. 다른 한 명은 장 전체에 걸쳐 익명.
- 본문은 이름을 주지 않음. 저자의 자기 언급 가능성 논의는 해석 영역.

Q6. 시몬의 개명(*Kēphas*)이 첫 만남에서 즉시 이뤄진 이유는?

- 마태·마가·누가복음의 병행 기사와 달리 요한은 첫 만남에서 개명.
- 왜 그 순간인가에 대한 본문의 설명 없음.

Q7. 무화과나무 아래 나dana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48절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 본문은 장소만 특정, 행위를 말하지 않음.
- 랍비 전통에서 무화과나무 아래가 토라 묵상 결로 종종 나타나지만 본문은 이를 참조하지 않음.

Q8. 51절 "너희가 보리라"는 누구인가?

- 앞의 대화는 나dana엘 1인칭이지만 *ὄψεσθε*는 2인칭 복수.
- 함께 서 있던 빌립·안드레·시몬·무명 제자를 포함한 복수인지, 장차 모든 제자를 포함한 복수인지 본문은 확정하지 않음.

Q9. "하나님의 어린양"은 어떤 양을 가리키는가?

- 후보 어휘 배경: 유월절 양(출 12) / 속죄일 속죄양(레 16) / 이사야 53의 양 / 창 22 이삭을 대신할 양 / 매일 상번제 양.
- 요 1장은 어떤 양인지 특정하지 않음. 복수의 배경이 겹쳐 있는 채로 보존.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은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 2장

JHN-002 · 복음서 · 헬라어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되는 잔치에서 시작해, "이 성전을 헐라"로 성전을 자기 몸으로 옮기는 장. 첫 표적의 영광과 표적을 향한 믿음의 거리 사이에 한 장이 놓인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집(1-11절) → 가버나움(12절) → 예루살렘 성전(13-25절)으로 옮겨간다.
- 시간 배경 = "사흘째 되던 날"(1절)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13절).
- 가나 소품 = 정결례용 돌항아리 여섯(6절, 각 두세 metretes ≈ 80-120리터), 떨어진 포도주(3절), 물(7절), 물로 된 포도주(9절).
- 성전 소품 = 소·양·비둘기(14절), 환전상의 돈과 상(14-15절), 노끈으로 그 자리에서 만든 채찍(15절).
- 지리 동선 = 갈릴리 → 가버나움(호숫가) → 예루살렘("올라가셨더니", 지대 높음). 헤롯 성전 중건 46년(20절)이 배경.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잔치의 따뜻함·풍성함, 뒤는 성전의 긴장·정화. 한 장 안에 두 결.
- 11절 "영광을 나타내시매"(드러냄)와 24-25절 "말기지 아니하셨으니"(거두심)가 끝에서 마주 본다.
- "표적"(semeion)이 11·18·23절에 세 번, 각각 다른 경로.
- 24-25절의 갑작스러운 종결 — 이어질 듯 멈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어" — 구체적 사건으로 열림.
- 25절: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 일반적 서술로 닫힘.
- 사건에서 서술로, 좁은 곳에서 넓은 데로. 11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와 25절 "사람의 속을 아심"이 양끝에서 마주 본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예수의 어머니(1·3·5) / 제자들(2·11·17·22) / 하인들(5·7·9) / 연회장(8·9·10) / 신랑(9·10) / 유대인들(18·20) / 장사하는·환전하는 사람들(14-15) / 많은 사람(23).
- 4절: "여자여(gynai)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hora)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 거리와 때. 5절: 어머니의 "그대로 하라".
- 9절: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 하인들은 "알더라" — 모름과 앎이 한 절에.
- 유대인들 18절 "무슨 표적을" / 20절 "사십육 년 동안에" — 권위 요구·시간 셈.

- "기억하더라"(mnemoneuo) 2회 — 17절(그때) / 22절(부활 후).
- 23-24절: "믿었으나"(episteusan)와 "말기지 아니하셨으니"가 같은 pisteuo 계열로 마주 놓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1): 가나 잔치, 떨어진 포도주, 향아리 여섯, 물→포도주, 첫 표적·제자들 믿음.
- 컷 2 (12): 가버나움 이동, 며칠 머물.
- 컷 3 (13-22):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 정화, "내 아버지의 집", 시 69:9 기억, "이 성전을 헐라", 부활 후 깨달음.
- 컷 4 (23-25): 많은 사람이 믿음, 예수는 말기지 아니하심.

6 — (1) 원어 카드

- semeion(σημεῖον) — 표적. 11절(첫 표적), 18절(요구받음), 23절(복수, 사람들이 봄).
- hora(ώρα) — 때. 4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 doxa(δόξα) — 영광. 11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 gynai(γύναι) — 여자여. 4절(어머니께), 19:26(십자가)에서 한 번 더.
- oikos(οἶκος) — 집. 16절 "내 아버지의 집".
- zelos(ζῆλος) — 열심. 17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시 69:9 인용).
- hieron(ἱερόν) / naos(ναός) — 성전. 14-15절은 hieron(바깥뜰 포함), 19-21절은 naos(내소·몸). 한국어 "성전"이 두 단어로 갈림.
- metretes(μετρητής) — 통. 6절, 한 통 ≈ 40리터.
- architriklinos(ἀρχιτρικλινος) — 연회장. 8·9·10절.

6 — (2) 문학 구조

- 두 사건(가나 표적 1-11 / 성전 정화 13-22)과 하나의 이동(12) + 요약(23-25)의 네 묶음.
- "믿다"(pisteuo) 프레임 — 11절(제자들), 22절(제자들, 부활 후), 23절(많은 사람) → 24절(말기지 않으심)으로 비틀림.
- 아이러니 — 9절(연회장 모름 / 하인 앓), 10절(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19-20절(헐라 / 사십육 년).
- 본문이 인과·의도를 직접 밝히는 두 대목 — 21절(성전=육체), 24-25절(말기지 않으신 까닭).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6절의 돌향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른 것 — 의식적 정결을 위한 물그릇(배경). 막 7장의 손 씻는 전통과 같은 결.
- 유월절(13·23절)은 출애굽 기념 절기로 순례객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 성전세·제물 거래가 성전 뜰에서 이루어짐(배경).
- 20절 "사십육 년"은 헤롯 성전 중건 기간으로 보고됨 — 본문 시점까지 경과한 햇수(배경).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 2:17 ↔ 시 69:9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제자들이 기억함)
- 요 2:13-16 ↔ 막 11:15-17 (성전 정화 — 요한은 사역 초기 배치)
- 요 2:19-21 ↔ 요 1:14 (eskenosen, 장막 치심 / 성전=육체)

- 요 2:4 "내 때" ↔ 요 7:30 · 12:23 · 17:1 (hora의 결)
- 요 2:21 ↔ 고전 3:16 · 6:19 (몸이 성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 잔치에 예수와 어머니와 제자들이 청함을 받는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가 야되고, 예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지만,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다. 정결례 돌항아리 여섯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게 하시고,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게 하시니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된다.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고 하인들은 안다. 이 첫 표적으로 영광이 나타나 제자들이 믿는다. 가버나움에 며칠 계셨다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서 짐승을 내쫓고 돈을 쏟고 상을 엮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신다.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를 기억한다.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는 물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하시는데,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킨 것이며 제자들은 부활 후에야 깨닫는다. 끝으로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믿으나, 예수는 사람의 속을 아시므로 자기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시는 한 줄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물과 포도주, 성전과 육체 — 첫 표적과 정화"
- 초벌 부제: "좋은 포도주의 영광에서, 헐고 다시 세울 성전으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정결례·유월절·헤롯 성전 46년·시 69:9·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이 성전을 헐라"(19절)가 곧장 부활 신학으로 굳지 않도록 → 21절 본문 자체의 해설(naos=육체)만 기록.
- "여섯" 향아리(6절)의 상징 해석은 보류, 숫자 사실만 보존.
- 23-24절 "믿음"과 "말기지 않으심"의 긴장은 같은 pisteuo 계열의 두 결로만 보존, 관계는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2장은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되는 잔치와 성전을 자기 몸으로 옮기는 말씀이 한 장 안에서 영광과 거두심으로 마주 놓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가나의 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정결례 향아리의 물로 채워 좋은 포도주로 내고, 그것을 "첫 표적"이자 "영광의 나타남"이라 부른다. 그러나 같은 장이 곧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무대를 옮겨, 채찍과 엮어진 상 가운데 "이 성전을 헐라"는 말로 성전을 자기 육체에 포갠다. 끝에서는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믿지만, 예수는 사람의 속을 아시므로 자기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와 믿음에 자기를 맡기지 않는 자리가 한 장의 양끝에 있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가나 잔치(1-11) → 가버나움(12) → 예루살렘 성전(13-25). 정결례 향아리 여섯·물·포도주 / 소·양·돈·상·채찍. 유월절 배경.
2 첫 느낌·분위기	잔치의 따뜻함과 성전의 긴장. 11절 드러냄 ↔ 24-25절 거두심. semeion 3회.
3 시작과 끝	시작 — 사흘째 잔치(1절). 끝 — "사람의 속을 아심"(25절). 사건에서 서술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어머니 / 제자들 / 연회장·하인 / 유대인. 4절 "내 때". 9절 앎과 모름. "기억하더라" 2회.
5 장면 컷	컷 1 가나 표적(1-11). 컷 2 이동(12). 컷 3 성전 정화(13-22). 컷 4 요약(23-25).
6 의문·발견·정보	hieron↔naos 전환. lysate(명령형). 시 69:9 기억.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7 동영상	물→포도주의 잔치 → 가버나움 → 성전 정화 → "이 성전을 헐라" → 믿음과 맡기지 않으심으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물과 포도주, 성전과 육체". 부제 — "좋은 포도주의 영광에서, 헐고 다시 세울 성전으로".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잔치와 성전을 걸으며 좋은 포도주를 나중까지 두시는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정결례의 물이 좋은 포도주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놓인 향아리의 물(6절)이 연회장이 칭찬하는 좋은 포도주가 된다(9-10절). 채움과 바뀔이 한 자리에서 일어난다.
2. **결 2 — 두 단어의 "성전":** 14-15절의 hieron(뜰)과 19-21절의 naos(내소·몸)가 같은 "성전"으로 번역되지만, 본문은 그 말을 건물에서 육체로 옮긴다(21절).

3. **결 3 — 믿음과 맡기지 않으심**: 많은 사람이 "믿었으나"(episteusan) 예수는 자기 몸을 "맡기지 아니하셨으니"(같은 pisteuo 계열), 같은 단어가 두 방향으로 놓인다(23-24절).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요 1:14** (eskenosen, 장막 치심 / 성전=육체), **요 7:30 · 12:23 · 17:1** ("때"의 결), **요 20:9** (부활 후 깨달음).
- 다른 권 — **시 69:9**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17절 기억), **막 11:15-17** (성전 정화), **고전 3:16 · 6:19** (몸이 성전).
- 정경 흐름 — 2장의 "첫 표적"(archen ton semeion)은 요한복음 일곱 표적의 첫 자리로, 표적과 믿음을 함께 묻는 책의 결을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가운데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정결례의 물이 좋은 포도주로 바뀌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채찍과 엮어진 상의 성전에서 멈춘다.
- **멈춤 3**: "이 성전을 헐라"가 자기 몸을 가리키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표적을 본 믿음과 자기를 맡기시는 믿음은 다른 자리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좋은 포도주를 나중까지 두시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잔치의 떨어진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로 채워진다
- [x] 그것이 "첫 표적"이자 "영광의 나타남"이다
- [x] 무대가 가나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간다
- [x] "이 성전을 헐라"가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21절 본문 해설)
- [x] 제자들은 부활 후에야 그 말씀을 깨닫는다
- [x]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믿는다
- [x] 예수는 사람의 속을 아시므로 자기를 맡기지 않으신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복음서 4중주에서 요한은 '**최종·우주적 완성**'(친밀함의 차원)의 좌표로, 태초의 로고스가 성육신을 거쳐 완성으로 가는 호를 비춘다(book-telos.json). 2장은 그 호에서 **성육신한 말씀이 '표적'으로 자기 영광을 처음 드러내는** 국면이다. 1장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치셨다"는 성육신을 선언했다면, 2장은 그 육신이 가나의 잔치에서 첫 표적(semeion)으로 영광을 나타내고(11절), 곧 성전을 자기 몸으로 옮겨 말한다(19-21절). 이는 옛 언약의 정결례(돌항아리)와 성전 제도가 그리스도라는 새 영광·새 성전으로 채워지고 옮겨지는 자리다. 요한복음 표적 연쇄(7표적)의 첫 단추가 여기서 끼워지며, "헐라... 사흘에 다시 세우리라"는 부활을 향한 책 전체 운동을 미리 비춘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결례 돌항아리의 물→잔치의 좋은 포도주(첫 표적) / 건물 된 성전→자기 몸의 성전(naos).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옛 그릇에서 새 영광으로 미는 운동이다. 가나의 부족함(포도주 없음) → "그대로 하라"의 순종 → 아귀까지 채운 물 → 좋은 포도주·드러난 영광 → 예루살렘 성전의 헐림 → 자기 몸으로 옮겨진 성전. 정지된 두 일화가 아니라, 채움과 옮김을 통해 새 영광이 옛 자리를 대신하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과 성전 정화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예배의 자리가 제도에서 한 인격(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가는 일**이다(빙산의 아래). 정결례를 위한 돌항아리(옛 의식)가 잔치의 기쁨으로 넘치고, 장사하는 집이 된 성전(낡은 제도)이 "사흘에 다시 세울" 자기 몸으로 대체된다. 본문이 직접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라고 밝히는(21절) 그 자리에서, 예배는 건물이 아니라 부활할 한 몸을 향한다. 명의의 눈으로는 기적과 정화의 사건이지만, 신의 눈으로는 옛 그릇·옛 성소가 새 영광·새 성전으로 회복되는 원인의 자리다 — 본문이 미는 데까지만 본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 까닭을 다 알기 전에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하인들의 채움 결과 제자들의 "믿으니라"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순종과 드러난 영광 사이의 그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표적.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표적을 보고 믿은 무리를 지나, 밤에 한 사람(니고데모)이 찾아와 — 드러난 영광이 이제 "거듭남"이라는 내면의 새 출생으로 좁혀 들어간다.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2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무슨 결인가?

- 거리를 두는 호칭 gynai이나 적대적이진 않음(19:26에서 한 번 더).
- 거절인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설명인지는 답하지 않고 보존.

Q2. "내 때"(hora)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 4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뒤로 거듭 나오는 단어.
- 지시 대상은 분포만 두고, 결은 보류.

Q3. 왜 "여섯" 항아리인가?

- 6절은 숫자만 말하고 까닭은 말하지 않음.
- 상징 여부는 답하지 않고 사실만 보존.

Q4. 연회장은 모르고 하인들은 아는 대조의 까닭은?

- 9절 "알지 못하되 / 알더라"가 한 절에 같이.

- 왜 이 대조를 두었는지는 보류.

Q5. 19절 "이 성전을 헐라"(lysate)는 명령인가 예언인가?

- 문법상 명령형. 21절에서 본문이 "자기 육체"라 해설.
- 명령형의 기능은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6. 23절 "믿었으나"와 24절 "말기지 아니하셨으니"는 어떻게 함께인가?

- 같은 pisteuo 계열이 두 결로 마주 놓임.
- 믿음의 질적 차이 여부는 분포만 보존, 관계는 보류.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 3장

JHN-003 · 복음서 · 헬라어

밤에 찾아온 선생에게 "위로부터 나와 한다"가 놓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빛과 어둠으로 펼쳐지는 장. 끝에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라며 물러난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예루살렘의 밤(1-21절, "밤에" nyktos) → 유대 땅·애논(22-36절, "물이 많은" 곳).
- 두 무리가 같은 때에 세례를 줌 — 예수와 제자들(22절), 세례 요한(23절).
- 소재 = 물(5절), 바람(8절), 늦밤(14절, 민 21장), 세례(22-23절).
- 니고데모의 자리 = "바리새인"·"유대인의 지도자"(archon, 1절)·"이스라엘의 선생"(10절). 배경으로만.
- 25절 정결례 변론 발생 — 요한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 내용은 본문 미명시.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조용하고 은밀한 밤 대화. 문자적 이해와 다른 결의 말이 어긋남.
- 3:16의 익숙함 vs 전체 흐름 안에서의 새로움.
- "빛과 어둠", "위와 아래", "하늘과 땅"의 마주 놓임.
-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의 깊은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 한 사람의 찾아옴.
-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 모두를 향한 선언.
- 한 사람에서 모두에게로. 밤(시작) → 빛과 어둠(중간) → 진노 머물(끝)의 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니고데모(1·2·4·9) / 세례 요한(27-30) / 요한의 제자들(25·26) / 한 유대인(25) / 예수의 제자들(22).
- 니고데모 2절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선생" 인정 → 4절 "두 번째 모태에" 문자적 오해 → 9절 "어찌 그러한 일이".
- 예수 3·5-8절: anothen·물과 성령·육과 영·pneuma(바람/영). 13-15절: 인자·늦밤·"들려야". 16-21절: "이처럼 사랑하사"·빛과 어둠.

- 세례 요한 27-30절: "하늘에서 주신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신랑의 친구", "그는 흥하여야 (auxano)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 19절: 본문이 인과 직접 밝힘 —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0): 밤의 방문, 거듭남 대화, 오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
- 컷 2 (11-21):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늦밤, 요 3:16-17, 빛과 어둠.
- 컷 3 (22-30): 두 곳의 세례, 정결례 변론, 요한의 증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 컷 4 (31-36): 위로부터 오시는 이, 성령을 한량없이, 믿음과 순종·진노.

6 — (1) 원어 카드

- anothēn(ἄνωθεν) — 위로부터/다시. 3·7절(거듭남), 31절("위로부터 오시는 이").
- pneuma(πνεῦμα) — 영/바람. 5·6·8절(거듭남·바람), 34절(성령).
- gennaō(γεννάω) — 낳다/거듭나다. 3·4·5·6·7·8절 거듭.
- monogenēs(μονογενής) — 독생자. 16·18절. 요 1:14·1:18과 이어짐.
- pisteuo(πιστεύω) — 믿다. 12·15·16·18·36절.
- zoe aionios(ζωὴ αἰώνιος) — 영생. 15·16·36절.
- krisis(κρίσις) — 심판. 17·18·19절.
- phos(φῶς) / skotos(σκότος) — 빛 / 어둠. 19-21절.
- martyreo(μαρτυρέω) — 증언하다. 11·26·28·32·33절.
- auxano(αὐξάνω) — 흥하다/자라다. 30절 "그는 흥하여야".

6 — (2) 문학 구조

- 두 묶음 — 니고데모 만남(1-21) / 세례 요한 증언(22-36).
- 대화-오해 패턴 — 니고데모의 문자적 이해(4절) ↔ 다른 결의 말(5-8절). 요 4·6장에도 같은 형식.
- 마주 놓임 — 위/아래(13·31), 하늘/땅(12·31), 빛/어둠(19-21), 영/육(6).
- Inclusio — 3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36절 "생명을 보지 못하고". 5절 "물과 성령" ↔ 34절 "성령을 한량없이".
- 본문이 인과를 직접 밝히는 대목 — 19절(어둠을 사랑한 까닭).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늦밤(14절)은 민 21:8-9 — 광야에서 장대에 단 늦밤을 바라보는 자가 살았던 사건. 본문이 인자의 들림에 포괄.
- 니고데모의 "밤" 방문(1-2절)은 사실로 기록. 까닭은 본문 미명시. 니고데모는 요 7:50·19:39에 다시 나옴 (배경).
- 정결례 변론(25절)은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를 둘러싼 논쟁으로 추정되나, 본문은 내용을 말하지 않음.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 3:14-15 ↔ 민 21:8-9 (늦밤, 인자의 들림)

- 요 3:3-8 ↔ 요 1:12-13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
- 요 3:16 ↔ 요 1:14·1:18 (monogenes 독생자)
- 요 3:5 ↔ 겔 36:25-27 (맑은 물과 새 영)
- 요 3:14 ↔ 요 12: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와 "당신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한다.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묻는다.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하신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어둠을 더 사랑했다. 예수와 제자들이 유대 땅에서 세례를 주시고 세례 요한도 애논에서 세례를 준다. 정결례 변론이 일고,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있던 이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한다.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신랑의 친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답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는 한 줄로 달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위로부터 난 자 —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물러나는 증인"
- 초벌 부제: "밤에 찾아온 물음에서, 물러나는 증인의 고백으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1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눅뱀·니고데모 정체성·정결례·대화-오해 패턴·Inclusio)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3절 anothen의 "위로부터/다시"는 두 뜻을 모두 관찰로 남기고, 어느 하나로 확정하지 않음.
- 5절 "물"의 지시 대상(세례/정결/출생)은 보류, 단어 위치만 보존.
- 16-21절·31-36절의 화자(예수 말씀인지 저자 서술인지)는 본문이 구분하지 않으므로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3장은 밤에 찾아온 한 선생에게 "위로부터 나아 한다"가 놓이고, "이처럼 사랑하사"가 빛과 어둠으로 펼쳐진 뒤, 물러나는 한 증인의 고백으로 닫히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니고데모의 밤 방문으로 열린다. "거듭"이라는 한 단어(another)가 "다시"와 "위로부터" 사이에서 흔들리고, "바람"이라는 한 단어(pneuma)가 "영"과 겹친다. 대화는 거듭 어긋나지만, 그 어긋남 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놓이고, 빛이 온 세상에서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갈림이 드러난다. 그리고 같은 장의 뒤편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신랑의 친구로만 두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물러난다. 거듭남과 사랑과 물러남이 한 장에 함께 있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예루살렘의 밤(1-21) → 유대 땅·애논(22-36). 물·바람·눗뱀·세례. 니고데모의 세 호칭.
2 첫 느낌·분위기	은밀한 밤 대화, 어긋남. 빛/어둠·위/아래. 30절의 깊은 인상.
3 시작과 끝	시작 — 한 사람(1절). 끝 — 모두를 향한 선언(36절). 밤에서 빛과 어둠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니고데모·예수·세례 요한. another 오해. 19절 본문이 인과 밝힘. 30절 물러남.
5 장면 컷	컷 1 밤 대화(1-10). 컷 2 인자·눗뱀:3:16(11-21). 컷 3 두 세례·요한 증언(22-30). 컷 4 위로부터 오신 이(31-36).
6 의문·발견·정보	another·pneuma 중의성. 13절 완료형. monogenes·krisis. 36절 pisteuon↔apeithon.
7 동영상	밤의 물음 → 물과 성령 → 인자의 들림 → 이처럼 사랑하사 → 빛과 어둠 → 물러나는 증인으로 흐름.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위로부터 난 자". 부제 — "밤에 찾아온 물음에서, 물러나는 증인의 고백으로".
9 동영상 안 걷기·기도	밤의 자리와 요단 강가를 걸으며 거듭남의 물음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러낸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한 단어의 두 뜻:** "거듭"(another)이 "다시"와 "위로부터"를, "바람"(pneuma)이 바람과 영을 함께 진다. 니고데모의 오해는 그 두 뜻의 틈에서 일어난다(3·4·8절).

2. **결 2 — 사랑과 갈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16절) 바로 뒤에 빛과 어둠의 갈림이 온다(19-21절). 본문은 그 갈림의 까닭을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라고 직접 밝힌다.

3. **결 3 — 물러남**: 세례 요한은 자기를 신랑이 아니라 친구로 두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30절)고 작아진다. 증언(martyreo)이 곧 물러남이 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요 1:12-13**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 **요 1:14·1:18** (monogenes 독생자), **요 12: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 다른 권 — **민 21:8-9** (놋뱀, 14절 인용), **겔 36:25-27** (맑은 물과 새 영).
- 정경 흐름 — 3:16의 "독생자"는 1장 서문(1:14·1:18)에서 열린 단어를 이어받아, 믿음과 영생을 책 전체의 결로 묶는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밤에 한 사람이 진지한 물음을 들고 선다.
- **멈춤 1**: "위로부터 나와 한다"는 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이처럼 사랑하사"가 선포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갈림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증언은 작아지는 자리에서 비로소 또렷해진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거듭남의 물음 앞*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다
- [x] "위로부터 나와 한다"가 거듭 어긋나며 놓인다
- [x] 물과 성령, 육과 영이 갈린다
- [x]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빛과 어둠으로 펼쳐진다
- [x] 두 곳에서 세례가 동시에 행해진다
- [x] 세례 요한이 자기를 친구로 두고 물러난다
- [x] 끝은 믿음과 순종, 영생과 진노의 갈림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복음서 4중주에서 요한은 '**최종·우주적 완성**'(친밀함의 차원)의 좌표로, 태초의 로고스가 성육신을 거쳐 영적·우주적 완성이로 가는 호를 비춘다(book-telos.json). 3장은 그 호에서 **성육신한 말씀이 한 사람의 내면에 '새 출생'을 일으키는** 국면이다. 1장의 우주적 서곡, 2장의 표적과 성전을 지나, 이제 운동이 가장 좁고 깊은 자리 — 한 사람의 거듭남 — 로 내려온다. "물과 성령으로 나와 한다"(5절)는 에스겔 36장(새 영·정한 물)의 약속을 잇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14절)는 민수기 21장을 들어 십자가("들림")를 미리 비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16절)는 책 전체의 우주적 사랑(온 세상)을 한 절에 압축하며, 그 사랑이 어떻게 한 개인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지를 밝힌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육의 출생(밤·아래)→물과 성령의 출생(위로부터·another) / 어둠을 더 사랑함→들린 인자를 믿어 얻는 영생.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아래의 출생에서 위로부터의 출생으로 미는 운동이다. 니고데모의 밤 방문 → "어떻게 다시 나리이까"의 오해 → "물과 성령으로" → 들려야 할 인자 → "이처럼 사랑하사" → 세례 요한의 "그는 흥하여야"(30절). 정지된 한 편의 교리 문답이 아니라, 땅의 물음이 위로부터의 사랑으로 끌어올려지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밤의 대화와 정결례 변론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사람이 존재의 뿌리부터 새로 태어나는 일**이다(빙산의 아래). 한 번 난 육의 출생으로는 나라를 "볼 수도"(3절) "들어갈 수도"(5절) 없고, 성령으로 다시 나아 한다 — 이는 행위의 교정이 아니라 출생 자체의 갱신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8절)처럼 성령의 일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고, 위로부터 받을 뿐이다. 명의를 눈으로는 밤의 변론 사건이지만, 신의 눈으로는 한 사람의 무의식과 체질까지 새로 빛는 거듭남, 곧 원인 자체가 새로 놓이는 회복이다 — 본문이 미는 데까지만 본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위로부터 나아 한다" — 내 힘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성령에 새 출생을 맡기는 일이 내 안에서조차 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물음 결과 "이처럼 사랑하사"의 사랑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거듭남의 그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위로부터.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밤에 찾아온 한 율법교사를 지나, 한낮에 홀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 위로부터의 출생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수의 운동으로 번져간다.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3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3절 another는 "위로부터"인가 "다시"인가?

- 두 뜻 모두 가능. 니고데모는 "다시"(두 번째 모태)로 들음.
- 중의성이 의도된 것인지는 답하지 않고 보존.

Q2. 5절 "물과 성령"의 "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세례·정결(겔 36:25-27)·자연 출생 등 여러 걸.
- 지시 대상은 보류, 단어만 보존.

Q3. 8절 "바람"(pneuma)과 "영"(pneuma)의 중의성은 어떻게 함께인가?

- 같은 단어가 "바람"과 "영"으로 한 문장에.
- 비유의 강조점은 답하지 않고 위치만 보존.

Q4. 13절 "하늘에 올라간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 아직 승천 전인데 완료형 표현이 나옴.
- 시제·서술 시점은 보류.

Q5. 니고데모는 이 대화 후 어떻게 되었는가?

- 본문은 니고데모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음. 요 7:50·19:39에 다시 나옴.
- 믿음 여부·변화는 답하지 않고 보존.

Q6. 36절 "순종하지 아니하는"(apeithon)은 왜 "믿지 않는"과 다른 단어인가?

- 앞은 "믿는 자"(pisteuon), 뒤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apeithon)로 단어가 바뀜.
- 단어 전환의 까닭은 보류, 분포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 4장

JHN-004 · 복음서 · 헬라어

정오의 우물에서 길어 마실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바뀌고, 예배가 산에서 "영과 진리"로 옮겨가는 장. 물동이를 버려둔 한 여인과 멀리서 말씀만으로 나온 아들이 같은 믿음의 결을 이룬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유대(1-3절) → 사마리아 수가(4-42절) → 갈릴리 가나(43-54절)로 옮겨간다.
- 시간 = 우물 장면 "제육시쯤"(6절, 정오), 치유 확인 "제칠시"(52절).
- 소품 = 야곱의 우물(pege, 6절), 여인의 물동이(7·28절), "이 산"=그리심산(20절).
- 배경 =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5절, 창세기 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9절, 저자의 설명).
- 가나(46절)는 2장 첫 표적의 자리와 같은 곳.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여인과의 대화가 길고 단계적. 여인이 점점 바뀜.
- "물"이 우물물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옮겨감.
- 두 부분 — 사마리아 여인(1-42)과 왕의 신하(43-54).
- 23-24절 "영과 진리로 예배"의 선언, 42절 "세상의 구주" 고백의 무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3절: 바리새인들의 주목, 유대를 떠남 — 여정의 시작.
- 54절: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 — 도착 후 표적으로 닫힘.
- 장소 이동이 한 장의 틀. 떠남에서 표적으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제자들 / 사마리아 여인 / 사마리아 사람들 / 왕의 신하와 아들·종들.
- 여인 9절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 15절 "그런 물을 주소서"(육체적) → 19절 "선지자로소이다" → 29절 "그리스도가 아니냐" → 동네로 가서 전함.
- 예수 10절 역전된 청(물을 주겠다), 16-18절 지난 일 아심, 23-24절 "영과 진리", 26절 "내가 그라", 34절 "내 양식".
- 사마리아 사람들 39-42절: 여인의 말로 믿음 → 직접 들음 → "세상의 구주" 고백.
- 왕의 신하 46-53절: 간청 →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믿고 감 → 제칠시 확인 → 온 집안 믿음.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 유대 떠남 → 수가, 야곱의 우물, 제육시.
- 컷 2 (7-15): 물 대화, 우물물 → 생수 → 솟아나는 샘물.
- 컷 3 (16-26): 지난 일, 예배 논쟁, "내가 그라".
- 컷 4 (27-30): 제자들 돌아옴, 여인이 물동이 버리고 전함.
- 컷 5 (31-38): 양식,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고도다".
- 컷 6 (39-42): 사마리아인 믿음, "세상의 구주".
- 컷 7 (43-45): 갈릴리로 가심.
- 컷 8 (46-54): 왕의 신하 아들 치유, 제칠시, 온 집안 믿음.

6 — (1) 원어 카드

- hydor(ὕδωρ) — 물. 7·10·11·13·14·15절. 10절부터 "생수(살아 있는 물)".
- pege(πηγή) — 샘·우물. 6절(야곱의 우물), 14절("솟아나는 샘물"). 우물에서 샘으로.
- pneuma(πνεῦμα) — 영. 23·24절 "영과 진리로".
- aletheia(ἀλήθεια) — 진리. 23·24절.
- proskyneō(προσκυνέω) — 예배하다. 20·21·22·23·24절에 거듭.
- messias(Μεσσίας) — 메시아. 25절(여인의 말).
- soter(σωτήρ) — 구주. 42절 "세상의 구주"(soter tou kosmou).
- kosmos(κόσμος) — 세상. 42절.
- hora(ώρα) — 때. 6절(제육시), 21·23절("때가 오나니"), 52절(제칠시).
- ergon(ἔργον) — 일. 34절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 semeion(σημεῖον) — 표적. 48·54절("두 번째 표적").

6 — (2) 문학 구조

- 두 묶음 — 사마리아 여인(1-42) / 왕의 신하(43-54). 둘 다 믿음의 단계적 진행.
- "물" 모티프 — 우물물(7) → 생수(10) → 솟아나는 샘물(14). 물질에서 솟음으로.
- 여인의 호칭 변화 — "유대인"(9) → "주여"(11·15) → "선지자"(19) → "그리스도"(29).
- 대화-오해 패턴 — 15절(육체적 물로 들음), 33절(제자들이 음식으로 들음). 요 3장과 같은 형식.
- 두 시간 표기의 마주 놓임 — 제육시(6) / 제칠시(52).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5절)·"야곱의 우물"(6절)은 창세기·여호수아의 결을 본문이 직접 끌어옴(배경).
- "이 산"(20절)은 그리심산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처소. 예루살렘 성전과의 거리가 예배 논쟁의 배경.
- 9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는 본문 자체의 배경 설명 — 두 집단의 오랜 거리.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 4:14 ↔ 요 6:35·7:37-38 (주리지 않는 떡 / 목마르지 않는 물·생수의 강)
- 요 4:5-6 ↔ 창 33:19·48:22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 요 4:46-54 ↔ 요 2:1-11 (가나 —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
- 요 4:21-24 ↔ 요 2:19-21 (성전·예배 처소를 넘어섬)
- 요 4:42 "세상의 구주" ↔ 요 3:16-17 (세상을 사랑하사·구원하려)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지나, 수가의 야곱의 우물 곁에 제육시쯤 피곤하여 앉으신다. 한 여인이 물을 길으러 오자 "물을 좀 달라" 하시고, 여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찌 청하느냐" 반문한다. "네가 알았더라면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인은 "그런 물을 주소서" 한다. 우물물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말이 옮겨간다. "네 남편을 불러 오라" 하시고 지난 일을 아시자, 여인이 "선지자로소이다" 하며 예배할 곳을 묻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시고, "메시아가 오실 줄 아나이다"라는 말에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신다. 제자들이 돌아와 이상히 여기지만 묻지 않고,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전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밭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신다. 많은 사마리아인이 여인의 말로 믿고, 직접 듣고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 고백한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로 가시자 한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 달라 간청하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신하가 믿고 가다가 제철시에 열이 떨어진 것을 종들에게서 확인하여 온 집안이 믿는 한 줄로 닫힌다.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별 제목: "솟아나는 샘물 — 영과 진리, 그리고 멀리서의 믿음"
- 초별 부제: "정오의 우물에서, 멀리서 말씀만으로 나온 집으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1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야곱의 우물·그리심산·사마리아·유대 갈등·물 모티프·두 시간 표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8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별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영과 진리로 예배"(23-24절)가 곧장 예배론으로 굳지 않도록 → pneuma·aletheia·proskyneo의 어휘 위치만 기록.
- 여인의 "남편 다섯"(18절)은 본문이 말한 사실만 보존, 신상 해석은 보류.
- 두 표적의 "제육시/제칠시"(6·52절) 시간 일치는 분포만 기록, 인과는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4장은 정오의 우물물이 "숫아나는 샘물"로, 산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옮겨가고, 한 여인과 한 집안이 같은 믿음의 경로 닿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한낮의 야곱의 우물에서 시작한다. 길어 마실 우물물이 "영생하도록 숫아나는 샘물"로 걸을 옮기고,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를 묻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옮겨간다. 지난 일이 다 드러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전하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 말로, 나중에 직접 들어 "세상의 구주"라고 백한다. 같은 장의 끝에서, 한 왕의 신하는 가나에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는 한 마디를 듣고 멀리서 믿어, 제칠시의 시간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확인한다. 가까이서 길어 마시던 물과 멀리서 들은 한 마디가 같은 믿음으로 이어진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유대(1-3) → 사마리아 수가(4-42) → 가나(43-54). 야곱의 우물·물동이·그리심산. 제육시/제칠시.
2 첫 느낌·분위기	단계적으로 바뀌는 여인. 우물물 → 숫아나는 샘물. 두 부분. "영과 진리" 선언.
3 시작과 끝	시작 — 유대 떠남(1-3). 끝 — 두 번째 표적(54). 여정의 틀.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여인 / 사마리아 사람들 / 왕의 신하. 여인의 호칭 변화. 26절 "내가 그라".
5 장면 컷	컷 1 우물 도착(1-6). 컷 2 물 대화(7-15). 컷 3 예배·계시(16-26). 컷 4 물동이 버림(27-30). 컷 5 추수(31-38). 컷 6 마을 믿음(39-42). 컷 7 가나로(43-45). 컷 8 아들 치유(46-54).
6 의문·발견·정보	hydor→pege. pneuma·aletheia·proskyneo. 34절 "내 양식". 제육시/제칠시.
7 동영상	한낮의 우물 → 생수 → 예배·계시 → 동네 전함 → 추수 → 세상의 구주 → 가나 → 멀리서 나온 아들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숫아나는 샘물". 부제 — "정오의 우물에서, 멀리서 말씀만으로 나온 집으로".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우물가와 동네와 가나를 걸으며 한낮에 홀로 온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물의 옮겨감:** "야곱의 우물"(pege, 6절)과 "솟아나는 샘물"(pege, 14절)이 같은 단어다. 길어 마시는 물에서 안에서 솟는 물로 방향이 바뀐다.
2. **결 2 — 예배의 옮겨감:** "이 산이나 예루살렘이나"의 장소 물음(20절)이 "영과 진리로"(23-24절)의 결로 옮겨간다. 처소를 묻던 자리가 예배의 결을 묻는 자리가 된다.
3. **결 3 — 두 믿음의 마주봄:** 가까이서 길어 마시던 여인과 마을(39-42절), 멀리서 한 마디만 듣고 믿은 신하의 집안(46-53절)이 한 장에서 마주 놓인다. 직접 들음과 멀리서 들음이 같은 믿음에 닿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요 2:1-11** (가나,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요 6:35·7:37-38** (주리지 않음·생수의 강), **요 3:16-17** (세상을 사랑하사 / 42절 "세상의 구주").
- 다른 권 — **창 33:19·48:22**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5절 배경).
- 정경 흐름 — 4장의 "영과 진리로 예배"는 2장의 성전을 자기 몸으로 옮긴 결을 이어, 예배를 처소에서 풀어내는 책의 흐름에 놓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낮에 홀로 물 길으러 온 한 사람이 우물가에 선다.
- **멈춤 1:** 우물물이 "솟아나는 샘물"로 옮겨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지난 일이 다 드러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는 말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직접 들은 믿음과 멀리서 들은 믿음은 같은 자리에 닿는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물동이를 버려두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정오의 우물에서 물을 청하시며 대화가 열린다
- [x] 우물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옮겨간다
- [x] 예배가 산에서 "영과 진리"로 옮겨간다
- [x]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가 선포된다
- [x]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전한다
- [x] 마을이 직접 듣고 "세상의 구주"라 고백한다
- [x] 멀리서 말씀만으로 한 아들이 낮고 온 집안이 믿는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복음서 4중주에서 요한은 '최종·우주적 완성'(친밀함·온 세상)의 좌표로, 태초의 로고스가 성육신을 거쳐 우주적 완성이로 가는 호를 비춘다(book-telos.json). 4장은 그 호에서 **새 출생(3장)이 경계를 넘어 한 이방 여인과 온 동네로 번지기 시작하는 국면**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23절)는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새 예배의 자리를 연다 — 성전 제도(2장)가 자기 몸으로 옮겨진 뒤, 예배가 장소를 넘어 영과 진리로 옮겨가는 자리다. "내가 그라"(ego eimi, 26절)는 요한복음 자기 계시의 첫 또렷한 울림이며, 한 여인

의 동네 증언으로 "세상의 구주"(42절·온 세상) 고백이 터지는 것은 책 전체의 우주적 운동(온 세상을 향한 사랑)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발 내딛는 자리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야곱의 우물물(다시 목마름)→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생수) / 한 여인의 갈증→온 동네의 "세상의 구주" 고백.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한 우물에서 온 동네로 번지는 운동이다. 한낫 우물가의 만남 → 생수의 약속 → 영과 진리의 예배 → "내가 그라" → 물동이를 버려둔 달려감 → 동네의 믿음 → 가버나움 신하 아들의 회복. 정지된 한 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갈증이 추수로 번져가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우물가 대화와 예배 논쟁, 그리고 신하 아들의 치유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밀려난 자의 회복과, 장소를 넘어선 예배의 탄생**이다(빙산의 아래). 유대인·사마리아인, 남녀, 한낫에 홀로 온 부끄러움 — 그 모든 경계를 가로질러 먼저 "물을 좀 달라"(7절)고 다가가신다. 표면의 생수는 갈증을 푸는 물 같지만, 아래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14절), 곧 사람 안에서 끊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 놓인다. 명의의 눈으로는 대화와 치유의 사건이지만, 신의 눈으로는 멀리 밀려난 한 사람이 구주를 알아보고 그 알아봄이 동네로 번지는, 예배의 뿌리가 새로 놓이는 회복이다 — 본문이 미는 데까지만 본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간 그 발걸음 — 만남 하나로 길으러 온 까닭을 잇는 운동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한낫 우물가 여인의 갈증 결과 "와서 보라"를 동네에 전한 그 달려감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영과 진리의 예배 그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생수.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생수가 솟는 그 자리에서, 이번엔 베데스다 못가의 38년 된 병자에게로 — "낮고자 하느냐"는 물음과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라는 안식일 논쟁이 통치의 권한을 드러낸다.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4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여인은 왜 한낫(제육시)에 홀로 물을 길으러 왔는가?

- 보통은 여럿이 아침·저녁에 음. 본문은 까닭을 말하지 않음.
- 시간·홀로 음의 사실만 보존, 정황은 보류.

Q2. "솟아나는 샘물"(pege)은 우물(pege)과 어떻게 다른가?

- 같은 단어가 6절(야곱의 우물)과 14절(솟아나는 샘물)에 놓임.
- 두 절의 마주봄만 보존, 관계는 보류.

Q3. 여인은 왜 지난 일이 드러난 직후 예배 장소를 묻는가?

- 19-20절에서 화제가 "이 산"(그리심산)으로 옮겨감.
- 피함인지 물음인지는 답하지 않고 보존.

Q4. "영과 진리로"(23-24절)의 영과 진리는 어떻게 함께인가?

- pneuma·aletheia·proskyneo가 한 자리에 묶임.
- 둘의 관계는 보류, 어휘 위치만 보존.

Q5. 34절 "내 양식"은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어떻게 다른가?

- 33절 제자들은 음식으로 들음, 34절은 "그의 일(ergon)을 이루는 것".
- 두 결의 어긋남만 보존.

Q6. 두 표적의 "제육시/제칠시" 시간 일치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 6절 제육시(우물)와 52절 제칠시(아들 나음)가 마주 놓임. 54절 "두 번째 표적".
- 인과·셈법은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 5장

JHN-005 · 복음서 · 헬라어

38년이 한 걸음으로 일어난 안식일. 한 사람의 회복이 곧 권한의 다툼으로 옮겨 간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예루살렘 양문 곁 못 베데스다(행각 다섯, 2절) → 성전(14절) → 장소 표시 없는 담화 공간으로 옮겨간다.
- 시간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1절)과 "그 날이 안식일"(9절). 안식일이 사건의 뇌관으로 깔린다.
- 소품은 "자리"(침상). 8·9·10·11·12절에 반복되며 안식일 논쟁의 물증이 된다.
- 병력이 숫자로 명시됨 — "서른여덟 해 된 병자"(5절).
- 못 이름(베데스다/베자타)과 "물이 동함" 설명(3하-4절)은 사본 간 차이가 있어 다수 번역이 각주로 둔다. 배경 정보로만 기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조용한 못가에서 시작해 안식일 논쟁으로 공기가 팽팽해진다. 6인 중 다수가 전반(사건)과 후반(변론)의 결 변화를 공유함.
- 17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가 분위기의 전환점으로 지목됨.
- 후반의 짧은 명령(일어나라·걸어가라)과 긴 담화의 길이 대비가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 조용한 이동.
- 47절: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 믿음을 두고 던지는 물음·책임.
- 사건으로 열려 변론으로 닫히며, 시작은 좁고(한 도시로의 발걸음) 끝은 넓다(모세까지 끌어온 증언의 사슬).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38년 된 병자 / "유대인들" / 후반 담화의 흐릿한 청중.
- 병자의 앓이 늦다 — 처음엔 고친 이를 모르고(13절), 성전 재회 뒤에야 예수임을 알림(15절).
- 병자의 답이 물음과 어긋남 — "낫고자 하느냐"(6절)에 "넣어 줄 사람이 없다"(7절)로 응함.
- 후반 사상은 "아들의 권한" — 보고 행함(19절), 살림(21절), 심판 위임(22·27절), 듣는 자의 영생(24절).
-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19·30절)와 "원하는 자를 살린다"(21절)가 함께 놓임.
- 안식일(sabbaton, 9절)과 일하심(ergazomai, 17절)의 충돌이 18절 반발 고조의 분기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9a): 못가, 38년 된 병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 곧 나옴.
- 컷 2 (9b-13): "그 날이 안식일", 자리 든 것 문제 삼음, 병자는 고친 이를 모름.
- 컷 3 (14-18): 성전 재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병자가 알림 → 박해, 17절 "나도 일한다", 18절 반발 고조.
- 컷 4 (19-30): 아들의 권한 담화 — 보고 행함, 살림과 심판, 듣는 자의 생명.
- 컷 5 (31-47): 증언들 — 요한·일하심·아버지·성경·모세,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hygies(ὑγιής) — 건강한·나은. 6·9·11·14·15절 반복. "고침받았다"를 묶는 단어.
- sabbaton(σάββατον) — 안식일. 9·10·16·18절.
- ergazomai(ἐργάζομαι) — 일하다. 17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 krisis(κρίσις) — 심판·판단. 22·24·27·29·30절.
- martyria / martyreo(μαρτυρία) — 증언·증언하다. 31-39절 다섯 증인 단락에 집중.
- zoe(ζωή) — 생명. 24·26·29·40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24절).
- doxa(δόξα) — 영광. 41·44절.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 "진실로 진실로(아멘 아멘) 내가 이르노니" — 19·24·25절 세 번.

6 — (2) 문학 구조

- 전반(1-18, 사건)과 후반(19-47, 담화)의 두 묶음 구조. 17절이 경첩.
- 후반 담화가 둘로 — 권한(19-30, krisis 중심)과 증언(31-47, martyria 중심).
- 다섯 증인의 나열: 세례 요한(33-35) → 행하시는 일(36) → 아버지(37-38) → 성경(39) → 모세(45-47).
- "스스로 할 수 없다"의 수미(19·30절)가 권한 담화를 감싼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안식일에 "짐을 지는 것" 금지하는 예레미야 17:21-22 등과 당시 관행의 결. 자리(침상)를 든 것이 10절의 문제 제기와 연결됨. 배경으로만 기록.
- 못 이름·"물 동함" 본문(3하-4절)의 사본 차이는 본문비평 사안. 관찰에서는 "사본에 따라 다름"까지만.
-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18절)은 본문이 유대인들의 반응으로 보고하는 부분 — 인물의 해석으로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 5 ↔ 요 9 (병과 죄의 관계가 다른 결로 — 9:3)
- 요 5 ↔ 요 4 (예수께서 먼저 다가가 물으심)
- 요 5:24 ↔ 요 11:25-26 (생명·사망에서 생명으로)
- 요 5:39 ↔ 눅 24:27,44 (성경이 그를 증언함)
- 요 5:45-47 ↔ 신 18:15-18 (모세가 일러둔 선지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분이 양문 걸 못가에 이른다. 다섯 행각의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낮고자 하느냐" 물으신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낫는다. 그러나 그 날이 안식일이라, 자리를 든 것이 문제가 된다. 성전에서 다시 만나 말을 거시고, 병자가 그를 알린 뒤 박해가 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자 반발이 커지고, 거기서 긴 변론이 흐른다 — 아들은 보고 행하며, 살리고 심판하고, 듣고 믿는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끝으로 요한·일하심·아버지·성경·모세의 다섯 증언이 줄지어 나오며,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일어나 걸어가라 — 안식일의 일하심"
- 초벌 부제: "한 걸음에서 일하심으로, 일하심에서 증언으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안식일 관행·사본 차이·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4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가 병·죄 인과로 굳지 않도록 → 요 9:3과 나란히만 두고 보류.
- 18절 "동등" 진술은 본문이 보고하는 유대인 반응으로 기록, 신학 진술로 확정하지 않음.
- "스스로 할 수 없다 / 원하는 자를 살린다"의 병치는 어휘 분포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5장은 한 사람의 회복이 곧 일하심을 둘러싼 변론으로 옮겨 가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38년 된 자리에서 한 걸음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 걸음이 안식일에 놓이는 순간, 사건은 권한의 다툼이 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17절)가 경첩이 되어, 못가의 짧은 명령에서 아들의 권한과 다섯 증언의 긴 변론으로 흐른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못 베데스다(행각 다섯, 2절) → 성전(14절) → 담화 공간. 시간 = 명절·안식일. 소품 = "자리"(침상)와 "38년"의 숫자.
2 첫 느낌·분위기	조용한 못가에서 안식일 논쟁으로 팽팽해짐. 17절이 전환점. 짧은 명령과 긴 담화의 대비.
3 시작과 끝	시작 —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1절). 끝 —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47절). 사건으로 열려 변론으로 닫힘.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38년 병자 / 유대인들. 병자의 앓이 늦게 따라옴. 후반 사상 = 아들의 권한(보고 행함·살림·심판·영생).
5 장면 컷	컷 1 치유(1-9a). 컷 2 안식일 시비(9b-13). 컷 3 성전 재회·박해·17절(14-18). 컷 4 권한 담화(19-30). 컷 5 증언들(31-47).
6 의문·발견·정보	"38년"의 까닭. 병·죄 관계(요 9:3과 대비). "스스로 못함"과 "살림"의 병치. doxa(41-44)와 믿음. 아멘 아멘 3회(19·24·25).
7 동영상	못가 한 걸음 → 안식일 시비 → 성전 재회 → "나도 일한다" → 권한·증언의 변론으로 흐르는 한 동영상.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일어나 걸어가라 — 안식일의 일하심". 부제 — "한 걸음에서 일하심으로, 일하심에서 증언으로".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못가와 성전을 걸으며 "낮고자 하느냐"의 물음 앞에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회복이 다툼이 되는 자리:** 한 사람의 38년이 한 걸음으로 풀리는데, 같은 걸음이 안식일에 놓이며 다툼이 된다. 사건과 논쟁이 같은 자리에 겹친다.
- 결 2 — 17절의 경첩:**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가 사건을 변론으로 돌려세운다. 가장 짧은 한 문장이 가장 긴 담화를 연다.
- 결 3 — 다섯 증언:** 요한·일하심·아버지·성경·모세가 줄지어 놓인다. 본문은 "믿음"을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증언의 사슬 위에 둔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요 4** (먼저 다가가 물으심), **요 9** (병과 죄의 다른 결, 9:3), **요 11:25-26** (생명·사망에서 생명으로).

- 다른 권 — 눅 24:27,44 (성경이 그를 증언함), 신 18:15-18 (모세가 일러둔 선지자).
- 정경 흐름 — 5:24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요한복음의 생명 주제(요 1:4, 20:31)와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못가의 38년 된 자리 앞에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낫고자 하느냐"는 물음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회복이 안식일 시비가 되는 지점에서 멈춘다.
- 멈춤 3: "나도 일한다"가 변론을 여는 순간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회복과 증언이 한 자리에 있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오래된 자리 앞에서 먼저 물으시는 분*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못가의 38년 된 자리에서 한 걸음이 일어난다
- [x] 그 걸음이 안식일에 놓여 다툼이 된다
- [x] 17절이 사건을 변론으로 돌려세운다
- [x] 후반은 권한(19-30)과 증언(31-47)으로 갈린다
- [x] 다섯 증인이 줄지어 놓인다
- [x] 5:24가 생명·사망의 결을 박는다
- [x] 끝은 믿음을 두고 던지는 물음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복음서 4중주에서 요한은 '최종·우주적 완성'(친밀함·아버지)의 좌표로, 태초의 로고스가 성육신을 거쳐 완성으로 가는 호를 비춘다(book-telos.json). 5장은 그 호에서 **아들이 아버지와의 친밀함(동일한 일하심·동일한 권한)**을 처음 길게 변론하는 국면이다. 우물가의 생수(4장)를 지나, 이제 운동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17절)는 아버지-아들 관계의 한복판으로 들어간다. 안식일 치유는 단지 한 기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심판하는 권한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주어졌음을 드러내는 자리다(21-27절). 이는 요한복음 전체가 향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여는 첫 긴 담화이며, 모세·성경이 그 아들을 증언한다(39·46절)는 선언으로 구약 전체를 그리스도께 모은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38년 멈춘 병상→"일어나 걸어가라"의 일어섬 / 한 치유→아버지와 아들의 동일한 일하심·살리는 권한.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멈춘 자리에서 일하심으로 미는 운동이다. 베데스다 못가의 절망 → "낫고자 하느냐" → 일어나 자리를 뚫 → 안식일 시비 →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 살리고 심판하는 권한 → 모세·성경의 증언. 정지된 한 기적이 아니라, 한 병상의 일어섬이 통치의 권한을 드러내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38년 된 병자의 치유와 안식일 논쟁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죽은 것 같던 자리에 생명을 주시는 아들의 통치 권한**이다(빙산의 아래). 38년이라는 굳은 절망,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갈 자가 없던 무력함 — 그 멈춘 자리에 "일어나라"가 임한다. 표면의 안식일 시비는 규례 다툼 같지

만, 아래에서는 "아버지가 일하시니"라는 통치의 동일성, 곧 "죽은 자를 살리는"(21절) 권한이 드러난다. 명의 눈으로는 한 치유 사건이지만, 신의 눈으로는 생명과 심판의 권한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흐르는, 통치의 근원이 드러나는 자리다 — 본문이 미는 데까지만 본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낮고자 하느냐" — 오래 굳어 핑계마저 익숙해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느냐는 물음이 내 안에서도 울리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38년 누운 자리의 "낮고자 하느냐" 결과 "일어나 걸어가라"의 그 음성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일어서는 그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일하심.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살리는 권한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이번엔 빈 들의 오병이여로 — "나는 생명의 떡"(ego eimi)이라는 자기 계시가 많은 제자를 떠나가게 하고 참 따름을 가르친다.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5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38년"인가?

- 본문은 병력의 햇수만 명시하고 까닭은 말하지 않음.
- 숫자가 주는 무게만 관찰로 남기고, 의미 추정은 묵상으로 이월.

Q2. "낮고자 하느냐"는 왜 묻는가?

- 예수께서 먼저 다가가 물으심(6절). 병자는 물음에 어긋난 답(7절).
- 물음의 까닭과 병자의 답의 어긋남은 답하지 않고 보존.

Q3. 14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와 병의 관계는?

- 병-죄 인과로 들릴 수 있으나, 요 9:3은 다른 결.
- 두 본문을 나란히만 두고 해석은 뒤로.

Q4.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와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어떻게 함께인가?

- 19:30절의 못함과 21절의 하심이 한 담화 안에 있음.
- 관찰로는 위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5. 다섯 증인의 순서는 의도된 것인가?

- 요한 → 일 → 아버지 → 성경 → 모세.
- 나열 순서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분포만 보존.

Q6. 44절의 "서로의 영광"과 믿지 못함의 연결은?

- "서로 영광은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 영광의 출처와 믿음의 관계는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 6장

JHN-006 · 복음서 · 헬라어

배부른 무리가 떠나가는 떡. 표적을 먹은 자리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가 갈림길이 된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갈릴리(디베라) 바다 건너편 산·들(1:3절) → 바다 위(16-21절) → 가버나움 회당(24:59절)으로 옮겨간다.
- 시간 배경 = "유월절이 가까운지라"(4절). 만나·유월절의 결이 깔린다.
- 소품 = 보리떡 다섯·물고기 둘(9절),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13절). 보리떡은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양식(배경).
- "앉은 자의 수가 오천 명쯤"(10절).
- artos(떡)가 거듭 나오며 "하늘에서 내려온 떡"(31:33·41:50-51절)으로 의미층이 옮겨간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은 풍성(떡이 넘침)하고 뒤는 줄어듦(많은 제자가 떠남). 시작 큰 무리 → 끝 열둘.
- 표적(떡·물 위 걸음)이 앞에 몰리고 긴 강론이 뒤에 이어짐 — 사건→말씀→갈라짐.
- 무리의 질문이 표면에 머물러 답하심과 어긋남(26·34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 큰 무리로 열림.
- 71절: "열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 배신할 한 사람으로 닫힘.
- 군중에서 한 사람으로, 풍성에서 갈라짐으로 좁혀진다. 67-69절(베드로 고백)과 71절(유다)이 밝음·어둠으로 끝에 함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큰 무리 / 빌립(5·7) / 안드레(8) / 떡 가진 아이(9) / 제자들 / 유대인들(41·52) / 베드로(68) / 유다(71).
- 본문이 의도를 직접 밝힘 —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6절).
- 후반 사상 = "생명의 떡"(35·48·51절). ego eimi가 "생명의 떡"(35·48·51)과 바다 위 "내니"(20절)로 놓임.
-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53-58)에서 동사가 trogo(씹어 먹다)로 바뀐(54·56·57·58절).
-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가 4회 반복(39·40·44·54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5): 떡 다섯·물고기 둘, 오천 명, 열두 바구니, 왕 삼으려 함 → 홀로 산으로.
- 컷 2 (16-21): 저문 바다, 바람, 물 위로 오심, "내니 두려워 말라".
- 컷 3 (22-29): 가버나움에서 찾아옴, "씩을 양식 말라",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
- 컷 4 (30-40): 만나 인용, "내가 곧 생명의 떡", "오는 자를 내쫓지 않으리라".
- 컷 5 (41-59): 유대인 수군거림, "살아 있는 떡",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회당).
- 컷 6 (60-71): 많은 제자 떠남,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 고백, 유다 예고.

6 — (1) 원어 카드

- artos(ἄρτος) — 떡. 본장 거듭,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옮겨감.
- ego eimi(ἐγώ εἰμι) — "내가 ~이다 / 내니". 35·48·51절(생명의 떡), 20절(바다 위).
- zoe(ζωή) — 생명. "생명의 떡", "영생"(27·40·47·54절).
- trogo(τρώγω) — 씹어 먹다. 54·56·57·58절 (보통의 '먹다'에서 변화).
- helkyo(ἐλκύνω) — 이끌다. 44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 pneuma(πνεῦμα) / sarx(σάρξ) — 영 / 육·살.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
- eucharisteo(εὐχαριστέω) — 감사하다. 11·23절 ("축사").

6 — (2) 문학 구조

- 표적(1-21) → 강론(22-59) → 갈라짐(60-71)의 세 묶음.
-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후렴 4회(39·40·44·54).
- "내가 곧 생명의 떡" 변주 — 35절(오는 자 주리지 않음) / 48절(짧은 반복) / 51절(살아 있는 떡 → 내 살).
- 본문이 인과를 직접 밝히는 두 대목 — 6절(시험), 15절(왕 삼으려 함 → 산으로).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31절은 만나 전승("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출 16:시 78:24)을 무리가 인용. 유월절(4절)과 함께 출애굽 결이 배경에 깔림.
- "보리떡"(9절)은 당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양식 — 배경으로만.
-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의 강한 표현은 듣는 이들의 거부(60·66절)를 부른 것으로 본문이 보고함 — 인물 반응으로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 6 ↔ 출 16 / 시 78:24 (만나 전승, 31절 인용)
- 요 6:35 ↔ 요 4:14 (목마르지 않는 물 / 주리지 않는 떡)
- 요 6:20 "내니" ↔ 요 8:58 / 출 3:14 (ego eimi의 결)
- 요 6:68-69 ↔ 마 16:16 (베드로의 고백)
- 요 6:39-40 ↔ 요 11:24-25 (마지막 날·부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큰 무리가 바다 건너편까지 따른다. 산에 앉으신 분이 빌립을 시험하고, 안드레가 보리떡 다섯과 물고기 둘 가진 아이를 데려온다. 감사하신 뒤 나눠 주시니 모두 배부르고,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가 거둬진다. 무리가 왕 삼으려 하자 홀로 산으로 떠나신다. 저문 바다, 바람 부는 가운데 물 위로 오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다. 이튿날 무리가 가버나움으로 찾아오자, "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시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신다. 만나를 들어 다투던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말씀이 이어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에 이르고, 많은 제자가 떠난다. "너희도 가려느냐"는 물음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고백하고, 끝으로 열둘 중 하나가 팔 자라는 한 줄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 떠나가는 무리, 남은 고백"
- 초벌 부제: "배부른 떡에서 떠나가는 떡으로, 그리고 남은 고백"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만나 전승·유월절·보리떡·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53-58)가 성례 신학으로 굳지 않도록 → trogo/sarx 어휘 위치만 기록.
- 63절 "육은 무익"과 "살을 먹으라"의 긴장은 같은 sarx의 두 결로만 보존, 관계는 보류.
- 37·44절의 "주심·이끄심"과 "옴"의 병치는 어휘 분포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6장은 떡으로 배부른 무리가 떡을 둘러싼 말씀 앞에서 갈라지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떡 다섯 개로 들을 채우고, 물 위의 걸음으로 바다를 가른다. 그러나 무리가 구한 것은 배부른 떡이었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가 선포되는 순간, 풍성한 무리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끝에는 열둘만 남고,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어둠으로 갈린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산·들(1·3) → 바다 위(16-21) → 가버나움 회당(59). 시간 = 유월절(4). 소품 = 보리떡 다섯·물고기 둘·열두 바구니. artos가 의미층을 옮김.
2 첫 느낌·분위기	앞은 풍성, 뒤는 줄어들. 표적→강론→갈라짐. 무리의 어긋난 질문.
3 시작과 끝	시작 — 큰 무리(1절). 끝 — 팔 자 한 사람(71절). 군중에서 한 사람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무리 / 빌립·안드레·아이 / 유대인 / 베드로·유다. 본문이 의도 직접 밝힘(6·15). 사상 = 생명의 떡, ego eimi.
5 장면 컷	컷 1 오천 명(1-15). 컷 2 물 위 걸음(16-21). 컷 3 찾아옴·양식(22-29). 컷 4 생명의 떡(30-40). 컷 5 살·파·회당(41-59). 컷 6 떠남·고백·유다(60-71).
6 의문·발견·정보	"버리지 말라"(12)의 거둠. trogo의 강한 동사. 63절 영·육. "이끄심"(44)과 "옴"(37). "마지막 날" 후렴 4회.
7 동영상	채워진 들 → 물 위 걸음 → 떡 강론 → 갈라짐 → 베드로 고백 → 유다 한 줄로 흐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 떠나가는 무리, 남은 고백". 부제 — "배부른 떡에서 떠나가는 떡으로, 그리고 남은 고백".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들과 바다와 회당을 걸으며 배부른 떡을 구하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풍성 속의 거둠:** 떡이 넘치는데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12절)며 열두 바구니를 거둔다. 채움과 거둠이 한 자리에 있다.
- 결 2 — 두 결의 ego eimi:** 바다 위 "내니"(20절)와 "내가 곧 생명의 떡"(35·48·51절)이 같은 표현으로 놓인다. 두려움을 가르는 말과 갈라짐을 부르는 말이 한 단어다.
- 결 3 — 줄어듦의 끝:** 큰 무리가 열둘이 되고, 그 안에서도 한 사람이 갈린다. 본문은 풍성에서 갈라짐으로 좁아진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요 4:14** (목마르지 않는 물 / 주리지 않는 떡), **요 8:58** (ego eimi의 결), **요 11:24-25** (마지막 날·부활).
- 다른 권 — **출 16 / 시 78:24** (만나 전승, 31절 인용), **마 16:16** (베드로의 고백).

- 정경 흐름 — 6:35의 "생명의 떡"은 요한복음의 "내가 ~이다" 선언들(8·10·11·15장)의 첫 자리로, 책 전체의 결을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떡으로 배부른 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남은 조각을 거두라 하시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내가 곧 생명의 떡"이 선포되는 순간 멈춘다.
- 멈춤 3: 많은 제자가 물러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배부른 떡과 생명의 떡은 다른 떡이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너희도 가려느냐"는 물음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떡 다섯 개로 들이 채워진다
- [x] 물 위의 걸음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가 나온다
- [x] 무리는 배부른 떡을 구한다
- [x] "내가 곧 생명의 떡"이 갈림길이 된다
- [x] 많은 제자가 떠난다
- [x]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을 고백한다
- [x] 끝은 한 사람의 어두운 한 줄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복음서 4중주에서 요한은 '최종·우주적 완성'(친밀함·온 세상)의 좌표로, 태초의 로고스가 성육신을 거쳐 완성으로 가는 호를 비춘다(book-telos.json). 6장은 그 호에서 성육신한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자기를 계시하며 참 따름과 거짓 따름을 가르치는 국면이다. 오병이어는 출애굽의 만나(31절)를 잇고 뛰어넘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51절)을 가리킨다 — 광야의 만나가 잠시 배를 채웠다면, 이 떡은 영생을 준다. "나는 생명의 떡"(35절)은 요한복음 7대 ego eimi 선언의 핵심 마디로, 출애굽기 3:14의 자기 계시를 떡과 풍랑 위(20절)에 겹쳐 올린다. 큰 무리가 떠나고 열둘이 남는 자리는, 표적을 넘어 그분 자신을 먹는("내 살·내 피") 친밀한 연합으로 책 전체 운동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떡을 양식(배부른 떡)→영생하는 양식(생명의 떡·ego eimi) / 큰 무리의 환호→떠남과 남은 열둘의 고백.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배부름에서 생명으로, 군중에서 남음으로 미는 운동이다. 빈 들의 오병이어 → 왕 삼으려는 무리 → 밤 풍랑 위의 "내니" →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 "나는 생명의 떡" → "내 살을 먹으라" → 많은 제자의 떠남 → "주여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정지된 한 기적이 아니라, 떡이 떡 되신 분으로 좁혀지며 사람을 가르치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오천 명을 먹인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심, 그리고 생명의 떡 강론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곧 영생의 양식이 한 인격이심이다(빙산의 아래). 무리는 배부

른 떡을 또 구해 따라오지만(26절), 본문은 그 갈증의 정체를 드러낸다 — 채워도 다시 주리는 양식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먹는("내 살·내 피", 53절) 연합이다. 표면의 떠남은 한 무리의 이탈 같지만, 아래에서는 표적을 따르던 따름과 그분 자신을 택하는 따름이 갈린다. 명의의 눈으로는 기적과 강론 사건이지만, 신의 눈으로는 사람의 욕망과 체질의 굶주림이 한 인격으로만 채워지는, 생명의 근원이 드러나는 자리다 — 본문이 미는 데까지만 본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 떠나는 발걸음 한가운데서, 떡이 아니라 떡 되신 분께 머무는 일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배부름을 구하던 무리 결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머문 열둘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남음과 떠남이 갈리는 그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생명의 떡.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떡을 두고 갈린 무리가, 이제 초막절의 예루살렘에서 —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생수의 강 선언 앞에서 다시 갈라진다.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6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 Q1. 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12절)인가?**
 - 풍성하게 채워졌는데도 남은 조각을 거두라 하심.
 - 풍성과 거둠의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 Q2. 무리의 질문은 왜 계속 어긋나는가?**
 - "이 떡을 항상 주소서"(34절)처럼 표면에 머무름.
 - 묻는 결과 답하시는 결의 어긋남만 기록.
- Q3.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의 trogo는 왜 강한 동사인가?**
 - 54-58절에서 '씹어 먹다'로 바뀜.
 - 어휘 선택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위치만 보존.
- Q4. 63절 "육은 무익"과 "살을 먹으라"는 어떻게 함께인가?**
 - 같은 sarx가 다른 결로 쓰임.
 - 관찰로는 두 결의 병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 Q5. "이끄심"(44절)과 "옴"(37절)은 어떻게 함께인가?**
 - 아버지의 이끄심·주심과 사람의 옴이 나란히 놓임.
 - 관계는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Q6. 끝의 베드로 고백과 유다 예고가 함께 놓인 까닭은?

- 밝은 고백(68-69)과 어두운 한 줄(71)이 같은 끝에.
- 나란히 뒀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 7장

JHN-007 · 복음서 · 헬라어

초막절의 물 붓는 절기 한가운데서 목마름을 부르는 음성. 한 사람을 두고 무리가 갈라진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갈릴리(1절) → 예루살렘·성전(14·28절)으로 옮겨간다. 절기 자체가 무대.
- 시간 배경 = 초막절(skenopegia, 2절). 절기 안에서 시간이 계단처럼 — "초막절 가까움"(2) → "명절 중간"(14) → "명절 끝날 큰 날"(37).
- 초막절은 가을 추수·광야 장막 기념 절기. 실로암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의식이 전해짐 — 37절 "목마르거든 마시라"의 배경(배경 자료로만).
- 배경 인물 = 성전 하숙(32·45-46절). 잡으러 갔다 빈손으로 돌아옴.
- "목마르다"(dipsao, 37절) → "생수의 강"."성령"(38-39절)으로 이어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무리가 그를 두고 수군대는 웅성거림. "어떤 이는... 어떤 이는..."의 분열 반복.
- 절기 분위기에 잡으려는 긴장이 깔림. 37-38절에서 한 음성이 웅성거림 위로 솟음.
- 끝은 니고데모의 한마디 뒤 흩어짐(53절).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므로...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니라" — 위협으로 열림.
-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 결론 없는 흩어짐으로 닫힘.
- 잡으려다 못 잡고 흩어지는 결이 처음과 끝에 걸림. (7:53~8:11은 사본 차이 있는 단락 — 배경으로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그 형제들(3-5) / 유대인들 / 무리(ochlos) / 대제사장·바리새인 / 성전 하숙 / 니고데모(50).
- 본문이 직접 보고 — "그 형제들까지도 믿지 아니함"(5절).
- 무리의 분열 반복 — 12절(좋은 사람 / 미혹), 40-43절(선지자 / 그리스도 / 갈릴리 출신 논쟁). 43절 "쟁론" = schisma.
- "때" 진술 반복 — kairos(6·8절), hora(30절). 단어가 다름.
- "내 교훈(didache)은 내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것"(16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9): 갈릴리, 형제들의 권유·불신, "내 때가 아직".
- 컷 2 (10-13): 은밀히 올라감, 수군거림, 두려움.

- 컷 3 (14-24): 성전 가르침, 교훈의 출처, 안식일·할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 컷 4 (25-36): 출신 의문, 잡으려 하나 손 못 댐, "조금 더 있다가 가리라".
- 컷 5 (37-44): 끝날 큰 날, "목마르거든 오라", 생수의 강·성령, 분열.
- 컷 6 (45-53): 빈손 하숙, 바리새인 책망, 니고데모 한마디, 각자 집으로.

6 – (1) 원어 카드

- skenopegia(σκηνοπηγία) – 초막절(장막을 치). 2절.
- kairos(καιρός) – 때·정해진 시점. 6·8절 ("내 때").
- hora(ώρα) – 시·시각. 30절 ("그의 때").
- dipsao(διψάω) – 목마르다. 37절.
- pneuma(πνεῦμα) – 영·성령. 39절 (생수의 강의 풀이).
- schisma(σχίσμα) – 분열·찢어짐. 43절 ("쟁론").
- didache(διδαχή) – 교훈·가르침. 16-17절.

6 – (2) 문학 구조

- 절기 시간 표지가 골격 – 2절·14절·37절의 세 계단.
- "잡으려 하나 손을 대지 못함" 2회(30·44절).
- 무리의 분열 진술 반복(12·40-43절).
- 본문 자기 해설 – 39절(생수의 강 = 성령, 영광 받음과 연결).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초막절의 물 붓는 의식(실로암 물을 제단에) 배경 위에 37절 "목마르거든 마시라"가 놓임 – 배경으로만.
- 27·42절의 그리스도 출신 통념(어디서 오는지 모름 / 베들레헴·다윗의 씨)이 무리 분열의 빌미 – 인물의 통념으로 기록.
- 7:53~8:11은 초기 주요 사본에 없고 위치가 사본마다 다른 본문비평 사안 – "사본 차이가 있다"까지만 절 제해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 7:38-39 ↔ 요 4:14 (생수)
- 요 7:50 ↔ 요 3:1-2 (밤에 온 니고데모)
- 요 7:43 schisma ↔ 요 9:16 / 10:19 (분열 재등장)
- 요 7:42 ↔ 미 5:2 (베들레헴 출신 통념)
- 요 7:37 ↔ 사 55:1 (목마른 자를 부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죽이려는 위협 때문에 유대를 피해 갈릴리에 머무신다.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형제들이 올라가 보이라 권하나, 그들조차 믿지 않는다. "내 때가 아직" 하시고 머무시다, 은밀히 올라가신다. 명절에 무리가 수군대고("좋은 사람 / 미혹"), 두려워 드러내 말하지 못한다. 명절 중간 성전에서 "내 교훈은 보내신 이의 것"이라 가르치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신다. 출신을 두고 의문하며 잡으려 하나 손을 대지 못한다. 끝날 큰 날에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시니, 본문은 이를 성령으로 풀어 준다. 무리가 또 갈라지고, 잡으

러 갔던 하속은 "그같이 말한 사람이 없었다"며 빈손으로 온다. 니고데모가 한마디 하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간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 갈라지는 무리"
- 초벌 부제: "절기의 끝날에 솟은 한 음성과, 그 앞에서 갈라진 무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초막절·물 의식·사본 차이·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7:53~8:11 사본 단락 → "사본 차이 있음"까지만, 본문비평 논쟁으로 확대 금지.
- 37-39절 "생수의 강"은 본문 자기 해설(39절)에 기대되, 성령론 전개로 번지지 않게 — 본문이 푼 데까지만.
- "때"의 두 단어(kairos/hora)는 어휘 분포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7장은 절기 한가운데서 솟은 한 음성을 두고 무리가 갈라지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절기의 시간을 계단처럼 올라간다 — 가까움, 중간, 끝날. 그 끝날 큰 날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한 음성이 웅성거림 위로 솟는다. 그러나 무리는 그 음성 앞에서 하나로 모이지 않고 갈라지고, 잡으려는 손은 닿지 못하며, 결국 각자 집으로 흩어진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갈릴리(1) → 성전(14·28). 절기 = 초막절(skenopegia, 2). 시간 계단 — 가까움(2)·중간(14)·끝날 큰 날(37). 물 붓는 의식이 37절 배경.
2 첫 느낌·분위기	수군대는 웅성거림과 분열. 37-38절에서 한 음성이 솟음. 끝은 흠어짐.
3 시작과 끝	시작 — 죽이려는 위협(1절). 끝 — 각자 집으로(53절). 못 잡고 흠어짐.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형제들(불신) / 무리 / 바리새인·하속 / 니고데모. 사상 = "때"(kairos·hora), 교훈의 출처(16). 분열 = schisma(43).
5 장면 컷	컷 1 갈릴리·형제(1-9). 컷 2 은밀히 올라감(10-13). 컷 3 성전 가르침(14-24). 컷 4 잡으려 함(25-36). 컷 5 큰 날·생수·분열(37-44). 컷 6 하속·니고데모·흠어짐(45-53).
6 의문·발견·정보	"올라가지 않는다"(8)와 "은밀히 올라감"(10). "손 못 댄" 2회(30·44). 본문 자기 해설 39절(생수=성령). 출신 논쟁(27·42).
7 동영상	위협 속 머뭇거림 → 성전 가르침 → 잡으려 함 → 끝날의 부름 → 분열 → 흠어짐.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 갈라지는 무리". 부제 — "절기의 끝날에 솟은 한 음성과, 그 앞에서 갈라진 무리".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절기의 성전 뜰을 걸으며 "목마르거든 오라"는 음성 앞에 선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절기의 세 계단:** "가까움 → 중간 → 끝날 큰 날"의 시간 표지가 장의 골격이다. 한 음성은 하필 끝날 큰 날에 솟는다.
2. **결 2 — 닿지 못하는 손:** 잡으려 하나 두 번 다 손을 대지 못한다(30·44절). 본문은 그 까닭을 "때"로만 묶는다.
3. **결 3 — 갈라짐(schisma):** 한 사람을 두고 무리가 좋은 사람·미혹·선지자·그리스도로 쪼개진다. 본문은 모임이 아니라 갈라짐으로 끝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요 4:14** (생수), **요 3:1-2** (밤에 온 니고데모, 7:50과 연결), **요 9:16 / 10:19** (schisma 재등장).
- 다른 권 — **사 55:1** (목마른 자를 부름), **미 5:2** (베들레헴 출신 통념).
- 정경 흐름 — 7:38-39의 "생수의 강·성령"은 요한복음 후반의 보혜사 약속(14-16장)으로 이어지는 결의 첫 자리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절기로 들끓는 성전 뜰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무리가 한 사람을 두고 갈라지는 웅성거림에서 멈춘다.
- **멈춤 2:** 끝날 큰 날의 "목마르거든 오라"는 음성에서 멈춘다.
- **멈춤 3:** "그같이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하속의 말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같은 음성 앞에서도 무리는 갈라진다*는 걸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목마름을 부르는 음성 앞*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절기의 시간이 세 계단으로 올라간다
- [x] 끝날 큰 날에 "목마르거든 오라"가 솟는다
- [x] 본문이 그것을 성령으로 직접 푼다(39절)
- [x] 잡으려는 손이 두 번 다 닿지 못한다
- [x] 무리가 한 사람을 두고 갈라진다
- [x]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한다
- [x] 끝은 각자 집으로 흩어짐이다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복음서 4중주에서 요한은 '최종·우주적 완성'(친밀함·온 세상)의 좌표로, 태초의 로고스가 성육신을 거쳐 영적·우주적 완성이로 가는 호를 비춘다(book-telos.json). 7장은 그 호에서 "생수의 강"으로 성령의 부어짐을 미리 가리키며, 그 선언이 무리를 갈라놓는 국면이다. 초막절(장막절)은 광야의 물(반석)을 기념하는 명절인데, 그 끝날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37-38절)고 외치심으로, 명절이 가리키던 물의 실체가 자기 자신과 성령임을 드러내신다. 본문은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39절)이라 직접 해설을 달아, 4장 우물가의 한 샘이 이제 "강"으로 커져 책 전체가 향하는 성령 시대를 미리 비춘다. 동시에 무리의 갈라짐은 요한복음의 "심판"(빛 앞의 갈림)이 깊어지는 자리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숨은 듯한 올라감("내 때가 아직")→명절 끝날 외쳐진 생수의 강(성령) / 한 선언→무리의 갈라짐("그리스도다/아니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숨음에서 외침으로, 한 샘에서 강으로 미는 운동이다. 형제들의 불신 → 은밀한 올라감 → 성전의 가르침 → "어디서 왔느냐"의 논쟁 → 명절 끝날의 큰 외침 → 생수의 강 → 쪼개진 무리와 빈손의 관리들. 정지된 한 명절 풍경이 아니라, 감추인 한 분이 외침으로 드러나며 사람을 가르치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초막절의 논쟁과 체포 시도, 그리고 생수의 강 선언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한 사람의 갈증이 그분께로 와서 도리어 강이 되어 흘러나가는 회복이다(빙산의 아래). 무리는 출신("갈릴리에서")과 율법으로 그를 재려 하지만(41-42:52절), 그 모든 따짐 아래에서 본문이 가리키는 것은 명절이 기념하던 광야의 물의 실체 — 성령의 부어짐이다(39절). 표면의 갈라짐은 한 명절의 소란 같지만, 아래에서는 받은 자가 자기 안에 머무는 샘을 넘어 남에게로 흘러가는 강이 된다. 명의를 눈으로는 명절 논쟁 사건이지만, 신의 눈으로는 갈증의 근원이 한 분께로 모이고 다시 강으로 번지는, 성령 시대의 뿌리가 놓이는 자리다 — 본문이 미는 데까지만 본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 출신과 자격을 따지기 전에 갈증을 안고 그분께로 오는 일이 내 안에서
도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그리스도다/아니다"로 갈라진 무리 결과 "이같이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는 관리들의 멍침함 곁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목마름이 강이 되는 그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갈라짐.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생수의 강을 외치심에 갈라진 무리가,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여인과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또 하나의 ego eimi 앞에서 — 빛과 어둠의 갈림이 더 또렷해진다.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7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올라가지 않는다"(8절)와 "은밀히 올라가심"(10절)은 어떻게 함께인가?

- 안 간다 하시고 뒤에 올라가심.
- 두 진술의 곁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왜 "잡으려 했으나 손을 대지 못함"이 두 번인가?

- 30·44절 반복. 본문은 까닭을 "때가 아직"으로만 묶음(30절).
- 반복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Q3. "때"의 두 단어(kairos·hora)는 왜 다른가?

- 6·8절은 kairos, 30절은 hora.
- 어휘 분포만 기록, 차이의 의도는 보류.

Q4. "목마르거든 마시라"는 절기의 어느 자리에 놓였는가?

- "명절 끝날 큰 날"(37절). 물 붓는 의식 배경 위에 놓임.
- 절기 자리와 음성의 관계는 묵상으로 이월.

Q5. 무리는 왜 출신을 두고 갈라지는가?

- 27절(어디서 오는지 모름)과 42절(베들레헴·다윗의 씨)의 통념 충돌.
- 분열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Q6. 니고데모의 한마디는 무엇을 여는가?

- 3장에 밤에 왔던 그가 50-51절에서 다시 등장.
- 재등장의 곁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 8장

JHN-008 · 복음서 · 헬라어

고발이 멈춘 자리에서 시작된 빛의 변론. 진리·자유·아버지를 지나 "내가 있느니라"에 이른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감람산(1절) → 이른 아침 성전(2절), "헌금함 앞"(20절). 앞 장(7장)의 절기 성전에서 이어짐.
- 소품 = "돌"(5:59절, 시작과 끝에 마주 놓임), 땅에 쓰시는 "손가락"(6:8절, 내용은 미기록).
- "빛"(phos, 12절). 초막절 등불 의식 배경과 연결하는 견해가 있으나 본문이 직접 잊지 않음 — 배경으로만.
- 7:53~8:11(여인 단락)은 초기 주요 사본에 없고 위치가 사본마다 다른 본문비평 사안 — "사본 차이 있음"까지만 절제해 기록, 본문 장면은 그대로 관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여인 단락은 조마조마함에서 한순간 조용해짐(돌을 든 손들이 빠져나감).
- 이후는 길고 팽팽한 변론 — "너희가 / 나는"의 부딪침, 두 아버지의 맞부딪침.
- 시작도 돌, 끝(59절)도 돌. 끝이 격해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감람산...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 가르치러 들어가심.
- 59절: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 돌을 피해 나가심.
- 들어감↔나감, 거둔 돌(여인 단락)↔들린 돌(59절)이 마주 놓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서기관·바리새인 / 끌려온 여인(1-11) / 유대인들 /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31절).
- 믿었다던 이들과의 대화가 점차 격해져 끝에 돌을 들(31→59절).
- 두 사상 축 — (1) 빛·진리·자유(12·32·36), (2) 아버지 논쟁(아브라함·하나님·마귀, 33-47).
- "죄(hamartia)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34절)이 자유와 마주 놓임.
- ego eimi 반복(24·28·58절).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 59절 돌을 들.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1): 여인 단락,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사본 차이 있음).
- 컷 2 (12-20): "나는 세상의 빛", 증언 논변, 헌금함 앞, "때가 아직".
- 컷 3 (21-30): "오지 못하리라", 위·아래, "내가 그인 줄", 많은 사람 믿음.
- 컷 4 (31-38): "진리가 자유롭게", "죄의 종", 아브라함 논쟁 시작.

- 컷 5 (39-47): 아버지 논쟁 격화(아브라함·하나님·마귀).
- 컷 6 (48-59): 비방·응수, "사망을 보지 않으리라", "내가 있느니라", 돌을 들 → 나가심.

6 – (1) 원어 카드

- phos(φῶς) – 빛. 12절 "나는 세상의 빛".
- aletheia(ἀλήθεια) – 진리. 32·40·44-46절.
- eleutheroo(ἐλευθερώω) – 자유롭게 하다. 32·36절.
- hamartia(ἁμαρτία) – 죄. 34절 "죄의 중".
- sperma(σπέρμα) – 씨·자손. 33·37절 (아브라함 논쟁).
- meno(μένω) – 거하다. 31절 "내 말에 거하면".
- ego eimi(ἐγώ εἰμι) – "내가 ~이다 / 내가 있느니라". 24·28·58절.
- prin Abraam genesthai(πρὶν Ἀβραὰμ γενέσθαι) – "아브라함이 나기 전". 58절.

6 – (2) 문학 구조

- 여인 단락(사건) + 긴 변론(12-59)의 두 결. 변론이 컷마다 고조됨.
- "돌"의 수미 – 5절(거둠)과 59절(들림).
- ego eimi 3회(24·28·58)가 변론의 마디.
-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함"이 21절과 7:34에 걸쳐 반복.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7:53~8:11은 사본 전승이 다른 단락(초기 주요 사본 부재, 위치 이동). "사본 차이 있음"까지만 절제해 기록.
- 12절 "세상의 빛"을 초막절 등불 의식 배경과 잇는 견해가 있으나 본문이 직접 잇지 않음 – 배경으로만.
- 58절 ego eimi를 출 3:14("스스로 있는 자")와 잇는 이들이 있으나 본문 직접 인용은 없음 – 교차 노드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 8:12 ↔ 요 1:4-9 / 9:5 (빛)
- 요 8:21 ↔ 요 7:34 ("오지 못하리라")
- 요 8:58 ↔ 출 3:14 (스스로 있는 자, 교차 노드로만)
- 요 8:31-32 ↔ 요 15:7 ("거하면")
- 요 8:39 ↔ 창 12 / 롬 4 (아브라함의 자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이른 아침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끌려온 여인을 두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어른부터 하나씩 떠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신다. (사본 차이 있는 단락) 이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증언과 때를 두고 변론하신다.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내가 그인 줄 믿으라" 하시니 많은 사람이 믿는다. 믿은 이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자, 아브라함의 자손을 두고 논쟁이 시작되어 "죄의 중", 그리고 누구의 자녀냐(아브라함·하나님·마귀)로 격해진다. 비방과 응수 끝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고, 예수께서는 숨어 성전에서 나가신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나는 세상의 빛 —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 초벌 부제: "고밭이 멈춘 자리에서 시작한 빛의 변론, 그리고 들린 돌"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사본 차이·빛 의식 배경·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7:53~8:11 → "사본 차이 있음"까지만, 본문비평 논쟁으로 확대 금지. 장면 자체는 본문대로 관찰.
- 58절 ego eimi → 출 3:14 연결은 교차 노트로만, 신학 진술로 확정하지 않음.
- 44절 "마귀에게서 났다"는 본문이 보고하는 변론 발화로 기록, 인물 규정 진술로 굳히지 않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8장은 거둔 돌에서 들린 돌까지, 빛·진리·아버지를 두고 격해지는 변론의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고밭이 멈춘 자리에서 시작한다. 돌을 든 손들이 하나씩 빠져나간 그 성전 뜰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변론이 열린다. 빛에서 진리로, 진리에서 자유로, 자유에서 아버지 논쟁으로 옮겨 가며 대화는 점점 격해지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에 이르자 다시 돌이 들린다. 거둔 돌과 들린 돌이 한 장을 감싼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감람산(1) → 이른 아침 성전(2), 헌금함 앞(20). 소품 = 돌(5·59), 손가락(6·8). 빛(phos, 12). 여인 단락은 사본 차이 있음.
2 첫 느낌·분위기	여인 단락의 조용해짐 → 길고 팽팽한 변론. 두 아버지의 부딪침. 시작도 끝도 돌.
3 시작과 끝	시작 — 가르치러 들어가심(1-2). 끝 — 돌을 피해 나가심(59). 거둔 돌 ↔ 들린 돌.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서기관·바리새인 / 여인 / "믿은 유대인들"(31). 사상 = 빛·진리·자유(12·32·36)와 아버지 논쟁(33-47). ego eimi(24·28·58).
5 장면 컷	컷 1 여인(1-11). 컷 2 세상의 빛(12-20). 컷 3 위·아래·믿음(21-30). 컷 4 진리·자유(31-38). 컷 5 아버지 논쟁(39-47). 컷 6 "내가 있느니라"·돌(48-59).
6 의문·발견·정보	땅에 쓰신 것(6·8, 미기록). 떠나는 순서(9). "거함"(meno, 31)의 조건. 58절 시제 어긋남. 21절 ↔ 7:34.
7 동영상	거둔 돌 → 세상의 빛 → 진리·자유 → 아버지 논쟁 → "내가 있느니라" → 들린 돌·나가심.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나는 세상의 빛 —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부제 — "고발이 멈춘 자리에서 시작한 빛의 변론, 그리고 들린 돌".
9 동영상 안건·기도	이른 아침 성전 뜰을 걸으며 고발이 멈춘 자리를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거둔 돌과 들린 돌:** 5절에서 돌은 거두어지고, 59절에서 돌은 그분께 향한다. 같은 소품이 반대 방향으로 장을 감싼다.
2. **결 2 — 자유가 지나는 "거함":** 자유는 곧장 오지 않고 "내 말에 거하면"(31절)이라는 자리를 지난다. 본문은 자유를 조건의 결로 둔다.
3. **결 3 — ego eimi의 고조:** "내가 그인 줄"(24·28)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58)로 올라가고, 곧 돌이 들린다. 표현의 고조가 반응의 격함을 부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요 1:4-9 / 9:5** (빛), **요 7:34** (오지 못하리라, 8:21과 연결), **요 15:7** ("거하면").
- 다른 권 — **출 3:14** (스스로 있는 자, 교차 노드로만), **창 12 / 롬 4** (아브라함의 자손).
- 정경 흐름 — 8:12 "세상의 빛"은 바로 다음 장(9장) 맹인의 눈 뜸과 "내가 세상의 빛"(9:5)으로 이어지는 결의 앞자리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돌을 쥐 손들과 끌려온 자리 사이, 멈추신 자리 앞에 한 사람이 선다.
- **멈춤 1:**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에 손들이 빠져나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의 "거함"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의 한마디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같은 돌이 거두어지기도, 들리기도 한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고발이 멈춘 자리* 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고발이 멈춘 자리에서 변론이 열린다
- [x] "나는 세상의 빛"이 선포된다
- [x] 진리·자유가 "거함"을 지난다
- [x] 아버지 논쟁이 격해진다
- [x] "내가 있느니라"가 마디마다 올라간다
- [x] 58절 뒤에 돌이 들린다
- [x] 거둔 돌과 들린 돌이 장을 감싼다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복음의 운동은 "태초(로고스)에서 성육신을 지나 영적·우주적 완성으로" 흐른다. 마가가 권능의 메시아를, 마태가 천국의 왕을, 누가가 내면에 임하는 인격적 통치를 비춘다면, 요한은 온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과 최종 복음을 비춘다. 8장은 이 호(arc)에서 성육신하신 로고스가 "내가 있느니라"(에고 에이미)로 자신의 태초 됨을 처음으로 못 박는 자리다. "나는 세상의 빛"(12절)은 서두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1:5)를 다시 올리고, 마지막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58절, egō eimi)는 출애굽기 3:14 "스스로 있는 자"의 70인역(LXX) 표현과 같은 결로, 시간 안에 선 한 분이 시간 이전의 존재이심을 가리킨다. 족장의 약속(아브라함)을 받치는 분이 그 약속의 한복판에 서 계신 — 구속사의 긴 시간선이 한 점으로 접히는 그 좌표에 8장이 선다. (서두 7:53-8:11 간음한 여인 단락은 사본 전승에서 위치·포함이 갈리는 사정이 있어 본문 정황으로만 둔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발의 어둠→자유케 하는 빛 / 종→자유(진리, 32절) / 시간 안에서→태초의 "내가 있느니라"(58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고발에서 빛으로, 시간에서 영원으로 미는 운동이다. 거둔 돌(고발의 멈춤) → "나는 세상의 빛"(12절) →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32절) → 아버지를 둔 변론 →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58절) → 들린 돌. 정지된 한 변론의 사진이 아니라, 어둠이 빛을 향해, 시간이 태초를 향해 거슬러 오르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돌을 든 손과 오가는 변론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누구의 자녀인가'가 혈통이 아니라 음성을 듣는가로 갈리는 일이다. 상대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39절),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곧 하나님"(41절)이라 혈통을 내세우지만, 본문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가로 그 주장을 갈라낸다. 동시에 "종"과 "자유"의 대비(33-36절)는 외적 신분이 아니라 죄에 매인 내면의 통치권을 가리킨다. 빙산의 수면 위는 성전 뜰의 돌과 논쟁이지만, 아래는 누가 빛 앞에서 진짜 자유로운가 — 혈통 아닌 음성으로 자녀됨이 갈리는 통치의 뿌리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고발이 거둬진 자리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11절)는 새 걸음이 시작되듯, 정죄가 멈춘 그 빈자리가 내 안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자리인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돌이 떨어진 마당과 "내가 있느니라"가 울리는 태초 사이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빛의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빛.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선언된 빛이 한 사람의 눈으로 — 말로 못 박은 "세상의 빛"(8:12)이 9장에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의 떠진 눈으로 증명되는 자리로 카메라가 옮겨간다.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8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땅에 무엇을 쓰셨는가?(6·8절)

- 두 번 다 본문이 내용을 말하지 않음.
- 쓰신 내용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믿은 유대인들"(31절)과 끝의 격해짐(59절)은 어떻게 함께인가?

- 믿었다던 이들과의 대화가 돌을 드는 데까지 이룸.
- 믿음과 격함의 결은 묵상에서 다시.

Q3. 자유는 왜 "거함"(31절)을 지나는가?

-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하리라."
- meno가 조건처럼 놓인 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Q4. 58절의 시제 어긋남은?

- "아브라함이 나기 전(과거) ... 내가 있느니라(현재)."
- ego eimi와 시제의 어긋남, 그리고 59절 반응의 순서만 기록. 의미는 보류.

Q5. 시작과 끝의 "돌"은 어떻게 마주 보는가?

- 5절(거둔 돌)과 59절(들린 돌)의 방향이 반대.
- 두 돌의 마주봄은 묵상으로 이월.

Q6.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21절)는 7:34와 어떻게 이어지는가?

- 두 장에 걸친 같은 결.
- 반복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분포만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 9장

JHN-009 · 복음서 · 헬라어

날 때부터 보지 못한 한 사람이 보게 된다. 그러나 점점 또렷해지는 그의 말 곁에서, 보던 이들의 눈은 점점 어두워진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길(1절) → 실로암 못(7절) → 바리새인 심문장(13절) → 쫓겨난 밖(34절) → 예수와의 재회(35절)로 옮겨간다.
- 시간 배경은 "안식일"(14절). 5장처럼 안식일이 시비의 뇌관으로 깔린다.
- 소품은 침·진흙·실로암의 물(6-7절). 치유의 절차가 물질로 표시된다.
- 본문이 "실로암 =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스스로 풀어 둔다(7절).
- "출교 결의"(22절)가 배경 제도로 깔려 부모의 침묵을 설명한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짧은 치유(1-7) 뒤에 길고 끈질긴 심문(8-41)이 이어진다. 6인 중 다수가 사건보다 심문의 길이를 공유함.
- "보다/못 보다"가 계속 오가며 본 자와 못 본 자가 자리를 바꾸는 어지러움.
- 한 사람의 말이 점점 또렷해짐("그 사람"→"선지자"→"주여 믿나이다")이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2절: "누가 죄를 지었기에 맹인으로 났나이까" — 못 봄의 죄를 묻는 물음으로 열림.
- 41절: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제 있느니라" — 본다는 자의 죄로 닫힘.
- 죄와 봄이 처음과 끝에서 자리를 바꾼다. 수미가 거울처럼 마주 본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제자들 / 날 때부터 맹인이던 사람 / 이웃들 / 바리새인들 / 부모.
- 치유받은 자의 고백이 계단처럼 자란다 — "예수라 하는 그 사람"(11) → "선지자"(17) → "하나님께로부터"(33) → "주여 믿나이다"(38).
- 바리새인의 결은 점점 좁아진다 — 분쟁(16) → "죄인이다"(24) → "모세의 제자"(28) → 쫓아냄(34).
- 부모는 출교가 두려워 발을 뺀다(21-22). 본문이 까닭을 밝힌다.
- 사상 축: "죄"(hamartia)와 "일"(erga, 3-4절), "빛"(phos, 5절), "심판"(krima, 39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 길의 맹인, "누구의 죄?"→"하나님의 일", 진흙·실로암, 보게 됨.
- 컷 2 (8-12): 이웃의 논쟁, "내가 그라", 진술.

- 컷 3 (13-17): 1차 심문, 안식일, 분쟁, "선지자나이다".
- 컷 4 (18-23): 부모 소환, 출교 두려움, "물어 보라".
- 컷 5 (24-34): 2차 심문, "한 가지 아는 것", "너희도 제자가?", 쫓아냄.
- 컷 6 (35-41): 재회, "주여 믿나이다", 경배, "심판하러 왔다", 본다는 자의 죄.
- 컷 1·6에만 예수 등장, 컷 2·5엔 예수 부재 — 한 사람이 홀로 심문을 받음.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typhlos(τυφλός) — 맹인. 장 전체에 반복, 39·40·41절에 집중.
- anablepo(ἀναβλέπω) — 다시 보다·위를 보다. 11·15·18절. 날 때부터 못 보던 자에게도 같은 단어가 쓰임.
- Siloam(Σιλωάμ) — 실로암. 본문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 풀이(7절).
- hamartia / hamartolos(ἁμαρτία) — 죄·죄인. 2·3·16·24·25·31·34·41절. 처음과 끝을 감쌌.
- erga(ἔργα) — 일. 3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 4절 "보내신 이의 일".
- phos(φῶς) / kosmos(κόσμος) — 빛 / 세상. 5절 "세상의 빛".
- krima(κρίμα) — 심판. 39절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 proskyneo(προσκυνέω) — 경배하다. 38절. 39절 krima 바로 앞.

6 — (2) 문학 구조

- 짧은 치유(1-7)와 긴 심문(8-41)의 두 묶음. 사건보다 심문이 압도적으로 길다.
- 두 방향의 엇갈림 — 치유받은 자의 고백은 상승, 바리새인의 결은 하강.
- 예수의 부재(8-34)와 등장(1-7, 35-41)이 심문 장면을 액자처럼 감싼다.
- 죄-복의 수미상관(2절 ↔ 41절)이 장 전체를 닫는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안식일에 "반죽하기·이기기"가 금지 노동에 들었다는 배경이, 진흙을 이기심(6·14절)과 16절 시비에 맞물린다. 배경으로만 기록.
- "출교"(aposynagogos, 22·34절)는 회당 공동체로부터의 축출. 부모의 침묵(21-23)을 설명하는 제도 배경.
- 35절 "인자를 믿느냐"는 사본에 따라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로 갈림. 본문비평 사안 — "사본에 따라 다름"까지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 9 ↔ 요 5 (안식일 치유의 시비, 병과 죄의 물음)
- 요 9:5 ↔ 요 8:12 ("나는 세상의 빛이라")
- 요 9:3 ↔ 요 11:4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 요 9:39 ↔ 요 3:19 (빛이 옴으로 갈리는 심판)
- 요 9:34 ↔ 요 16:2 (출교·회당에서 쫓겨남)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길을 가시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보신다. "누구의 죄냐"는 물음에 "이도 그 부모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시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신다. 그가 밝은 눈으로 온다. 이웃들이 다두고,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다. 그 날이 안식일이라 시비가 일고, 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긴다. 그가 "선지자니이다" 하자, 부모를 부르나 부모는 출교가 두려워 발을 뺀다. 다시 불려와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말 앞에서 그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이라" 하고, "너희도 제자가 되려느냐" 되묻다 쫓겨난다. 예수께서 그를 찾아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니 "주여 믿나이다" 하고 경배한다. 끝으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너희가 본 다 하니 너희 죄가 그제 있느니라"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한 가지 아는 것 — 소경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
- 초벌 부제: "눈이 열리는 길에서, 보는 자와 못 보는 자가 자리를 바꾼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안식일 반죽 금지·출교 제도·사본 차이)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3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가 고난의 목적론으로 굳지 않도록 → 본문이 말한 데까지만 보존.
- 35절 "인자/하나님의 아들" 사본 차이는 본문비평 사안으로만 기록.
- 39-41절의 "봄/못 봄"은 어휘의 자리바꿈으로 기록, 신학 명제로 확정하지 않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9장은 한 사람의 눈이 열리는 길에서, 본다는 자와 못 본다는 자가 자리를 바꾸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길에서 만나 진흙과 실로암으로 보게 한다. 그러나 짧은 치유 뒤에 긴 심문이 이어지고, 그 심문 동안 치유받은 자는 점점 또렷해지고("그 사람"→"선지자"→"주여 믿나이다") 둘레의 바리새인들은 점점 어두워진다("분쟁"→"죄인이다"→"쫓아냄"). 못 봄의 죄를 묻던 첫 물음(2절)은 본다는 자의 죄로 뒤집혀 닫힌다(41절).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길(1절) → 실로암 못(7절) → 심문장(13절) → 쫓겨난 밖(34절) → 재회(35절). 시간 = 안식일. 소품 = 침·진흙·실로암 물.
2 첫 느낌·분위기	짧은 치유 뒤 길고 끈질긴 심문. 보다/못 보다는 오감. 한 사람의 고백이 점점 또렷해짐.
3 시작과 끝	시작 – "누가 죄를 지었나"(2절). 끝 – "본다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41절). 죄와 봄이 자리를 바꿈.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제자 / 맹인이던 자 / 이웃 / 바리새인 / 부모. 고백은 상승, 바리새인의 결은 하강. 부모는 출교가 두려워 침묵.
5 장면 컷	컷 1 치유(1-7). 컷 2 이웃 논쟁(8-12). 컷 3 1차 심문(13-17). 컷 4 부모 소환(18-23). 컷 5 2차 심문·쫓아냄(24-34). 컷 6 재회·경배·심판(35-41).
6 의문·발견·정보	진흙·실로암 절차의 까닭. 셋째 길로 바뀐 물음(3절). "한 가지 아는 것"(25절). 경배(38)와 심판(39)의 인접. 사본 차이(35절).
7 동영상	길의 치유 → 이웃 논쟁 → 두 차례 심문 → 쫓겨남 → 재회·경배 → 심판 선언으로 흐르는 한 동영상.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한 가지 아는 것 – 소경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 부제 – "눈이 열리는 길에서, 보는 자와 못 보는 자가 자리를 바꾼다".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길과 못과 심문장을 걸으며 "한 가지 아는 것" 앞에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바뀐 물음:** 제자들의 "누구의 죄냐"는 두 선택지(본인·부모)를 예수는 "이도 아니요 그 부모도 아니라"며 셋째 길로 연다. 물음의 틀 자체가 처음부터 흔들린다.
- 결 2 – 두 방향의 엇갈림:** 한 사람의 고백은 계단처럼 올라가고("그 사람"→"선지자"→"주여 믿나이다"), 둘레의 확신은 점점 좁아진다("분쟁"→"죄인이다"→"쫓아냄"). 같은 사건이 두 방향으로 갈린다.
- 결 3 – 거울처럼 닫힘:** 못 봄의 죄를 묻던 2절이, 본다는 자의 죄를 말하는 41절로 뒤집혀 닫힌다. "봄/못 봄"과 "죄"가 처음과 끝에서 자리를 바꾼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요 5** (안식일 치유의 시비), **요 8:12**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 11:4**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 다른 결 — 요 3:19 (빛이 옴으로 갈리는 심판), 요 16:2 (출교·회당에서 쫓겨남).
- 정경 흐름 — 9:5 "세상의 빛"은 요한복음의 빛 주제(요 1:4-9)와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길에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 앞에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누구의 죄냐"가 셋째 길로 바뀌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회복이 안식일 심문이 되는 지점에서 멈춘다.
- 멈춤 3: "한 가지 아는 것"이라는 한 줄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눈이 열림과 죄의 남음이 한 장에 있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쫓겨난 자를 다시 찾아오시는 분*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날 때부터 못 보던 자가 진흙·실로암으로 보게 된다
- [x] "누구의 죄냐"가 셋째 길로 바뀐다(3절)
- [x] 짧은 치유 뒤 긴 심문이 이어진다
- [x] 고백은 상승, 바리새인의 결은 하강한다
- [x] "한 가지 아는 것"이 가장 단단한 말이다(25절)
- [x] 경배(38)와 심판(39)이 붙어 있다
- [x] 끝은 본다는 자의 죄로 달힌다(41절)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복음의 운동은 "태초(로고스)에서 성육신을 지나 영적·우주적 완성으로" 흐른다. 마가가 권능의 메시아야를, 마태가 천국의 왕을, 누가가 내면에 임하는 인격적 통치를 비춘다면, 요한은 온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과 최종 복음을 비춘다. 9장은 이 호(arc)에서 로고스 빛이 한 사람의 닫힌 눈에 닿아 증명되는 자리다. 서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1:4-5)가 선언한 빛이, 8장 "나는 세상의 빛"(에고 에이미, 8:12)으로 말이 되고, 9장에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한 한 사람의 눈으로 육화(肉化)되어 증명된다. 표적(semeion)은 우주적 빛이 한 개인에게 도달한 한 점이며, 그 점이 끝내 "주여 만나이다"의 경배로 열린다. 태초의 빛이 한 마당의 진흙에 닿는 — 그 좌표에 9장이 선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못 봄→봄→경배 / 말로 선언된 빛(8:12)→한 사람의 눈에서 증명된 빛(9장) / 안에서 쫓겨남→밖에서 다시 만남(35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닫힌 눈에서 엮드린 무릎으로 미는 운동이다. 길의 만남 → 진흙·실로암 → 떠짐(7절) → "그 사람"에서 "주여"로 오르는 고백(11:17·33·38절) → 쫓겨남(34절) → 밖에서의 재회와 경배(35-38절). 정지된 한 기적의 사진이 아니라, 한 사람의 봄이 인식 전체를 끌고 무릎까지 내려가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진흙·못·떠진 눈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한 인격의 '봄' 전체가 뿌리째 새로 서는 일**이다. 눈이 떠지는 것은 명의(明醫)의 자리 — 가시적 병의 치료다. 그러나 본문은 거기 머물지 않고, 한 사람의 **삶**이 "그 사람"→"선지자"→"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이"→"주여"로 단계를 밟아 회복되는 자리(대의·신의)까지 내려간다. 동시에 "본다" 자처하던 이들의 눈은 도리어 닫힌다(41절). 빙산의 수면 위는 한 맹인의 신유지만, 아래는 **누가 빛 앞에서 진짜 보는가** — 통치가 한 사람의 인식의 뿌리까지 임하는 봄의 회복이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신학 논쟁엔 답할 수 없어도, 내게 일어난 "한 가지 아는 것"(25절) 한 줄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가 — 그 단단함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진흙 묻은 눈으로 떠진 자의 자리와, "본다" 자처하다 닫힌 자의 자리 사이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봄의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봄.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떠진 눈이 들은 음성으로 — 빛을 본 양이 이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리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10:27)는 선한 목자(에고 에이미)의 우리로 카메라가 옮겨간다.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9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진흙과 실로암의 절차가 있는가?

- 말씀만으로도 고치시는 결과 달리, 여기선 침·진흙·씻음의 단계가 있음.
- 절차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으로 이월.

Q2.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는 어디까지 말하는가?

- 제자의 "누구의 죄냐" 물음을 셋째 길로 바꾸심(3절).
- 고난의 목적론으로 굳히지 않고, 본문이 말한 데까지만 둬.

Q3. 왜 한 사람은 올라가고 둘레는 내려가는가?

- 치유받은 자의 고백은 상승, 바리새인의 결은 하강.
- 두 방향의 엇갈림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분포만 보존.

Q4. "한 가지 아는 것"의 단단함은 어디서 오는가?

- 신학 논쟁엔 발을 빼고 자기 경험 한 줄만 붙들(25절).
- 그 한 줄의 힘은 답하지 않고 보존.

Q5. 경배(38절)와 심판(39절)이 왜 붙어 있는가?

- 엎드려 경배함 곧 뒤에 "심판하러 왔다"가 옴.

- 두 장면의 인접의 까닭은 묵상으로 이월.

Q6. 41절 "본다는 너희의 죄가 남는다"는 어떻게 달는가?

- 못 봄의 죄를 묻던 물음(2절)이 본다는 자의 죄로 뒤집혀 달함.
- 거울 구조의 달함은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 10장

JHN-010 · 복음서 · 헬라어

문이며 목자이신 한 분이 음성으로 양을 부른다. 듣는 양과 듣지 않는 무리 사이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한 말이 돌을 들게 한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앞부분 무대는 "양의 우리" — 문·문지기·우리(1-5절)의 비유 공간.
- 뒷부분 무대는 명시됨 — "수전절, 때는 겨울, 솔로몬 행각"(22-23절).
- 소품은 문(thyra, 7·9절), 그리고 목자·삯꾼·이리·도둑·강도의 인물 소재.
- "음성"(phone)이 양과 목자를 잇는 끈으로 반복(3·4·5·16·27절).
- 6절이 앞 단락을 "비유(paromia)를 알지 못하더라"로 닫는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목가적 양·목자 그림으로 열려, 끝에는 돌을 드는 격돌로 팽팽해진다(31절).
- 듣는 양과 듣지 않는 무리가 한 장에 같이 있다.
- "나와 아버지는 하나"(30절) 한 줄에서 공기가 굳는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진실로 진실로...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 우리·문의 비유로 조용히 열림.
- 42절: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 요단 건너편의 조용한 믿음으로 닫힘.
- 비유로 열려 믿음의 보고로 닫힌다. 가운데 돌의 격돌을 지나 가라앉는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양 / 목자 / 삯꾼 / 이리 / 도둑·강도 / 문지기 / "유대인들".
- 두 "ego eimi" — "나는 양의 문"(7·9), "나는 선한 목자"(11·14).
- 목자의 표지 —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림(11·15), 스스로 버리고 다시 얻음(17-18).
- "다른 양들 ... 한 무리 한 목자"(16절) — 우리 밖의 양.
- 충들의 정점 — "나와 아버지는 하나(hen, 중성형)"(30) → 돌·신성모독(31·33).
- "빼앗다"(harpazo)가 이리의 위협(12)과 빼앗기지 않음(28-29)에 함께.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6): 우리·문·문지기·음성의 비유, "알지 못하더라".
- 컷 2 (7-10): "나는 양의 문", 도둑과의 대비, "생명을 풍성히".

- 컷 3 (11-18): "나는 선한 목자", 샅꾼·이리, 버림과 다시 얻음, 다른 양들·한 무리.
- 컷 4 (19-21): 말로 인한 분쟁(schisma),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말".
- 컷 5 (22-42): 수전절·겨울·솔로몬 행각, "내 양은 듣는다", "하나", 돌·시 82편, 요단 건너편.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ego eimi(ἐγώ εἰμι) — "나는 ~이라". 7·9·11·14절의 두 자기 선언.
- thyra(θύρα) — 문. 7·9절. "나는 양의 문이라".
- poimen(ποιμήν) — 목자. 11·14·16절. "선한 목자".
- phone(φωνή) — 음성. 3·4·5·16·27절. 양과 목자를 잇는 끈.
- paroimia(παροιμία) — 비유·암시적 말. 6절. 요한복음 특유어.
- schisma(σχίσμα) — 분쟁·갈림. 19절. 말씀이 무리를 가름.
- hen(ἓν) — 하나(중성형).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
- harpazo(ἄρπάζω) — 빼앗다·움켜채다. 12·28·29절.
- egkainia(ἐγκαίνια) — 수전절·봉헌. 22절. 겨울 절기.

6 — (2) 문학 구조

- 비유(1-6) → 풀이(7-18) → 분쟁(19-21) → 절기의 대면(22-42)의 흐름.
- 두 "ego eimi"가 풀이 단락의 두 기둥(문 / 목자).
- "음성·들음·따름·얹"이 양·목자 관계를 묶는 어휘 사슬.
- "하나"(30)가 후반 충돌의 정점, 돌이 그 뒤를 따른다.
- 9장(맹인 치유)이 컷 4의 "맹인의 눈"으로 이어진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수전절(egkainia)은 성전 정화·봉헌을 기념하는 겨울 절기. 본문이 "겨울"을 명시한다. 배경으로만 기록.
- "솔로몬 행각"은 성전 동편의 지붕 덮인 회랑. 겨울에 바람을 피해 거닐던 자리라는 배경.
- 34-36절의 시편 82:6 인용("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은 본문 내 논증. 인용 사실과 위치까지만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 10 ↔ 요 9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말, 분쟁의 결)
- 요 10:11 ↔ 시 23 (목자 그림)
- 요 10:16 ↔ 요 11:52 (흩어진 자녀를 한데 모음)
- 요 10:30 ↔ 요 17:21-22 ("하나 됨")
- 요 10:34 ↔ 시 82:6 (인용된 본문)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양의 우리 그림으로 연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요, 양은 그의 음성을 알아 따른다. 그러나 듣는 이들은 비유를 알지 못한다. 예수께서 풀어, "나는 양의 문이라" — 나로 들어가면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 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스스로 다시 얻으며, 우리 밖의 다른 양들도 인도해 한 무리 한

목자가 되게 하리라 하신다. 이 말로 무리에 분쟁이 인다. 장면이 수전절 겨울 솔로몬 행각으로 옮겨, "네가 그리스도냐" 다그치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신성모독이라 하나, 예수께서 시편을 들어 답하시고 행한 일로 믿으라 하신다. 그들이 잡으려 하나 벗어나, 요단 건너편으로 가시니 거기서 많은 이가 믿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나는 문이요 선한 목자라 —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 초벌 부제: "음성으로 부르는 목자에서, '하나'라는 한 말까지"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수전절·솔로몬 행각·시 82편 인용)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30절 "하나"(hen)는 중성형이라는 어휘 사실까지만, 신학 명제로 확정하지 않음.
- 16절 "다른 양들"의 정체는 본문이 말하지 않음 → 추정 보류.
- 26-27절 "양임"과 "들음·믿음"의 선후는 문장 순서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10장은 음성으로 부르는 문이며 목자이신 분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한 말로 듣는 양과 듣지 않는 무리를 가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양의 우리 비유로 열린다. 문으로 드는 이가 목자요, 양은 그의 음성을 알아 따른다. 예수는 "나는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라는 두 자기 선언으로 그 비유를 풀고,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다시 얻는 목자, 우리 밖의 다른 양까지 한 무리로 모으는 목자를 말한다. 수전절 거울 솔로몬 행각의 대면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30절)로 닿자, 돌이 들린다. 격돌 끝에 본문은 요단 건너편의 조용한 믿음으로 가라앉는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앞 = 양의 우리·문·문지기. 뒤 = 수전절·거울·솔로몬 행각(22-23절). 소품 = 문·목자·삯꾼·이리·음성.
2 첫 느낌·분위기	목가적 비유로 열려 돌의 격돌로 팽팽. 듣는 양과 듣지 않는 무리가 같이 있음. 30절에서 공기가 굳음.
3 시작과 끝	시작 — 우리·문의 비유(1절). 끝 — "많은 사람이 믿으니라"(42절). 비유로 열려 믿음으로 닫힘.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양 / 목자 / 삯꾼 / 이리 / 유대인들. 두 "ego eimi"(문·목자). "하나"(중성형, 30)가 충돌의 정점.
5 장면 컷	컷 1 비유(1-6). 컷 2 문(7-10). 컷 3 목자(11-18). 컷 4 분쟁(19-21). 컷 5 수전절 대면·돌·요단 건너편(22-42).
6 의문·발견·정보	문이며 목자임. "다른 양들"의 정체. 스스로 버림과 다시 얻음(17-18). 시 82편 인용(34-36). schisma 반복.
7 동영상	우리 비유 → 문·목자 풀이 → 분쟁 → 수전절 대면 → "하나"·돌 → 요단 건너편 믿음으로 흐르는 한 동영상.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나는 문이요 선한 목자라 —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부제 — "음성으로 부르는 목자에서, '하나'라는 한 말까지".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우리와 솔로몬 행각과 요단 건너편을 걸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앞에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문이며 목자:** 한 분이 드나드는 통로(문)이면서 인도하는 이(목자)다. 두 "ego eimi"가 같은 분에 겹쳐, 들어감과 따름이 한 자리에서 만난다.
- 결 2 — 음성과 따름:** "양이 그의 음성을 안다"(4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27절). 양과 목자를 잇는 끈은 봄이 아니라 들음이다.
- 결 3 — '하나'와 돌:**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28절)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30절)로 닿자 돌이 들린다. 가장 짧은 한 말이 가장 격한 반응을 부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요 9**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말, 분쟁), **요 11:52** (흩어진 자녀를 한데 모음), **요 17:21-22** ("하나 됨").
- 다른 권 — **시 23** (목자 그림), **시 82:6** (본문이 인용한 절).
- 정경 흐름 — 10:16 "한 무리 한 목자"는 요한복음의 모음 주제(요 11:52, 17장)와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양의 우리 그림 앞에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나는 양의 문이라"는 자기 선언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스스로 버리고 다시 얻는다"는 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돌을 부르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음성과 따름이 한 끈에 있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음성으로 부르며 빼앗기지 않게 붙드시는 분*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한 분이 문이며 목자다(7·11절)
- [x] 양과 목자를 잇는 끈은 음성이다(4·27절)
- [x] 목자는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다시 얻는다(17-18절)
- [x] 우리 밖의 다른 양도 한 무리로 모인다(16절)
- [x]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돌을 부른다(30-31절)
- [x] 빼앗김과 빼앗기지 않음이 같은 단어로 마주 본다(12·28절)
- [x] 끝은 요단 건너편의 조용한 믿음이다(42절)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복음의 운동은 "태초(로고스)에서 성육신을 지나 영적·우주적 완성으로" 흐른다. 마가가 권능의 메시아를, 마태가 천국의 왕을, 누가가 내면에 임하는 인격적 통치를 비춘다면, 요한은 온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과 최종 복음을 비춘다. 10장은 이 호(arc)에서 성육신하신 로고스가 "나는 선한 목자라"(에고 에이미)로 자신을 양을 부르는 음성으로 입히는 자리다. 8장에서 "내가 있느니라"(58절)로 못 박힌 태초 됨이, 여기서는 우리·문·목자라는 친밀한 그림으로 옷 입는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30절)는 요한 좌표의 핵심인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한 줄로 압축하고, "다른 양들... 한 무리 한 목자"(16절)는 온 세상을 향한 우주적 모임을 미리 비춘다. 태초의 음성이 한 무리를 부르는 목자의 부름으로 들리는 — 그 좌표에 10장이 선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음성→들음→따름 / 흠어진 양→한 무리 한 목자(16절) / "나는 선한 목자라"(에고 에이미)→"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30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음성에서 하나로 미는 운동이다. 우리·문의 비유 → "나는 양의 문"(7절) → "나는 선한 목자"(11절) → 목숨을 스스로 버림(18절) →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27절) → "나와 아버지는 하나"(30절) → 격돌을 지나 강가의 조용한 믿음(42절). 정지된 한 비유의 사진이 아니라, 한 음성이 양의 따름을 끌고 아버지와의 '하나'까지 밀고 가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그림은 우리·문·삿꾼·이리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한 음성을 알아듣는 관계 자체다. 양과 목자를 잇는 끈은 울타리가 아니라 음성(phone)이며, 그 음성은 소유가 아니라 목숨을 건 앎으

로 증명된다 —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11절). "삿꾼"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12절), 목자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는다(18절). 빙산의 수면 위는 양 떼의 그림이지만, 아래는 누가 진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가 — 목숨으로 받친 친밀한 통치의 관계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27절) — 들음과 따름이 한 호흡으로 붙어 있는 그 음성이, 내 안에서도 알아들리고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음성으로 부르는 목자의 결과,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 돌을 드는 자리 사이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음성의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음성.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11장에서 한 친구의 무덤 앞에 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11:25, 에고 에이미)를 선언하는 자리로 카메라가 옮겨간다. 음성으로 부르던 분이 이제 죽은 자의 이름을 불러내신다.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10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꺼미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한 분이 "문"이면서 "목자"인가?

- 드나드는 통로(문, 7·9절)와 인도하는 이(목자, 11·14절)가 같은 분.
- 두 상이 한 분에 겹치는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인가?

- 본문은 "있다"고만 하고 정체는 말하지 않음(16절).
- 추정은 목상으로 이월, 관찰은 위치만 둬.

Q3. "스스로 버리고 다시 얻는다"는 어떻게 함께인가?

- 죽음이 "당함"이 아니라 "스스로 함"으로 말해짐(17-18절).
- 버림과 다시 얻음의 동시성은 답하지 않고 보존.

Q4.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의 선후는?

- "양임"과 "들음·믿음"의 순서가 묘하게 뒤집혀 보임(26-27절).
- 관찰로는 문장 순서만 기록, 관계는 보류.

Q5. "나와 아버지는 하나"는 왜 돌을 부르는가?

- "하나"(중성형, 30절) 뒤에 돌·신성모독(31·33절)이 따름.
- 한 줄과 격들의 연결은 목상으로 이월.

Q6. 끝이 왜 요단 건너편의 조용한 믿음으로 닫히는가?

- 격돌을 떠나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서 많은 이가 믿음(40-42절).
- 물러남과 믿음의 결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 11장

JHN-011 · 복음서 · 헬라어

한 죽음 앞에서 머무신 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 무덤에서 부른 한 이름이 곧 또 다른 죽음을 부르는 모의가 된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1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요단 건너편(출발) → 베다니(1·18절) → 무덤(38절) → 공회(47절) → 에브라임(54절)으로 옮겨 간다.
- 거리 명시 —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십오 스타디온)"(18절).
- 소품은 무덤·돌·베·수건(38·44절). 시간은 "죽은 지 나흘"(17·39절).
- 절기 배경 —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55절)가 끝에 깔린다.
- "잔다"(koimao, 11-14절), "눈물 흘리다"(dakryo, 35절), "비통히 여기다"(embrimaomai, 33·38절)의 어휘 분포.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죽음과 슬픔이 무겁게 깔리는데 한 가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25절)이 박힌다.
- 가장 짧은 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35절)가 크게 다가옴.
- 살림(1-44) 뒤에 죽임의 모의(45-57)가 따라붙는 서늘함. "영광"이 처음·끝을 감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곧 ... 나사로라" — 한 사람의 병으로 조용히 열림.
- 57절: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라 명령하였더라" — 체포의 그물로 닫힘.
- 한 죽음에서 또 다른 죽음의 준비로 흐른다. 4절 "영광"과 끝의 모의가 겹친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나사로 / 마르다 / 마리아 / 제자들(도마) / 조문 온 유대인들 / 대제사장·바리새인·가야바.
- 두 자매의 다른 결 — 마르다는 나가 맞아 고백(21-27), 마리아는 집에 있다 나와 같은 말로 옴(32).
- 마르다의 고백 —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27절).
- 사상의 정점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이것을 네가 믿느냐"(25-26절).
- 부활(anastasis)의 시제 이동 — 마르다는 "마지막 날"(미래, 24절), 예수는 "내가 곧"(현재, 25절).
- 두 "죽음" — 도마 "함께 죽으러 가자"(16), 가야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50, hyper).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6): 병 소식, 이틀 더 유하심, "잔다/죽었다", 도마 "함께 죽으러".

- 컷 2 (17-27): 나흘 된 무덤, 마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것을 네가 믿느냐".
- 컷 3 (28-37): 마리아·우는 유대인들,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 컷 4 (38-44): 무덤·돌·"냄새",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베로 동인 채.
- 컷 5 (45-53): 믿음 vs 고발, 공회, 가야바 "한 사람이 죽어", 죽이기로 모의.
- 컷 6 (54-57): 에브라임 물러남, 유월절 가까움, 잡으라는 명령.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ego eimi(ἐγώ εἰμι) — "나는 ~이라".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anastasis(ἀνάστασις) — 부활. 24·25절. 미래(마르다)에서 현재(예수)로.
- zoe(ζωή) — 생명. 25절. 부활과 한 쌍.
- dakryo(δακρύω) — 눈물 흘리다. 35절. 신약에서 이 단어는 여기뿐.
- embrimaomai(ἐμβριμάομαι) — 심하게 동요함·비통히 여김. 33·38절.
- koimao(κοιμάω) — 잠들다. 11-12절. 제자들이 문자로 오해함.
- doxa(δόξα) — 영광. 4·40절. 사건의 처음·끝을 감쌌.
- hyper(ὑπέρ) — ~을 위하여. 50-52절. 가야바의 말 "백성을 위하여".

6 — (2) 문학 구조

- 살림(1-44)과 모의(45-57)의 두 묶음. 45-46절(믿음과 고발의 갈림)이 경첩.
- "영광"(4·40)이 살림 사건을 액자처럼 감싼다.
- 두 자매의 같은 말("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21·32절)이 두 결로 반복된다.
- "죽음"의 두 결 — 도마의 동행의 죽음(16)과 가야바의 대속적 표현의 죽음(50-52).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죽은 지 나흘"은 당시 통념과 맞물리나, 본문은 숫자와 "냄새"(39절)까지만 말함. 통념 추정은 보류.
- "십오 스타디온"(18절)은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근접을 표시 — 뒤의 공회 장면과 지리적으로 이어짐. 배경으로만 기록.
- 51절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언함"은 본문 자체의 해설. 본문이 단 그 설명까지만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 11 ↔ 요 5:24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 요 11:25 ↔ 요 10:30 (앞 장의 "하나"와 이어지는 자기 선언)
- 요 11:4 ↔ 요 9: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 요 11:52 ↔ 요 10:16 (흩어진 자녀를 한데 모음)
- 요 11:55 ↔ 요 2:13, 13:1 (유월절의 흐름)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들어 자매들이 사람을 보낸다. 예수는 "이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신 뒤,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길을 떠나신다. 도마가 "함께 죽으러 가자" 한다. 이르러 보니 죽은 지 나흘. 마르다가 나가 맞아 "마지막 날 부활은 압니다" 하자, "나는 부

활이요 생명이니 ...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시고, 마르다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다. 마리아도 나와 같은 말로 울고, 함께 온 이들도 운다.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다. 무덤에 이르러 "돌을 옮기라" 하시니 "나흘이라 냄새가 납니다" 하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시고 기도 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다. 죽었던 이가 베로 동인 채 나온다. 본 많은 이가 믿으나 어떤 이는 고발하고, 공회가 모여 가야바의 말("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을 따라 죽이기로 모의한다. 예수는 에브라임으로 물러나시고, 유월절이 가까워 잡으라는 명령이 내린다.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별 제목: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 초별 부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우시고, 살림이 죽임의 모의를 부른다"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스타디온 거리·유월절·본문 자체 해설 51절)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별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5-26절 부활의 시제 이동은 어휘·문장 사실까지만, 신학 명제로 확정하지 않음.
- 35절의 우심과 곧 살리심의 병치는 까닭을 달지 않고 보존.
- 50-52절 "백성을 위하여"(hyper)는 본문이 단 해설(51절)까지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11장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분이 한 죽음 앞에 우시고, 그 살림이 또 다른 죽음의 모의를 부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베다니의 병 소식으로 열린다. 예수는 "죽을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시고 이들을 더 머무신 뒤, 나홀 된 무덤으로 가신다. 마르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시고, 마리아의 울음과 무리의 울음 곁에서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신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부름에 죽었던 이가 베로 동인 채 나온다. 그러나 그 살림을 본 일이 공회의 모의로 이어져, 가야바의 말("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을 따라 죽이기로 결의한다. "영광"(4:40절)이 사건을 감싸고, 살림과 죽임이 한 장에 겹친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요단 건너편 → 베다니 → 무덤 → 공회 → 에브라임. 거리 = 십오 스타디온(18절). 소품 = 무덤·돌·베·수건. 시간 = 나홀·유월절.
2 첫 느낌·분위기	죽음·슬픔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 박힘. 가장 짧은 절 "눈물을 흘리시더라"(35). 살림 뒤 모의의 서늘함.
3 시작과 끝	시작 — 한 사람의 병(1절). 끝 — "신고하라"는 명령(57절). 한 죽음에서 또 다른 죽음의 준비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나사로 / 마르다·마리아 / 도마 / 가야바. 두 자매의 다른 결. 부활의 시제 이동(미래→현재). 두 "죽음".
5 장면 컷	컷 1 병·이틀(1-16). 컷 2 마르다·"부활이요 생명"(17-27). 컷 3 마리아·눈물(28-37). 컷 4 "나사로야 나오라"(38-44). 컷 5 공회·모의(45-53). 컷 6 에브라임·명령(54-57).
6 의문·발견·정보	사랑과 늦춤(5-6). 우심의 까닭(35). "영광"의 액자(4:40). 베로 동인 채(44). 기도와 청중의 겹침(41-42).
7 동영상	병 소식 → 이틀 → 무덤·"부활이요 생명" → 눈물 → "나오라" → 공회의 모의 → 에브라임으로 흐르는 한 동영상.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부제 —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우시고, 살림이 죽임의 모의를 부른다".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베다니와 무덤과 공회를 걸으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앞에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당겨진 시제:** 마르다는 부활을 "마지막 날"의 일로 두는데(24절), 예수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현재로 당긴다(25절). 미래의 소망이 지금 한 분에게 모인다.
- 결 2 — 우시는 부활:**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분이 곧 비통히 여기시며 우신다(33·35절). 살리실 줄 아시면서 우심이, 가장 짧은 절에 박혀 있다.

3. **결 3 — 살림이 부른 모의:** 무덤에서 부른 한 이름(43절)이, 본 이들의 믿음과 동시에 공회의 모의를 부른다(45-53절). 살림과 죽임이 한 경첩(45-46절)에서 갈린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요 5:24**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 10:30** (앞 장의 "하나"와 이어지는 자기 선언), **요 10:16 / 11:52** (흩어진 자녀를 모음).
- 다른 결 — **요 9: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요 2:13 / 13:1** (유월절의 흐름).
- 정경 흐름 — 11:25 "부활이요 생명"은 요한복음의 생명 주제(요 1:4, 20:31)의 정점에 놓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베다니의 병 소식 앞에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이들을 더 유하셨다"는 늦춤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물음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살림과 죽임이 한 장에 겹친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무덤 앞에서 우시고 부르시는 분*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예수께서 이들을 더 유하신 뒤 떠나신다(6절)
- [x] 부활이 미래에서 현재로 당겨진다(24-25절)
- [x] "이것을 네가 믿느냐"가 물음으로 박힌다(26절)
- [x]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우신다(35절)
- [x] "나사로야 나오라"에 바로 동인 채 나온다(43-44절)
- [x] 살림이 공회의 모의를 부른다(45-53절)
- [x] 끝은 잡으라는 명령이다(57절)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복음의 운동은 "태초(로고스)에서 성육신을 지나 영적·우주적 완성으로" 흐른다. 마가가 권능의 메시야를, 마태가 천국의 왕을, 누가가 내면에 임하는 인격적 통치를 비춘다면, 요한은 온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과 최종 복음을 비춘다. 11장은 이 호(arc)에서 성육신하신 로고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에고 에이미)로 죽음의 권세 위에 서는 자리다. 서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1:4)가 선언한 생명이, 8장 "내가 있느니라"(58절)와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를 지나, 여기서는 나흘 된 무덤 앞에서 부활(anastasis)과 생명(zoe)으로 못 박힌다. 동시에 이 표적은 요한복음 전반부 일곱 표적의 절정이자 수난으로 넘어가는 경첩이다 — 살림이 곧 가야바의 모의(50-53절)를 부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hyper) 죽는다"는 예언을 끌어낸다. 우주적 완성으로 가는 길이 한 무덤과 한 죽음의 모의를 통과하는 — 그 좌표에 11장이 선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죽음→부활(생명) / "마지막 날 부활"(미래, 24절)→"내가 곧 부활"(현재, 25절) / 한 사람의 살림→한 사람을 죽이려는 모의(53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무덤에서 부름으로, 그리고 살림에서 수난으로 미는 운동이다. 병과 죽음(1-16절)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25절) → 우심(35절) → "나사로야 나오라"(43절) → 베에 묶인 채 나오(44절) → 믿음과 고발의 갈림(45-46절) → 공회의 모의(53절) → 예브라임으로 물러남(54절). 정지된 한 기적의 사진이 아니라, 부활의 빛이 곧장 수난의 그림자로 기울어 가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열린 무덤과 걸어 나오는 시신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죽음의 무게를 멀리서 처리하지 않고 그 한복판에서 함께 우신다는 것이다 –

embrimaomai(심령에 통분히 여기심)와 dakryo(눈물)가 함께 놓인다(33·35·38절). 명의의 자리는 시신을 살리는 권능이다. 그러나 본문은 거기 머물지 않고, 슬픔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친밀함으로 함께 우시는 자리(대의)와, 죽음 자체의 권세를 "내가 곧 부활"로 뿌리째 당기시는 자리(신의)까지 내려간다. 빙산의 수면 위는 한 친구의 소생이지만, 아래는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이 죽음을 뚫고 임하는 생명의 통치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이것을 네가 믿느냐"(26절) – 부활을 마지막 날의 교리로 멀리 두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선 한 인격을 믿느냐로 당겨 묻는 그 물음이, 내 안에서 살아 울리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우시는 분의 결과, 나홀 된 무덤의 돌 앞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생명의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영광.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부활로 빛난 영광이 한 알의 밀로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12장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12:24)로, 마리아의 향유와 입성을 지나 죽음을 통과하는 영광으로 카메라가 옮겨간다.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11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사랑하시면서 이들을 더 유하셨는가?

- 5-6절이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이들을 더 유하셨다"로 붙어 있음.
- 사랑과 늦춤의 연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으로 이월.

Q2.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왜 우셨는가?

- 곧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심(33·35절).
- 우심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머문다.

Q3. "마지막 날"과 "내가 곧"의 시제는 어떻게 만나는가?

- 마르다의 미래 부활(24절)을 예수가 현재로 당김(25절).
- 두 시제의 만남은 어휘 사실까지만, 관계는 보류.

Q4. 살아 나온 나사로가 왜 아직 베로 묶여 있는가?

-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44절).
- 살림과 풀음 사이의 결은 묵상으로 이월.

Q5. 기도가 왜 "둘러선 무리를 위한 말"이기도 한가?

- "항상 들으시는 줄 알았으나 무리를 위하여 말하였나이다"(41-42절).
- 기도와 청중이 겹치는 자리는 답하지 않고 보존.

Q6. 살림이 왜 죽임의 모의를 부르는가?

- 본 많은 이가 믿으나, 같은 일이 공회의 모의로 이어짐(45-53절).
- 살림과 모의의 겹침은 거울처럼 두고 머문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 12장

JHN-012 · 복음서 · 헬라어

향유 한 옥합이 장사를 미리 입히고, 호산나의 환호 곁에서 한 알의 밀이 떨어진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한 말이 영광과 죽음을 한데 묶는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1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베다니의 잔치 자리(1절) → 예루살렘 입성의 길(12절) → 헬라인의 물음·담화(20절) → 마지막 외침으로 옮겨간다.
- 시간 배경 — "유월절 엿새 전"(1절)과 "그 이튿날"(12절)의 입성.
- 소품은 향유(myron)·나드·머리털(3절), 종려나무 가지(13절), 어린 나귀(14절).
- 액수 명시 — "삼백 데나리온"(5절). 본문이 유다를 "도둑"으로 덧붙임(6절).
- "한 알의 밀"(kokkos, 24절), "들리다"(hypsoo, 32절), "빛/어둠"(35-36·46절)의 소재.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향유 냄새 가득한 잔치에서 시작해 죽음 이야기가 짙어진다. 향기와 죽음이 같이 깔린다.
- "호산나" 환호 뒤에 "한 알의 밀"(24절)이 곁을 바꾼다.
- "때가 왔다"(23절)의 도착감. "빛/어둠"이 끝부분에서 다시 울린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 베다니에 이르시니" — 조용한 잔치로 열림.
- 50절: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 아버지의 말씀에 기대어 닫힘.
- 사적인 잔치에서 공적인 심판·말씀의 외침으로 폭이 넓어진다. 36절 "숨으시니라"가 가운데를 끊는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마리아·마르다·나사로 / 유다 / 무리 / 헬라인 / 빌립·안드레 / 하늘의 소리 / 인용된 이사야.
- 마리아와 유다의 대비 — 향유를 부음 vs 값으로 따짐(3·5절). 본문이 유다를 "도둑"이라 덧붙임(6절).
- "장사할 날을 위하여"(7절) — 향유가 장례와 묶임.
- 사상의 정점 — "한 알의 밀"(24절), "생명(psyche)을 사랑하는 자는 잃는다"(25절).
- "내가 땅에서 들리면(hypsoo)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32절). 본문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 보아 심"이라 해설(33절).
- "영광"(doxa/doxazo, 23·28절)이 곧 죽음과 한 자리에 놓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8): 베다니 잔치, 마리아의 향유, 유다의 따짐, "장사할 날".

- 컷 2 (9-11): 큰 무리,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모의.
- 컷 3 (12-19): 입성, 종려."호산나", 나귀, 제자들의 늦은 깨달음.
- 컷 4 (20-26): 헬라인의 방문, "때가 왔다", "한 알의 밀", "생명을 잃음".
- 컷 5 (27-36): "마음이 괴로우니", 하늘의 소리, "세상의 심판", "들리면", "빛", 숨으심.
- 컷 6 (37-50): 믿지 않음·이사야 인용, 은밀히 믿는 관리들, "내 말이 심판하리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myron(μύρον) — 향유. 3절. 순전한 나드 한 근.
- doxa / doxazo(δόξα/δοξάζω) — 영광 / 영광스럽게 하다. 23·28·41절.
- hora(ώρα) — 때·시각. 23·27절. "때가 왔다".
- kokkos(κόκκος) — 낱알. 24절. "한 알의 밀".
- psyche(ψυχή) — 생명·목숨. 25·27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 hypsoo(ὑψόω) — 높이 들다·들리다. 32·34절. 본문이 죽음으로 해설(33절).
- hosanna(ὡσαννά) — 호산나. 13절. 시 118편 인용.
- phos(φῶς) / krisis(κρίσις) — 빛 / 심판. 35-36·46절 / 31·48절.

6 — (2) 문학 구조

- 향유·입성의 사건(1-19)과 담화(20-50)의 두 묶음. 23절 "때가 왔다"가 경첩.
- 마리아(향유)와 유다(값)의 대비가 첫 컷을 이끈다.
- "영광"과 "죽음"이 23-24절에서 한 자리에 놓인다.
- 36절 "숨으시니라"가 공적 사역의 한 매듭을 끊고, 37-50절이 믿음/불신의 정리로 닫는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13절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시편 118:25-26, 15절 "시온 딸아... 나귀 새끼"는 스가랴 9:9 인용. 본문이 입성에 두 구절을 겹침. 인용 사실까지만.
- 38·40절은 이사야 53:1과 6:10 인용.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라는 본문 자체의 해설이 붙음.
- 42절 "출교를 두려워하여"는 9장의 출교 제도와 이어지는 배경. 배경으로만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 12 ↔ 요 11 (베다니·나사로, 모의의 확대)
- 요 12:23 ↔ 요 2:4, 7:30 ("때"의 흐름 — 이르지 않음에서 이름으로)
- 요 12:32 ↔ 요 3:14 ("들리다" — 모세의 뱀과 인자)
- 요 12:42 ↔ 요 9:22 (출교의 두려움)
- 요 12:13 ↔ 시 118:25-26 / 요 12:15 ↔ 속 9:9 (인용 본문)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유월절 엿새 전, 베다니의 잔치에서 마리아가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어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유다가 값으로 따지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하신다. 큰 무리가 오고,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한다. 이튿날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드시니 무리가 종려를 들고 "호산나" 외친다. 제자들은 나중어야 깨닫는다. 헬라인 몇이 뱍기를 청하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시고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는다" 하신다. "마음이 괴로우나 이를 위하여 왔다"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고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하시니, 본문이 어떤 죽음일지 풀어 준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하시고 숨으신다. 많은 표적에도 믿지 않음에 이사야가 인용되고, 관리 중 은밀히 믿는 이들이 있다. 끝으로 "내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라"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 내가 땅에서 들리면"
- 초벌 부제: "향유와 호산나에서, 한 알의 밀과 들림으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시 118·속 9·사 53/6 인용, 출교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32절 "들리다"(hypsoo)는 본문이 단 해설(33절, "어떠한 죽음으로")까지만 기록.
- 23-24절 "영광"과 "밀의 죽음"의 병치는 어휘 위치까지만, 신학 명제로 확정하지 않음.
- 40절 이사야 인용("눈을 멀게 하시고")은 인용 사실과 본문 해설(41절)까지만 둬.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12장은 향유의 잔치와 호산나의 환호가, "한 알의 밀"과 "땅에서 들림"의 담화로 흘러 영광과 죽음을 한데 묶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베다니의 잔치에서 마리아의 향유로 열린다. 그 향유는 "장사할 날"과 묶이고, 이튿날 예루살렘 입성의 "호산나" 곁에서 제자들의 이해는 늦게 따라온다. 헬라인의 방문을 계기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가 선언되고, 곧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는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로 이어진다. 본문은 그 "들림"을 죽음으로 스스로 풀고(33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하신 뒤 숨으신다. 끝은 많은 표적에도 믿지 않음과, 은밀히 믿는 이들과, "내 말이 심판하리라"는 외침이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베다니 잔치(1절) → 입성의 길(12절) → 헬라인의 물음·담화(20절). 시간 = 유월절 엿새 전. 소품 = 향유·종려·나귀.
2 첫 느낌·분위기	향유 냄새의 잔치에서 죽음 이야기로. 호산나 뒤 "한 알의 밀". "때가 왔다"의 도착감. 빛/어둠의 재등장.
3 시작과 끝	시작 — 베다니 잔치(1절). 끝 —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50절). 사적 자리에서 공적 외침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마리아·유다 / 무리 / 헬라인 / 하늘의 소리 / 이사야. "한 알의 밀", "들림"(33절 해설). 영광과 죽음의 한 자리.
5 장면 컷	컷 1 향유(1-8). 컷 2 모의(9-11). 컷 3 입성(12-19). 컷 4 헬라인·밀(20-26). 컷 5 들림·숨으심(27-36). 컷 6 불신·심판(37-50).
6 의문·발견·정보	향유와 장사. 늦은 깨달음(16). 영광·죽음의 병치(23-24). 같은 소리 다른 들음(29). 시118·속9·사53/6 인용.
7 동영상	잔치·향유 → 입성·호산나 → 헬라인·"한 알의 밀" → "들리면"·숨으심 → 불신·"내 말이 심판"으로 흐르는 한 동영상.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 내가 땅에서 들리면". 부제 — "향유와 호산나에서, 한 알의 밀과 들림으로".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잔치 자리와 입성의 길을 걸으며 "한 알의 밀" 앞에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향유와 장사:** 잔치의 가장 화려한 향기가 "장사할 날"(7절)과 묶인다. 기쁨의 한가운데에 이미 장례의 결이 스민다.
- 결 2 — 영광이 곧 죽음:** "영광을 얻을 때"(23절)가 곧 "밀이 죽으면"(24절)으로 이어진다. 본문은 영광을 높임이 아니라 떨어짐·들림과 한 자리에 둔다.

3. **결 3 — 들림의 해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32절)를, 본문이 스스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 보이심"(33절)이라 본다. 들림·이끌·죽음이 한 말에 묶인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요 11** (베다니·나사로, 모의의 확대), **요 2:4 / 7:30** ("때"의 흐름), **요 3:14** ("들리다" — 모세의 뱀과 인자).
- 다른 결 — **요 9:22** (출교의 두려움), **시 118 / 숙 9:9 / 사 53:6** (인용 본문들).
- 정경 흐름 — 12:23 "때가 왔다"는 앞선 "때가 이르지 않았다"(2:4, 7:30)의 흐름을 닫고, 수난 내러티브의 문을 연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베다니의 향유 냄새 가득한 자리에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향유가 "장사할 날"과 묶이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내가 땅에서 들리면" 한 말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영광과 죽음이 한 말에 묶인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향유가 "장사할 날"과 묶인다(7절)
- [x] 호산나의 환호와 늦은 깨달음이 어긋난다(13·16절)
- [x] "때가 왔다"가 사건을 담화로 돌려세운다(23절)
- [x] "한 알의 밀"이 죽음과 열매를 묶는다(24절)
- [x] "들리면"이 죽음으로 해설된다(32-33절)
- [x]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하신 뒤 숨으신다(35-36절)
- [x] 끝은 "내 말이 심판하리라"는 외침이다(48-50절)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복음의 운동은 "태초(로고스)에서 성육신을 지나 영적·우주적 완성으로" 흐른다. 마가가 권능의 메시아를, 마태가 천국의 왕을, 누가가 내면에 임하는 인격적 통치를 비춘다면, 요한은 온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과 최종 복음을 비춘다. 12장은 이 호(arc)에서 "때"가 마침내 도착하는 경첩이다. 앞서 거듭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던 흐름이, 여기서 헬라인의 방문을 신호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23절)로 돌아선다. 요한복음 전반부('표적의 책')가 후반부('영광의 책')로 넘어가는 자리다. 헬라인이 찾아오는 것은 "온 세상"(요한 좌표의 audience)을 향한 우주적 모음의 첫 기척이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 계로 이끌겠노라"(32절)는 그 우주적 완성을 십자가의 들림으로 비춘다. 입성의 호산나에 시편 118편과 스가랴 9:9가 겹치며, 구속사의 약속이 한 나귀 새끼 위에서 성취되는 — 그 좌표에 12장이 선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향유의 잔치→한 알의 밀(죽음)→많은 열매 / "때가 아직"→"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23절) / 땅에 떨어짐→ 땅에서 들림(영광=죽음, 32-33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잔치에서 들림으로, 향기에서 한 알의 밀로 미는 운동이다. 베다니의 향유(1-8절) → "장사할 날을 위하여"(7절) → 호산나의 입성(12-19절) → "때가 왔다"(23절) → "한 알의 밀"(24절) → "땅에서 들리면"(32절) → 빛 담화와 숨으심(35-36절). 정지된 한 잔치의 사진이 아니라, 향유의 향기가 곧 장례의 향기로, 영광이 곧 죽음으로 기울어 가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향유 붓기·호산나·나귀 입성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생명을 잃음이 곧 보전함'이라는 뒤집힌 셈법이다(25절, psyche). 마리아는 삼백 데나리온의 향유를 셈하지 않고 깨뜨려 부었고, 유다는 그것을 값으로 따져 흠쳤다(5-6절). 한 알의 밀이 제 형태를 잃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 아끼고 지키는 표면의 셈법 아래에서 잃음으로 사는 통치의 셈법이 움직인다. 더 깊이는, "영광"이 곧 "죽음"으로 풀리는 자리다 — 본문 스스로 "들림"을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33절)으로 해설한다. 빙산의 수면 위는 환호하는 입성이지만, 아래는 죽음을 통과하는 영광, 잃음으로 맺는 열매의 통치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24절) — 마리아처럼 아끼지 않고 깨뜨려 붓는 그 셈법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향유를 깨뜨린 자리와, 그것을 값으로 따진 자리 사이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한 알의 밀의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들림.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군중 앞에서 외치던 자리가 대야 곁으로 — "한 알의 밀"이 13장에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세족(洗足)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13:34, agapē) 새 계명으로 카메라가 옮겨간다. 군중에게 숨으신 분이 이제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여신다.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12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향유가 왜 "장사할 날"과 묶이는가?

- 잔치의 향기가 이미 장례를 미리 입히는 듯함(7절).
- 향유와 장사의 연결은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으로 이월.

Q2. 환호와 깨달음은 왜 어긋나는가?

- 무리는 "호산나" 외치나, 제자들은 나중어야 깨달음(16절).
- 환호와 이해의 어긋남은 답하지 않고 머문다.

Q3. "영광을 얻을 때"가 왜 "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가?

- 23절 "영광"이 곧 24절 "죽으면 열매"로 이어짐.
- 영광과 죽음의 한 자리됨은 어휘 위치까지만, 관계는 보류.

Q4. 같은 하늘 소리를 왜 다르게 듣는가?

- 무리는 "천둥", 어떤 이는 "천사"라 함(29절).
- 같은 소리의 다른 들음은 묵상으로 이월.

Q5.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무엇을 묶는가?

- 들림(hypsoo)이 "모든 사람을 이끄"와 묶이고, 본문이 죽음으로 해설함(32-33절).
- 들림과 이끄와 죽음의 묶임은 본문 해설까지만 두고 머문다.

Q6. 표적이 많은데 왜 믿지 않는가?

-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믿지 아니하니"라며 이사야가 인용됨(37-40절).
- 표적과 불신의 거리는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 13장

JHN-013 · 복음서 · 헬라어

떠나심을 아신 분이 대야 앞에 무릎을 꿇는다. 씻김과 배신과 새 계명이 한 저녁에 겹쳐 놓인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1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유월절 전 저녁 식사 자리(실내, 1-2절). 비스듬히 기대 놓는 식사 자세(23절 "품에 의지하여 누운").
- 소품 — 겹옷(4절), 수건(4절), 대야(5절), 물, 떡 한 조각(26절). 발 씻김과 표시에 차례로 쓰인다.
- 시간 배경 = "유월절 전"(1절), 그리고 30절 "밤이더라". 빛과 어둠의 시간 표지가 박힌다.
- 발 씻김은 본래 종의 일 — 선생님이 직접 행하시며 역할이 뒤집힌다.
- nipto(부분 씻음, 발)와 louo(전신 목욕)의 어휘 구별이 10절에 분명하다. 사본에 "발 외에는" 유무 차이 있음 — 배경 정보로만 기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저녁 식사 자리이나 1절부터 "떠나실 때"를 못박아 작별의 공기가 깔린다.
- 앞(1-20, 씻기심)과 뒤(21-, 배신 예고)의 결 변화. 30절 "밤"으로 한 장면이 닫힘.
- "사랑"이 처음(1절)과 끝(34-35절)에 놓여 무거운 저녁을 감싼다. 베드로의 거절(8절)과 결단(37절)의 거리.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eis telos) — 사랑의 선언.
- 38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 부인의 예고.
- 사랑으로 열려 떠나심을 앞둔 약함의 예고로 닫힌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제자들 / 베드로 / 유다 /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23절, 이름 없음).
- 베드로 — 거절(8절)에서 과한 요청(9절)으로 획 바뀜. 끝엔 목숨을 걸겠다 함(37절).
- 유다 — 이미 마음에 생각이 뚫(2절), 떡 조각 후 사탄이 들어감(27절), "속히 하라" 듣고 나감(30절).
- 사상 두 축: "본"(hypodeigma, 15절)과 "새 계명"(entole kainos, 34절).
- 유다가 나간 직후 "영광"(doxa)이 31-32절에 다섯 번 몰린다.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 유월절 전, "끝까지 사랑", 떠나실 때를 아심.

- 컷 2 (4-11): 겉옷 벗고 발 씻기심, 베드로 문답, "다는 아니다".
- 컷 3 (12-20): 다시 앉아 "본을 보였노라", 종과 주인, 보냄받은 자.
- 컷 4 (21-30): "하나가 팔리라", 떡 조각, 유다 나감 → 밤.
- 컷 5 (31-38): "영광을 받았고", 새 계명, 베드로 부인 예고.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agape(ἀγάπη) — 사랑. 1절·34-35절. 처음과 끝을 감싼다.
- nipto(νίπτω) — (부분을) 씻다, 발을 씻다. 5·6·8·10·12·14절.
- louo(λούω) — (전신을) 목욕하다. 10절. nipto와 구별됨.
- hypodeigma(ὑπόδειγμα) — 본보기·모범. 15절 "내가 본을 보였노라".
- entole(ἐντολή) — 계명. 34절. kainos(καινός, 질적으로 새로운)와 결합 "새 계명".
- doxa / doxazo(δόξα) — 영광·영광을 받다. 31-32절에 다섯 번 집중(유다 나간 직후).
- teknia(τεκνία) — 어린 자녀들. 33절. 요한복음에 여기만.
- deipnon(δεῖπνον) — 저녁 식사. 2·4절.

6 — (2) 문학 구조

- 전반(1-20, 씻기심과 풀이)과 후반(21-38, 배신·새 계명·부인)의 두 묶음.
- 행위(4-11) → 풀이(12-20)의 순서. 행하신 뒤 "아느냐" 물으심(12절).
- 가장 어두운 "밤"(30절) 바로 다음에 "영광"(31절)이 터지는 인접 배치.
- 베드로의 수미 — 거절(8절)과 부인 예고(38절)가 장의 양 끝을 잡는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손님 발 씻김은 통상 종의 일. 선생이 직접 행하는 역할의 뒤집힘이 무대에 깔림. 배경으로만 기록.
- "유월절 전"(1절)이라는 시점 표기 — 식사가 유월절 만찬인지 그 전인지는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 10절 "발 외에는"의 사본 차이는 본문비평 사안. 관찰에서는 "사본에 따라 다름"까지만.
- "서로 사랑하라"는 레위기 19:18에 이미 있음 — "새"의 기준은 "내가 사랑한 것 같이"(34절)에 둬. 인물의 진술로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 13:34 ↔ 레 19:18 ("서로 사랑하라"의 옛 뿌리)
- 요 13:34-35 ↔ 요 15:12-13 (새 계명의 반복·확장)
- 요 13:38 ↔ 요 18:27 (부인 예고와 그 성취)
- 요 13:18 ↔ 시 41:9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 요 13:23 ↔ 요 21:20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재등장)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유월절 전 저녁, 떠나실 때를 아신 분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식사 중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베드로가 막다가 다시 과하게 청한다. 다 씻기신 뒤 앉아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 주라" 하신다. 그러다 마음이 괴로워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고, 떡 조각을 유다

에게 주며 "속히 하라" 하신다. 유다가 나가니 밤이다. 그 직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시며 새 계명을 주신다 —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끝으로 베드로가 목숨을 걸겠다 하나,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겉옷을 벗으신 저녁 — 씻김과 새 계명"
- 초벌 부제: "씻김에서 새 계명으로, 사랑에서 약함의 예고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발 씻김 관행·사본 차이·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유다의 발도 씻기셨는지는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 추정하지 않고 보류.
- "새 계명"의 "새"가 무엇인지 단정하지 않고, 34절의 기준 진술까지만 기록.
- "지금 영광을 받았고"(31절)의 "지금"의 시점은 위치만 기록, 해석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13장은 떠나심을 아신 분이 대야 앞에 무릎 꿇어, 씻김과 배신과 새 계명을 한 저녁에 겹쳐 놓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1절)로 열린다. 선생님이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행위를 "본"(15절)으로 푸신다. 그러나 같은 식탁에서 배신이 흘러, 유다가 나가니 밤이다(30절). 가장 어두

운 그 자리 다음에 "영광"(31절)이 터지고, 새 계명이 주어진다 —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34절). 끝은 베드로의 부인 예고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유월절 전 저녁 식사 자리. 소품 = 겹옷·수건·대야·물·떡 한 조각. 시간 표지 = "유월절 전"(1절)·"밤"(30절).
2 첫 느낌·분위기	식사 자리이나 작별의 공기. 앞(씻기심)과 뒤(배신)의 결 변화. 사랑이 처음과 끝을 감쌌다.
3 시작과 끝	시작 — "끝까지 사랑하시니라"(1절). 끝 —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38절). 사랑으로 열려 약함의 예고로 닫힘.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제자 / 베드로 / 유다 / 사랑받는 제자. 두 축 = "본"(15절)과 "새 계명"(34절). 유다 나간 직후 "영광" 다섯 번.
5 장면 컷	컷 1 사랑의 선언(1-3). 컷 2 발 씻기심(4-11). 컷 3 본 풀이(12-20). 컷 4 배신·밤(21-30). 컷 5 영광·새 계명·부인 예고(31-38).
6 의문·발견·정보	유다의 발 씻김 여부. nipto/louo 구별. "새 계명"의 "새". 어둠(30)과 영광(31)의 인접. teknia(33).
7 동영상	대야 앞 무릎 → 본 풀이 → 배신·밤 → "영광" → 새 계명 → 부인 예고로 흐르는 한 동영상.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겹옷을 벗으신 저녁 — 씻김과 새 계명". 부제 — "씻김에서 새 계명으로, 사랑에서 약함의 예고로".
9 동영상 안 건가·기도	식사 자리와 대야 곁을 걸으며 무릎 꿇으신 손 앞에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역할의 뒤집힘:** 종의 일을 선생님이 직접 하신다. 겹옷을 벗고 무릎을 꿇는 그 자세가, 떠나심을 앞둔 사랑의 형태로 무대에 박힌다.
- 결 2 — 어둠 옆의 영광:** 유다가 나가니 밤이다(30절). 가장 어두운 한 단어 바로 다음에 "영광"(31절)이 다섯 번 몰린다. 본문은 둘을 인접시켜 둔다.
- 결 3 — 옛 계명의 새로움:** "서로 사랑하라"는 옛 말씀(레 19:18)이나, "내가 사랑한 것 같이"(34절)가 그 기준을 새로 댈다. 옛것이 한 사람의 사랑으로 새로워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요 15:12-13** (새 계명의 반복·확장), **요 18:27** (부인 예고의 성취), **요 21:20** (사랑받는 제자의 재등장).
- 다른 권 — **레 19:18** ("서로 사랑하라"의 옛 뿌리), **시 41:9**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13:18 인용).
- 정경 흐름 — 13장은 요한복음 고별 담화(13-17장)의 문을 연다. 씻김과 새 계명이 그 입구에 놓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유월절 전 저녁, 작별을 아신 분 곁에 한 사람이 앉는다.
- **멈춤 1:** 선생님이 무릎 꿇어 발을 씻기시는 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하나가 나를 팔리라"와 떡 조각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유다가 나가 밤이 된 자리에서 멈춘다.
- **끝:** 새 계명을 받으며 *씻김과 사랑이 한 저녁에 있다*는 걸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떠나심을 아시면서도 무릎 꿇으신 분*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떠나심을 아신 분이 끝까지 사랑하신다(1절)
- [x] 겹옷을 벗고 발을 씻기시며 역할이 뒤집힌다
- [x] 그 행위를 "본"으로 푸신다(15절)
- [x] 배신이 흘러 유다가 나가니 밤이다(30절)
- [x] 어둠 다음에 "영광"이 온다(31절)
- [x] 새 계명이 사랑의 기준을 새로 댄다(34절)
- [x] 끝은 베드로의 부인 예고다(38절)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복음의 운동은 "태초(로고스)에서 성육신을 지나 영적·우주적 완성으로" 흐른다. 마가가 권능의 메시아를, 마태가 천국의 왕을, 누가가 내면에 임하는 인격적 통치를 비춘다면, 요한은 온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과 최종 복음을 비춘다. 13장은 이 호(arc)에서 **고별 담화(13~17장)의 문을 여는 자리**다. 군중에게 숨으신 분(12:36)이 이제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여시며, 요한 좌표의 핵심인 '친밀함'이 가장 짙어진다 — "끝까지 사랑하시니라"(1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34절)의 새 계명은 5대 대명령 척추에서 **사랑(Love)** 명령(마 22 "마음·목숨·뜻 다해")을 한 공동체의 내부 질서로 입히는 자리이며, 곧 제자(Disciple) 명령으로 번질 씨앗이다("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 태초의 사랑이 한 대야와 한 새 계명으로 제자들에게 흘러드는 — 그 좌표에 13장이 선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끝까지 사랑(eis telos, 1절)→서로 사랑(새 계명, 34절) / 가장 높은 자리→가장 낮은 발치(겹옷을 벗으심, 4절) / 가장 어두운 밤(30절)→영광(31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받은 사랑에서 흘러보내는 사랑으로 미는 운동이다. "끝까지 사랑"(1절) → 겹옷을 벗고 발을 씻기심(4-5절) → "본을 보였노라"(15절) → "하나가 팔리라"(21절) → 유다가 나가니 밤(30절) →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31절) → 새 계명(34절) → 부인 예고(38절). 정지된 한 만찬의 사진이 아니라, 한 분의 섬김이 한 공동체의 명령으로 번지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대야·수건·씻기는 발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역할의 뒤집힘'으로 드러나는 **통치의 모양**이다.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일인데 가장 높은 분이 겹옷을 벗고 그 자리로 내려가신다(4절). nipto(부분을 씻음)와 louo(전신을 씻음)의 구별(10절)은 이미 씻은 자에게도 매일 발을 씻을 자리가 있음을 가리킨다. 더 깊이는, 그 씻김이 배신할 유다의 발에까지 닿았을 자리 — 끝까지의 사랑이 배신자조차 품는다. 빙산의 수면 위는 한 저녁의 세족이지만, 아래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사랑으로 다스리는 통치의 본(hypodeigma)**이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34절) — 받은 그 사랑을 자(尺)로 삼아 흘려보내는 운동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대야 앞에 무릎 꿇으신 분의 발치와, 곧 부인할 베드로의 자리 사이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사랑의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길.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떠나심을 앞둔 밤의 근심이 위로로 —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13:33-36)는 작별이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14:6, 예고 에이미)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14:1)와 보혜사(paraklētos)의 약속으로 카메라가 옮겨간다.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13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유다의 발도 씻기셨는가?

- 본문은 "다는 아니니라"(10-11절)고만 하고, 유다를 따로 뺐다는 말은 없음.
- 씻김의 범위는 답하지 않고 보존.

Q2. nipto와 louo의 구별은 무엇을 보려는가?

-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온전히 깨끗하다"(10절)의 두 씻음.
- 구별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어휘 위치만 보존.

Q3. "새 계명"의 "새"(kainos)는 무엇이 새로운가?

- "서로 사랑하라"는 레 19:18에 이미 있음. 본문은 "내가 사랑한 것 같이"로 기준을 댐.
- "새"의 내용은 묵상으로 이월.

Q4. 가장 어두운 "밤"(30절) 다음의 "영광"(31절)은 어떻게 함께인가?

- 유다가 나간 직후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 어둠과 영광의 인접은 위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5. 베드로의 거절(8절)과 부인 예고(38절) 사이의 거리는?

- 같은 인물이 양 끝에서 다르게 선다.
- 그 거리의 의미는 답하지 않고 보존.

Q6. 33절 "작은 자들아"(teknia)는 왜 여기 한 번인가?

- 요한복음에 여기만 나오는 따뜻한 호칭이 떠나심을 앞둔 자리에 놓임.
- 호칭의 까닭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 14장

JHN-014 · 복음서 · 헬라어

근심하지 말라는 말로 열린다. 길과 거처와 보혜사가, 떠나심을 앞둔 마음을 향해 놓인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1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13장에서 이어진 같은 저녁 식사 자리. 31절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전까지 한 자리에서 담화가 이어진다.
- 물리적 소품은 거의 없고 거의 말(言)로 차 있다. 대신 "아버지 집의 거할 곳(mone)"(2절)·"처소 예비"(2-3절)의 공간 이미지가 배경으로 선다.
- 시간 배경 = 떠나심을 앞둔 "그 밤"(13장에서 이어짐).
- 반복 소재 = "계명"(15·21절), "평안"(27절), "아버지"(거의 매 단락).
- parakletos(보혜사), allos(또 다른, 16절)의 어휘가 새로 등장. 배경 자료로만 기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근심하지 말라"(1절)와 "평안을 끼치노라"(27절)가 위로의 목소리로 처음·끝을 묶음.
- 위로 아래 떠나심("내가 가서")이 깔려 있다. 13장 부인 예고 직후의 결.
- 제자들의 질문(도마·빌립·유다)이 담화를 끊고 들어와 다음 단락을 연다.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tarasso) — 마음을 가라앉히는 말.
- 27절: 같은 말이 돌아옴 —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 31절: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 자리를 뜨는 동작으로 닫힘. 마음에서 몸으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주 화자) / 도마(5절) / 빌립(8절) / 가룟인 아닌 유다(22절).
- 질문은 모두 "모름"에서 나옴 — 도마(길을 모름), 빌립(아버지를 보여 달라).
- 빌립 물음에 "오래 함께 있었는데 알지 못하느냐"(9절)는 아쉬움의 결.
- 사상 세 갈래: 길·진리·생명과 아버지께 감(6절) / 아버지-아들 상호 내재(10-11절) / 보혜사 약속(16-17·26절).
- 사랑과 계명의 묶음 —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15·21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근심하지 말라", 거할 곳, 처소 예비.
- 컷 2 (5-11): 도마 물음 → "길·진리·생명", 빌립 물음 →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 컷 3 (12-17): 더 큰 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또 다른 보혜사".
- 컷 4 (18-24): 고아로 두지 않음, 유다 물음, 사랑·지킴·함께 거함.
- 컷 5 (25-31): 성령이 가르침, "평안을 끼치노라", "일어나라 떠나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ego eimi(ἐγώ εἰμι) — 내가 ~이다.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 hodos / aletheia / zoe(ὁδός/ἀλήθεια/ζωή) — 길·진리·생명. 6절에 나란히.
- parakletos(παράκλητος) — 보혜사·곁에 부름받은 돕는 이. 16·26절.
- allos(ἄλλος) — 또 다른(같은 종류의 또 하나). 16절 "또 다른 보혜사".
- mone(μονή) — 거처·머무는 곳. 2절 "거할 곳", 23절 "거처를 그와 함께".
- eirene(εἰρήνη) — 평안. 27절 "평안을 끼치노라, 내 평안을 주노라".
- entole(ἐντολή) — 계명. 15·21절. 사랑과 묶임.
- tarasso(ταράσσω) — 흔들리다·요동하다(근심하다). 1·27절 수미.

6 — (2) 문학 구조

- "근심하지 말라"(1절)와 같은 말(27절)의 수미가 장을 감싼다.
- 제자 질문(도마 5, 빌립 8, 유다 22)이 담화의 경첩으로, 각각 다음 단락을 연다.
- 보혜사 약속이 두 번(16-17, 26절) 나누어 놓이고, 사이에 "함께 거함"(23절)이 온다.
- "내 평안"(27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견주어 출처를 갈라 둔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parakletos는 "곁에 부름받은 자"로, 법정의 변호사·돕는 이의 곁이 있는 단어. 본문이 "진리의 영"·"성령"으로 풀어 줌(17·26절). 배경으로만 기록.
- 13장에서 이어진 한 자리의 담화 — 14장 끝(31절)에 떠남 동작이 오나, 실제 이동은 18장에 가서야 묘사됨. 본문 순서만 기록.
- "세상의 임금"(30절)은 요 12:31, 16:11에도 등장하는 표현. 어휘 분포만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 14:16 ↔ 요 15:26, 16:7 (보혜사의 거듭된 약속)
- 요 14:6 ↔ 요 10:9 ("문"·"길"의 자기 진술 계열)
- 요 14:9 ↔ 요 1:18 ("아버지를 본 자"·"나타내심")
- 요 14:13-14 ↔ 요 15:7, 16:23-24 ("내 이름으로 구하라")
- 요 14:30 ↔ 요 12:31, 16:11 ("세상의 임금")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같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씀이 이어진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아버지 집의 거할 곳과 처소를 예비하러 감을 말씀하신다. 도마가 길을 묻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 달라 하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신다. 이어 "더 큰 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리니 곧 진리의 영"을 말씀하신다. 고아로 두지 않겠다 하시고,

유다의 물음에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아버지와 내가 와서 거하리라" 하신다. 끝으로 "성령이 가르치고 생 각나게 하리라" 하시며 "평안을 끼치노라, 내 평안을 주노라" 하시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로 달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내가 곧 길ियो — 근심을 향한 저녁"
- 초벌 부제: "근심에서 길로, 길에서 보혜사로, 보혜사에서 평안으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parakletos 배경·담화 구조·교차 참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또 다른 보혜사"의 "또 다른"이 무엇과의 견줄인지 단정하지 않고 위치만 기록.
-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9절)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28절)의 병치는 어휘 위치만 기록, 관계 는 보류.
- "세상의 임금"(30절)은 교차 어휘로만 두고 해석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14장은 떠나심을 앞둔 분이 근심하는 마음을 향해 길과 거처와 보혜사와 평안을 차례로 놓 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근심하지 말라"(1절)로 열린다. 아버지 집의 거할 곳을 말씀하시고, 도마의 물음에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6절), 빌립의 물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9절)로 답하신다. 이어 "또 다른

보혜사"(16절)를 약속하시고, "평안을 끼치노라"(27절)로 위로의 수미를 담은 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31절)로 자리를 뜨신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13장에서 이어진 같은 저녁 자리. 소품 대신 "거할 곳"(mone)·"처소 예비"의 공간 이미지. 반복 소재 = 계명·평안·아버지.
2 첫 느낌·분위기	"근심하지 말라"(1)와 "평안"(27)이 위로로 처음·끝을 묶음. 위로 아래 떠나심이 깔림. 질문이 끼어듦.
3 시작과 끝	시작 — "근심하지 말라"(1절). 같은 말이 27절에 돌아옴. 끝 — "일어나라 떠나자"(31절). 마음에서 몸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도마 / 빌립 / 유다. 질문은 모두 "모름". 세 사상 = 길·진리·생명, 상호 내재, 보혜사 약속.
5 장면 컷	컷 1 거할 곳(1-4). 컷 2 길·아버지(5-11). 컷 3 보혜사(12-17). 컷 4 함께 거함(18-24). 컷 5 평안·떠남(25-31).
6 의문·발견·정보	"거할 곳". "또 다른"의 견증. 9절과 28절의 병치. "더 큰 일". "세상 것과 다른 평안". "세상 임금"(30).
7 동영상	근심을 가라앉힘 → 길·아버지 → 보혜사 → 함께 거함 → 평안 → 일어나 떠남으로 흐르는 한 동영상.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내가 곧 길ियो — 근심을 향한 저녁". 부제 — "근심에서 길로, 길에서 보혜사로, 보혜사에서 평안으로".
9 동영상 안 건가·기도	저녁 자리를 걸으며 "근심하지 말라"는 말 앞에 흔들리는 마음을 둔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위로가 감싼 선언:** "근심하지 말라"(1절)와 "평안"(27절)이 장을 감싸고, 그 안쪽에 "내가 곧 길"(6절)·"보혜사"(16절) 같은 가장 단정적인 선언이 박힌다. 위로와 선언이 한 호흡에 있다.
- 결 2 — 질문이 여는 담화:** 도마·빌립·유다의 물음이 경첩이 되어 다음 단락을 연다. 본문은 "모름"의 질문을 지운 채가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 다음 말씀을 흐르게 한다.
- 결 3 — 마음에서 몸으로:** 시작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말(tarasso 멈춤)이고, 끝은 "일어나라 떠나자"의 동작이다. 위로가 정지에 머물지 않고 일어섬으로 옮겨 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요 15:26, 16:7 (보혜사의 거듭된 약속), 요 10:9 ("문"."길"의 자기 진술 계열), 요 16:23-24 ("내 이름으로 구하라").
- 다른 권 — 고별 담화의 위로는 정경 전체의 "성령" 약속과 마주 본다(행 2장의 오심으로 이어지는 결, 어휘만).
- 정경 흐름 — 14장은 고별 담화(13-17장)의 첫 큰 단락. 13장의 새 계명 다음에 길·보혜사·평안이 놓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떠나심을 앞둔 저녁, 흔들리는 마음 곁에 한 사람이 앉는다.
- 멈춤 1: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6절)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9절)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또 다른 보혜사"(16절)와 "함께 거함"(23절) 앞에서 멈춘다.
- **끝:** "평안을 끼치노라"(27절)를 받으며 *위로가 일어섬으로 옮겨 간다*는 걸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근심하는 마음을 향해 길을 여시는 분*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근심하지 말라"가 장을 연다(1절)
- [x] 아버지 집의 거할 곳을 말씀하신다(2절)
- [x]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 도마의 물음에 답한다(6절)
- [x]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가 빌립에게 답한다(9절)
- [x] "또 다른 보혜사"가 약속된다(16절)
- [x] "세상 것과 다른 평안"이 주어진다(27절)
- [x] 끝은 "일어나라 떠나자"의 동작이다(31절)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복음의 운동은 "태초(로고스)에서 성육신을 지나 영적·우주적 완성으로" 흐른다. 마가가 권능의 메시아를, 마태가 천국의 왕을, 누가가 내면에 임하는 인격적 통치를 비춘다면, 요한은 온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과 최종 복음을 비춘다. 14장은 이 호(arc)에서 요한 좌표의 핵심인 '아버지와 친밀함'이 가장 짙어지고, 그 친밀함이 보혜사로 모든 신자에게 확장될 길이 열리는 자리다.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6절, 예고 에이미)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못 박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9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10절)는 서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1:1)의 그 함께 계심을 다시 운다. 동시에 "또 다른 보혜사"(parakletos, 16절)의 약속은 성육신하신 분의 임재가 떠난 뒤에도 **성령으로 모든 신자 안에 거함**으로 확장됨을 비추니, 이는 곧 사도행전(성령·교회·열방)으로 변질 다리다. 친밀함이 보혜사를 통해 우주적으로 번지는 — 그 좌표에 14장이 선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심(tarasso, 1절)→평안(eirēnē, 27절) / 떠남("내가 가노라")→더 가까운 함께 거함(monai·보혜사) / "내가 곧 길"(예고 에이미, 6절)→아버지께로.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근심에서 평안으로, 떠남에서 임재로 미는 운동이다. "근심하지 말라"(1절) → 거할 곳이 많은 집(2절) →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6절) →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9절) → "또 다른 보혜사"(16절) → "와서 거하리라"(23절) → "평안을 끼치노라"(27절) →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31절). 정지된 한 위로의 사진이 아니라, 흔들리던 마음이 길과 보혜사를 거쳐 평안으로 가라앉고 끝내 일어나 떠나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장면은 거의 말(言)뿐인 고별 담화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떠남이 더 깊은 함께 거함으로 뒤집힘'이다. "거할 곳"(monai, 2절),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와서 거하리라"(23절),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히 함께 있게"(16절)가 한 결로 이어진다. 걸을 떠나는 분이 곁에 부름받은 자(parakletos)를 보내, 육신의 걸을 떠남이 도리어 영원한 내주(內住)로 깊어진다. 그래서 평안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

계"(27절) — 상황이 가라앉아서가 아니라 함께 거하심에서 온다. 빙산의 수면 위는 작별의 위로지만, 아래는 아버지·아들·보혜사가 신자 안에 거하는 친밀한 임재의 통치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게"(27절) 주시는 평안 — 상황이 아니라 함께 거하심에서 오는 그 평안이, 떠나심을 앞둔 밤 같은 자리에서도 내 안에 깃드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흔들리는 마음의 자리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 사이에 나란히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그 평안의 운동의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거함.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와서 거하리라"(14:23)는 거함이 한 나무로 — "일어나 떠나자"(14:31) 한 뒤,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15:1-4, 예고 에이미)로, 함께 거함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열매 맺는 생명의 연합으로 카메라가 옮겨간다.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14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떠나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거할 곳이 많도다"(2절)의 거처는 어디인가?

- 본문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mone)이 많다"고만 함. 23절엔 "거처를 그와 함께"로 다시 나옴.
- 거처의 장소는 답하지 않고 보존.

Q2. "또 다른 보혜사"(16절)의 "또 다른"은 무엇과의 견증인가?

- allos(같은 종류의 또 하나)가 무엇을 잇는지 본문은 덧붙이지 않음.
- 견증의 대상은 답하지 않고 어휘만 보존.

Q3.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9절)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28절)은 어떻게 함께인가?

- 두 진술이 한 장 안에 놓임.
- 관계는 위치만 기록, 해석은 보류.

Q4. "더 큰 일"(12절)은 무엇인가?

- "나를 믿는 자는 더 큰 일도 하리라"의 "더 큰"의 내용을 본문은 풀지 않음.
- 답하지 않고 보존.

Q5.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27절)의 차이는?

- 같은 단어 "평안"(eirene)을 두 출처로 갈라 둠.
- 차이의 내용은 묵상으로 이월.

Q6.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31절) 뒤에도 담화가 이어지는 까닭은?

- 떠남을 말씀하나 15-17장 담화가 이어짐. 본문 순서만 관찰됨.

- 순서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 15장

JHN-015 · 복음서 · 헬라어

한 그루 포도나무가 무대 전체를 덮는다. 거함과 열매와 사랑이, 세상의 미움과 한 장에 놓인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1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장소 묘사는 거의 없음(14:31 "떠나자" 다음). 무대 전체가 "참포도나무" 하나로 덮임.
- 소품 = 나무(ampelos)·가지(klema)·열매(karpos)·농부(아버지). 가지치기·정결의 농사 이미지(2-3절).
- 시간 배경 = 14장에서 이어진 같은 밤.
- 전반 소재 = "거하다"(meno, 4-10절 몰림)·사랑·친구. 후반 소재 = "세상"(kosmos)·"미움"(miseo, 18-25절).
- 2절 kathairo(깨끗하게 하다)와 3절 katharos(깨끗하다)의 어휘 연결. 배경 자료로만 기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전반(1-17)은 포도나무 한 그루 안의 따뜻한 결, "거하라" 반복. 후반(18-)은 "미움"으로 차가워짐.
- 14장과 달리 질문 없이 한 호흡으로 흐름. 비유 → 사랑 → 미움의 세 결.
- "친구"(15절)의 따뜻함과 "목숨을 버린다"(13절)의 목직함이 함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ego eimi) — 나무의 자기 진술.
-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martyreo) — 제자들의 증언.
- 거함(안)으로 열려 증언(밖)으로 닫힌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대화 거의 없음. 예수 한 분이 말하고 제자들은 듣는 자리. 비유 인물 = 농부(아버지)·나무(나)·가지(너희).
- 호칭의 변화 — 가지 → "종이 아닌 친구"(15절).
- 사상 중심 = 거함·계명·사랑의 엮임("내 사랑 안에 거하라", 9-10절).
- 사랑의 크기를 목숨으로 잴 —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13절).
- 후반 사상 = 세상의 미움. 미움의 차례가 나 → 너희로 이어짐(18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참포도나무", 농부, 가지치기·정결, "내 안에 거하라".
- 컷 2 (5-11): 가지의 열매, 떠나면 못함, 구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기쁨.
- 컷 3 (12-17):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한 목숨, 종이 아닌 친구, 택하여 세움.

- 컷 4 (18-25): 세상의 미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함, 까닭 없는 미움.
- 컷 5 (26-27): 보혜사가 증언, 너희도 증언함.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ego eimi(ἐγώ εἰμι) — 내가 ~이다. 1·5절 "나는 (참)포도나무".
- ampelos(ἄμπελος) — 포도나무. 1·4·5절. alethinos(참된)와 결합(1절).
- meno(μένω) — 거하다·머물다. 4·5·6·7·9·10절 등 몰림. 장을 묶는 동사.
- klema(κλήμα) / karpos(καρπός) — 가지 / 열매. 2·4·5·6·8·16절.
- agape / agapao(ἀγάπη) — 사랑. 9·10·12·13·17절. "서로 사랑하라".
- philos(φίλος) — 친구. 13·14·15절. "종이 아닌 친구".
- kosmos(κόσμος) — 세상. 18·19절 등. 후반의 무대.
- miseo(μισέω) — 미워하다. 18·19·23·24·25절 반복.

6 — (2) 문학 구조

- 전반(1-17, 포도나무·사랑)과 후반(18-27, 세상·증언)의 두 묶음.
- 전반 안에 "거하라"(meno)가 골격으로 반복되며 열매·사랑·기쁨으로 번짐.
- "서로 사랑하라"(12·17절)가 전반 단락을 수미로 감쌌.
- 후반은 "미움"(miseo)이 골격. 끝(26-27)에서 보혜사·제자의 증언으로 전환.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포도나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이미지로 자주 쓰임(시 80편, 사 5장 포도원 등). "참"(alethinos)포도나무는 그 배경 위 어휘일 수 있으나 관찰에서는 어휘 대비만 기록.
- 25절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를 인용하는 형식. 시 35:19, 69:4의 "까닭 없이 미워함"과 어휘가 닮음. 인용 형식만 기록.
- "종이 아닌 친구"(15절)의 호칭 변화 — 본문 자체의 진술로 기록, 사회사 추정은 보류.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 15:12-13 ↔ 요 13:34 (새 계명의 반복·확장)
- 요 15:1 ↔ 시 80편, 사 5:1-7 (포도나무·포도원 이미지)
- 요 15:26 ↔ 요 14:16-17, 16:7 (보혜사의 거듭된 약속)
- 요 15:25 ↔ 시 35:19, 69:4 ("까닭 없이 미워함")
- 요 15:7 ↔ 요 14:13-14, 16:23-24 ("구하라"의 약속 계열)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며 나무 한 그루를 무대에 세운다.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제거하고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더 맺게 하신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하면 이루고 열매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까닭 없이 미워하였다." 끝으로 보혜사가 와서 증언하고, 제자들도 처음부터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나는 참포도나무 — 거하라"
- 초벌 부제: "거함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세상의 미움과 증언으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포도나무 이미지·인용 형식·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제거된 가지"(2·6절)의 무게는 비유 어휘로만 두고 신학적 단정은 보류.
- "참포도나무"의 구약 배경은 어휘 대비까지만, 알레고리 확정은 하지 않음.
- 전반(거함)과 후반(미움)의 결합 까닭은 어휘 분포만 기록, 해석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15장은 한 그루 포도나무 안의 거함이 사랑으로, 다시 세상의 미움과 증언으로 흐르는 것이다.

한 문단: 본문은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1절)로 무대를 한 그루 나무로 덮는다. "내 안에 거하라"(meno)가 골격으로 반복되며 열매·사랑·기쁨으로 번지고, "서로 사랑하라"·"친구를 위한 목숨"(12-13절)으로 사랑의 크기가 매겨진다. 그러다 공기가 바뀌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18절)으로 흐르고, 끝은 보혜사와 제자의 증언(26-27절)으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무대 전체가 "참포도나무"(1절) 하나로 덮임. 소품 = 나무·가지·열매·농부. 전반 소재 = 거함(meno), 후반 소재 = 세상·미움.
2 첫 느낌·분위기	전반은 포도나무 안의 따뜻함("거하라" 반복), 후반은 "미움"으로 차가워짐. 질문 없이 한 호흡.
3 시작과 끝	시작 — "나는 참포도나무"(1절). 끝 — "증언하느니라"(27절). 거함(안)으로 열려 증언(밖)으로 닫힘.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가 홀로 말함. 비유 인물 = 농부·나무·가지. 호칭 변화(종→친구, 15절). 사상 = 거함·사랑·목숨, 후반 = 세상의 미움.
5 장면 컷	컷 1 참포도나무(1-4). 컷 2 열매·사랑·기쁨(5-11). 컷 3 친구·택함(12-17). 컷 4 세상의 미움(18-25). 컷 5 증언(26-27).
6 의문·발견·정보	"거하다" 반복. "제거된 가지". "종 아닌 친구". "택함"과 명령. 사랑/미움의 결합. "까닭 없이"(25, 인용).
7 동영상	포도나무 안 거함 → 열매·사랑 → 친구·택함 → 세상의 미움 → 증언으로 흐르는 한 동영상.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나는 참포도나무 — 거하라". 부제 — "거함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세상의 미움과 증언으로".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포도나무 곁을 걸으며 "내 안에 거하라"는 말 앞에 떠도는 마음을 둔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한 그루가 덮은 무대:** "참포도나무"(1절) 하나가 장 전체의 무대가 된다. 농부·가지·열매가 그 안에서 움직이고, "거하다"(meno)가 그 호흡이 된다.
- 결 2 — 사랑의 크기와 호칭:** 사랑이 "친구를 위한 목숨"(13절)으로 재어지고, 호칭이 "종"에서 "친구"(15절)로 바뀐다. 거함이 사랑으로, 사랑이 관계의 이름을 바꾼다.
- 결 3 — 안과 밖:** 전반은 나무 안의 거함, 후반은 세상 밖의 미움이다. 본문은 둘을 한 장에 이어 두고, 끝에서 보혜사·제자의 증언으로 안에서 밖으로 옮긴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요 13:34 (새 계명의 반복·확장), 요 14:16-17, 16:7 (보혜사의 거듭된 약속), 요 14:13-14 ("구하라"의 약속 계열).
- 다른 권 — 시 80편, 사 5:1-7 (포도나무·포도원 이미지), 시 35:19, 69:4 ("까닭 없이 미워함", 25절 인용).
- 정경 흐름 — 15장은 고별 담화(13-17장)의 한복판. 13장 새 계명과 14장 보혜사 약속이 여기서 한 비유로 묶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그루 포도나무 곁에 한 사람이 가지로 선다.
- 멈춤 1: "내 안에 거하라"(4절)는 반복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13절)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18절)의 차가움 앞에서 멈춘다.
- 끝: 증언의 자리에 서며 *거함이 사랑으로, 사랑이 증언으로 흐른다*는 곁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한 그루 나무로 무대를 덮으신 분*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나는 참포도나무"가 무대를 덮는다(1절)
- [x] "거하라"가 장의 호흡으로 반복된다(4-10절)
- [x] 거함이 열매·기쁨으로 번진다(5·11절)
- [x] 사랑이 "친구를 위한 목숨"으로 재어진다(13절)
- [x] 호칭이 종에서 친구로 바뀐다(15절)
- [x] 공기가 "세상의 미움"으로 바뀐다(18절)
- [x] 끝은 보혜사·제자의 증언이다(26-27절)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복음의 운동은 "태초(로고스)에서 성육신을 지나 영적·우주적 완성으로" 흐른다. 통치 영역은 권능의 증명도 내면도 아닌, **아버지와**의 친밀함이다. 15장은 그 친밀함이 한 비유로 응결되는 자리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1절)의 ego eimi는 요한복음 일곱 자기선언의 마지막 결을 이루며, 아버지·아들·가지(제자)를 한 그루 생명 안에 잇는다. 종에서 친구로의 호칭 전환(15절)은 옛 언약의 거리(종)가 새 언약의 친밀(친구)로 옮겨감을 본문 자체로 보여 준다. 구속사 척추로 보면 이 장은 "**사랑(마 22)**"의 명령에 닿는다 — "서로 사랑하라"(12·17절)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13절)으로 재어진다. 5대 대명령의 사랑이 한 나무 비유 안에서 살로 구체화되는 좌표에 15장이 선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안의 거함(meno)→밖의 증언 / 종→친구.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머뭇에서 번짐으로 미는 운동이다. "내 안에 거하라"(4절)의 안쪽 → 열매·기쁨(5·11절) → "친구를 위한 목숨"의 사랑(13절) →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18절)의 바깥 → 보혜사와 제자의 증언(26-27절). 정지된 농사 그림이 아니라, 안에 붙어 있음이 밖을 향한 증언으로 흘러 나가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그림은 포도나무·가지·열매·농부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을 통해 **가지에게로 흐르는 친밀한 연합**이다. mena(거하라)의 반복은 도덕적 노력의 요구가 아니라, 수액이 가지로 흐르듯 생명이 전해지는 연결을 가리킨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5절)는 그 의존의 깊이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였음이라"(15절)는 그 친밀의 전면성을 드러낸다. 빙산의 수면 위는 농사 비유지만, 아래는 종의 거리가 친구의 친밀로 바뀌고, 사람 전체가 한 생명 안으로 접붙여지는 연합이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열매도 사랑도 증언도, 무언가를 더 하는 데서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한 가지에 붙어 있음에서 흘러나오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한 그루 나무의 가지 자리에 세운다. 더 맺으려 애쓰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붙어 있는 자리로 — 그 머무름의 곳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보혜사.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친구로 부르신 그분이 떠남을 예고하신다 — 거함의 안방에서, 보혜사가 오시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며 "세상을 이기었노라"가 울리는 16장으로.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15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거하다"(meno)의 반복은 무엇을 보려는가?

- 4-10절에 몰려 나오며 장을 묶는 동사.
- 반복의 무게는 답하지 않고 어휘 위치만 보존.

Q2. "제거된 가지"(2·6절)의 무게는?

-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제거",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마름".
- 비유 어휘로만 두고 해석은 묵상으로 이월.

Q3. "종이 아닌 친구"(15절)의 호칭 변화는 무엇인가?

-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친구라 한 것은 다 알게 하였음이라".
- 호칭 변화의 내용은 답하지 않고 보존.

Q4. "택하여 세움"(16절)과 "거하라"는 명령은 어떻게 함께인가?

-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와 거함의 명령이 한 장에 있음.
- 관계는 위치만 기록, 해석 보류.

Q5. 전반의 "사랑"과 후반의 "미움"은 왜 한 장인가?

- 거함·사랑(1-17)과 세상의 미움(18-25)이 이어 놓임.
- 결합의 까닭은 어휘 분포만 보존.

Q6. "까닭 없이 미워하였다"(25절)의 "까닭 없이"는?

-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를 인용하는 형식(시 35:19, 69:4 어휘).
- 인용의 내용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 16장

JHN-016 · 복음서 · 헬라어

떠남이 유익이라 하신다. 보혜사와 잠시 후의 기쁨과 이김이, 근심하는 저녁에 놓인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1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14-15장에서 이어진 같은 밤의 담화. 장소 변화 없이 거의 말씀으로 차 있음.
- 두 그림이 무대를 세움 — "회당 출교"(2절)의 제도 배경과 "해산하는 여인"(21절)의 비유 이미지.
- 시간 표지 두 절 — "때가 이르면"(2·4·25·32절)의 미래와 "조금 있으면"(mikron, 16절)의 가까운 잠시.
- 마지막 절에 "환난"(thlipsis)과 "이기었노라"(nikao)가 한 절에 동거(33절).
- 말하는 방식이 소재로 언급됨 — "비유"와 "밝히"(parresia, 25·29절). 배경 자료로만 기록.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부분은 박해 예고로 무겁다가(2절), 뒤로 "기쁨"으로 바뀜.
- "떠남이 유익이라"(7절)의 의외성. "조금 있으면"의 반복(16-19절).
- "근심"(lype)과 "기쁨"(chara)이 짝처럼 오감. 마지막 "이기었노라"(33절)가 큰 마침표.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skandalizo) — 보호의 말.
-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nikao) — 이김의 선언.
- 33절 앞머리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 14장의 평안과 호응. 넘어지지 않게로 열려 이김으로 닫힘.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주 화자) / 제자들(16-18절 수군거림, 29-30절 고백).
- 고백(29-30) 직후 "다 흠어지리라"(32절)가 바로 붙음.
- 앞 축 = 보혜사 — 죄·의·심판의 책망(8-11절), 진리로 인도(13절), 내 영광을 나타냄(14절).
- 뒤 축 = "잠시 후"의 슬픔과 기쁨 —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20절), 해산 비유(21절).
- 8절 "책망"(elegcho)은 "깨닫게 하다·드러내다"의 결. 죄·의·심판에 쓰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실족하지 않게, 출교·박해 예고, "때가 이르면".
- 컷 2 (5-15): "떠남이 유익", 보혜사 오심, 죄·의·심판 책망, 진리로 인도.
- 컷 3 (16-22): "조금 있으면", 수군거림, 해산하는 여인, 근심이 기쁨으로.
- 컷 4 (23-28): 내 이름으로 구하라, 비유에서 밝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 컷 5 (29-33): 제자 고백, 흠어짐 예고, 평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parakletos(παράκλητος) — 보혜사. 7절. 14-15장에서 이어짐.
- elegcho(ἐλέγχω) — 책망하다·깨닫게 하다·드러내다. 8절. 죄·의·심판에 쓰임.
- mikron(μικρόν) — 조금·잠시. 16-19절에 반복. "조금 있으면".
- lype(λύπη) / chara(χαρά) — 근심 / 기쁨. 20-22·24절. 짝으로 오감.
- parresia(παρρησία) — 드러내어·밝히. 25·29절. "비유"와 대비.
- thlipsis(θλίψις) — 환난. 33절.
- nikao(νικάω) — 이기다. 33절(완료형). "세상을 이기었노라".
- eirene(εἰρήνη) — 평안. 33절. 14:27과 호응.

6 — (2) 문학 구조

- 전반(1-15, 보혜사·책망)과 후반(16-33, 잠시 후·기쁨·이김)의 두 묶음.
- 8절의 "죄·의·심판" 셋이 9-11절에서 각각 스스로 풀림(본문 내 해설 구조).
- "조금 있으면"(16절)의 반복과 제자 수군거림(17-18절)이 컷 3의 경첩.
- "실족"(1절)과 "이기었노라"(33절)의 수미. 그 사이에 "근심→기쁨"의 전환이 놓임.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출교"(2절)는 회당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가리키는 제도 배경. 본문이 박해의 형태로 언급. 배경으로만 기록.
-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21절)는 고통→기쁨의 전환을 보이는 일반 이미지. 알레고리 확정은 보류.
- 8절 "죄·의·심판"의 셋은 본문 자체가 9-11절에서 풀어 줌 — 외부 해석 없이 본문 내 설명만 기록.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 16:7 ↔ 요 14:16-17, 15:26 (보혜사의 거듭된 약속)
- 요 16:24 ↔ 요 14:13-14, 15:7 ("내 이름으로 구하라")
- 요 16:33 ↔ 요 14:27 ("평안"의 호응)
- 요 16:32 ↔ 요 8:29 ("아버지가 함께 계심")
- 요 16:21 ↔ 사 26:17, 66:7-14 (해산하는 여인의 이미지)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같은 밤의 담화가 이어진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며 출교와 박해의 때를 일러 주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보내리라." 보혜사가 와서 죄·의·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진리로 인도하신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제자들이 수군거리자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로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하신다. "그 날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비유로 말하였으나 밝히 이르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제자들이 믿음을 고백하자, "다 흠어질 때가 오나 나는 혼자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하시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로 달한다.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별 제목: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 떠남과 보혜사"
- 초별 부제: "보혜사에서 잠시 후로, 잠시 후에서 이김으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출교 배경·본문 내 해설 구조·교차 참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별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조금 있으면"(mikron)의 정확한 길이는 숫자로 단정하지 않고 위치만 기록.
- 해산 비유(21절)는 고통→기쁨 이미지로만 두고 알레고리 확정 보류.
- "혼자 / 함께 계심"(32절)의 병치는 어휘 위치만 기록, 해석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16장은 떠남이 유익이라 하신 분이 보혜사와 잠시 후의 기쁨을 거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의 이김으로 달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1절)는 보호의 말로 열린다. "떠남이 유익이라"(7절) 하시며 보혜사의 오심과 죄·의·심판의 책망(8-11절)을 말씀하시고, "조금 있으면"(16절)의 잠시와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로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20-21절)를 푸신다. 끝은 흠어짐의 예고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33절)로 닫힌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14-15장에서 이어진 같은 밤. 두 그림 = "회당 출교"(2절)·"해산하는 여인"(21절). 시간 표지 = "때가 이르면"·"조금 있으면".
2 첫 느낌·분위기	박해 예고로 무겁다 "기쁨"으로 바뀐다. "떠남이 유익"의 의외성. 근심/기쁨이 짝으로 오감. 끝의 "이기었노라".
3 시작과 끝	시작 - "실족하지 않게"(1절). 끝 - "이기었노라"(33절). 33절 앞 "평안"이 14장과 호응.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 / 제자들(수군거림·고백). 앞 축 = 보혜사·책망(죄·의·심판). 뒤 축 = 잠시 후의 근심·기쁨.
5 장면 컷	컷 1 박해 예고(1-4). 컷 2 보혜사·책망(5-15). 컷 3 잠시 후·해산 비유(16-22). 컷 4 구하라·밝힘(23-28). 컷 5 고백·이김(29-33).
6 의문·발견·정보	"떠남이 유익". "조금 있으면". 죄·의·심판의 자가 해설(9-11). "근심→기쁨". 혼자/함께(32). 완료형 "이기었노라"(33).
7 동영상	실족 막음 → 떠남·보혜사·책망 → 잠시 후·기쁨 → 구하라·밝힘 → 흠여짐·이김으로 흐르는 한 동영상.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 떠남과 보혜사". 부제 - "보혜사에서 잠시 후로, 잠시 후에서 이김으로".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마지막 저녁의 담화 걸을 걸으며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는 말 앞에 오늘의 근심을 둔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떠남과 오심:** "떠남이 유익이라"(7절)가 보혜사 오심의 까닭으로 묶인다. 떠남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오심의 문이 된다는 결을 본문이 한 문장에 둔다.
- 결 2 - 근심이 변하여 기쁨:** 해산하는 여인(21절)처럼,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바뀐다(20절). 본문은 고통을 지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돌려세운다.
- 결 3 - 환난 옆의 이김:** 마지막 한 절(33절)에 "환난"과 "담대하라"와 "이기었노라"가 함께 놓인다. 어둠을 부인하지 않은 채 이김이 완료형으로 선언된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요 14:16-17, 15:26 (보혜사의 거듭된 약속), 요 14:27 ("평안"의 호응, 33절), 요 14:13-14, 15:7 ("내 이름으로 구하라").
- 다른 권 - 사 26:17, 66:7-14 (해산하는 여인의 이미지, 21절).
- 정경 흐름 - 16장은 고별 담화(13-17장)의 마지막 큰 단락. 13장 새 계명·14장 길·15장 포도나무 다음에 보혜사와 이김으로 달고, 17장 기도로 넘어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떠나심을 앞둔 저녁, 넘어질까 두려운 한 사람이 앉는다.
- 멈춤 1: "떠남이 유익이라"(7절)는 의외의 말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조금 있으면"(16절)의 잠시와 해산 비유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20절) 앞에서 멈춘다.

- **끝:**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33절)를 받으며 *환난과 이김이 한 절에 있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근심을 기쁨으로 돌려세우시는 분*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실족하지 않게"가 장을 연다(1절)
- [x] "떠남이 유익이라"가 보혜사 오심과 묶인다(7절)
- [x] 보혜사가 죄·의·심판을 책망한다(8-11절)
- [x] "조금 있으면"의 잠시가 반복된다(16절)
- [x] 해산 비유로 근심이 기쁨이 된다(20-21절)
- [x] 비유에서 밝힘으로 옮겨 간다(25절)
- [x] 끝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이다(33절)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복음의 운동은 "태초(로고스)에서 성육신을 지나 영적·우주적 완성으로" 흐른다. 통치 영역은 **아버지와 의 친밀함**이다. 16장은 그 친밀함이 떠남을 거쳐 더 깊은 임재로 옮겨가는 자리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7절)는, 몸으로 곁에 계심이 보혜사(parakletos)로 안에 계심으로 전환됨을 알린다 — 이는 누가-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으로 폭발할 운동의 요한복음적 예고다. 구속사 호로 보면 이 장은 **성육신에서 완성으로 가는 경첩**에 선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33절, nenikeka, 완료형)는 십자가 이전에 발화되었으나 이미 완료태로, 요한복음 특유의 '이미 완성된 우주적 승리'를 한 어절에 담는다. 우주적 완성의 좌표가 한 저녁 담화 안에서 미리 선언되는 자리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떠남(유익)→보혜사의 오심→"세상을 이기었노라"(33절) / 근심→기쁨.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빈자리에서 채움으로 미는 운동이다. 떠남의 예고(7절) → 보혜사의 오심과 일하심(8-15절) → 잠시 후의 근심(20절) → 해산의 기쁨(21절) → 이김의 선언(33절). 정지된 작별 장면이 아니라, 떠남이 도리어 더 깊은 임재와 이김으로 흘러가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작별·근심·약속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곁에 계심에서 안에 계심으로 옮겨가는 임재의 내면화**다. 보혜사(parakletos)는 "곁에 부르심을 받은 이"로, 떠나심이 상실의 아니라 더 가까운 거함임을 드러낸다.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21절)는 그 아래의 결을 잡아 준다 — 진통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번역된다. 빙산의 수면 위는 한 저녁의 작별이지만, 아래는 외적 동행이 내적 임재로 깊어지고, 환난 한가운데서도 평안이 흐르는 통치의 내면화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환난 한가운데서의 담대함,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어 두신 분"께 붙어 있음에서 오는
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두 '잠시 후' 사이, 근심과 기쁨이 맞닿는 자리에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이미 이긴 분의 평안 곁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이김.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제자들을 향하던 말씀이 마침내 아버지께로 향한다 — "세상을 이기었노라"의 담대함이, 눈을 들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로 기도가 되는 17장으로.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16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ק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떠남이 유익이라"(7절)는 어떻게 유익인가?

-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어요"로 떠남과 오심이 묶임.
- 유익의 내용은 답하지 않고 보존.

Q2. "조금 있으면"(mikron, 16절)은 언제인가?

- 제자들도 "무슨 말씀이나" 수군거림. 본문은 길이를 숫자로 말하지 않음.
- 때의 길이는 답하지 않고 어휘 위치만 보존.

Q3. 보혜사가 책망하는 "죄·의·심판"(8절)의 셋은 어떻게 묶이는가?

- 9-11절에서 각각 풀리나, 셋의 관계는 본문이 따로 잇지 않음.
- 셋의 묶임은 묵상으로 이월.

Q4.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20절)는 어떤 전환인가?

-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바뀐다 함. 해산 비유로 그림만 줌.
- 전환의 곁은 답하지 않고 보존.

Q5. 고백(29-30절) 직후 "다 흩어지리라"(32절)는 왜 바로 붙는가?

- 믿음의 고백과 흩어짐의 예고가 인접.
- 인접의 까닭은 위치만 기록, 해석 보류.

Q6.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33절)의 완료형은 무엇을 보는가?

- nikao가 완료형(이미 이룬 곁)으로, 환난을 말한 바로 다음에 옴.
- 완료의 시점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 17장

JHN-017 · 복음서 · 헬라어

눈을 들어 아버지를 부르신 한 사람의 기도. 자기와 제자들과 믿을 자들을 두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로 흐른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1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본문 안에 장소 표시가 없다. 무대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1절)라는 자세와 음성으로만 세워진다.
- 앞 14-16장의 고별 담화 끝에 붙고, 18:1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로 이어진다 — 나가시기 직전의 기도. 방의 묘사는 없음(배경 정보).
- 소품·움직임이 거의 없다. 빈 무대를 반복 어휘가 채운다 — "영광", "이름", "세상", "하나".
- 한 장 전체가 기도(아버지를 향한 호칭 + 아뢰)로 구성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앞 장들과 청중이 바뀐다 — 제자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사건·이동 없이 부르심과 아뢰만 이어짐.
- 6인 다수가 기도의 대상이 자기(1-5) → 제자(6-19) → 믿을 자(20-26)로 넓어지는 동심원을 공유.
- "때가 이르렀다"(1절)가 차분하나 마지막을 향한 어조로 깔림.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 영광으로 열림.
- 26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 사랑·"안에 있음"으로 닫힘.
- 위를 향한 영광에서 시작해 사람 안으로 내려와 닫힌다. 시작엔 "아들"만, 끝엔 "그들"이 있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말하는 이: 예수 한 분. 부르는 대상: "아버지". 기도 대상: "그들"(제자, 6-19) / "그들의 말로 믿는 사람들"(20절).
- 12절 "멸망의 자식" — 이름 없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듯한 표현, 본문이 "성경을 응하게 함"으로 설명.
-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의 반복(2·6·9·24절) — 사상의 중심이 "관계".
-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 "안다"(ginosko)가 정의의 동사.
- 두 겹의 "보냄"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18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5): 눈을 들어 부르심, 서로 영화롭게 하심, 3절 영생의 정의, 5절 "창세 전의 영화".

- 컷 2 (6-19): 결의 제자들 — 이름 나타냄(6), 세상에 속하지 않음(14·16), 악에서 보전(15), 진리로 거룩(17), 보냄(18).
- 컷 3 (20-26): 믿을 자들 — "다 하나가 되어"(21), 주신 영광(22),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23), 함께 있어 영광 보기(24), 사랑이 그들 안에(26).
- 컷마다 기도 대상이 한 칸씩 넓어짐 — 자기 → 제자 → 믿을 자.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doxa / doxazo(δόξα/δοξάζω) — 영광·영화롭게 하다. 1·4·5·10·22·24절.
- hora(ώρα) — 때·시간. 1절 "때가 이르렀사오니".
- zoe aionios(ζωὴ αἰώνιος) — 영생. 2·3절.
- ginosko(γινώσκω) — 알다(관계로 앎). 3·7·8·23·25절.
- onoma(ὄνομα) — 이름. 6·11·12·26절 "아버지의 이름".
- tereo(τηρέω) — 지키다·보전하다. 11·12·15절.
- hen(ἓν) — 하나. 11·21·22·23절.
- kosmos(κόσμος) — 세상. 한 장에 10여 회 반복.
- hagiozo(ἀγιάζω) — 거룩하게 하다. 17·19절.
- apostello(ἀποστέλλω) — 보내다. 3·8·18·21·23·25절.

6 — (2) 문학 구조

- 세 동심원 구조: 자기(1-5) → 제자(6-19) → 믿을 자(20-26).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장.
- "영광"의 수미 — 1절 "영화롭게"로 열리고 24절 "내 영광을 그들로 보게"로 다시 모임.
- "하나" 단락의 사슬 — 11절(제자) → 21·22·23절(믿을 자), 하나 됨이 "믿게/알게"와 이어짐.
- "세상" kosmos의 양가성 — 보냄의 대상이자(18절) 속하지 않음의 자리(14·16절).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장 전체가 기도 형식 — 전통적으로 14-16장 고별 담화의 마무리로 한 단위로 읽힌다. 본문 안 근거는 청중·어조의 전환(1절). 배경으로만 기록.
- 1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는 당시 기도 자세의 한 결(고개를 든 기도). 묘사는 본문이 직접 제공.
- 5절 "창세 전" 표현은 요 1:1 "태초에"와 결이 닿음 — 교차로만 표시, 해석은 보류.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 17:5 ↔ 요 1:1 (시간 이전 / 태초에)
- 요 17:3 ↔ 요 3:16 (영생·아는 것 / 믿는 것)
- 요 17:12 ↔ 요 6:39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않음)
- 요 17:18 ↔ 요 20:21 (보내신 것같이 보냄)
- 요 17:24 ↔ 요 14:3 (함께 있게 / 내 있는 곳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긴 고별 말씀 끝에, 한 사람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른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영화롭게 하시기를 구하고, 영생은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 아뢰며, 창세 전의 영화를 다시 청한다. 그다음 시선이 결의 제자들로 옮겨,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아뢴다. 데려가기를 구하지 않고 악에서 보전하시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그리고 보내신 것같이 자기도 그들을 보낸다고 한다. 끝으로 시야가 더 넓어져 "그들의 말로 믿는 사람들"까지 품고, 다 하나가 되기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기를, 함께 있어 영광 보기를 구하며, "사랑이 그들 안에"로 기도가 닫힌다.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별 제목: "눈을 들어 —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 초별 부제: "영광으로 열려, 사랑으로 닫히는 세 동심원의 기도"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10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기도 형식·기도 자세·세 동심원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3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별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3절 "영생은 곧 ... 아는 것"이 지식 정의로 굳지 않도록 → ginosko(관계로 앎)의 결만 표시, 신학 명제로 확정하지 않음.
- 21·23절 "하나 됨"을 특정 교리로 환원하지 않음 → "하나"가 나오는 자리와 그 뒤의 "믿게/알게"만 기록.
- 12절 "멸망의 자식"은 본문이 "성경을 응하게 함"으로 설명하는 부분 — 인물 지목은 보류.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17장은 한 사람이 눈을 들어 자기·제자·믿을 자를 차례로 품으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로 흐르는 기도다.

한 문단: 긴 고별 말씀 끝에, 본문은 사건과 이동을 멈추고 한 기도 안으로 들어간다. "때가 이르렀사오니"(1절)로 영광을 구하며 열리고, 시선은 자기에서 결의 제자로, 다시 아직 없는 사람들로 한 칸씩 넓어진다. 그 동심원의 끝은 "사랑이 그들 안에"(26절)로 닫힌다. 위를 향한 영광에서 시작해 사람 안으로 내려와 멈춘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장소 표시 없음. 무대 =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1절)의 자세와 음성. 빈 무대를 "영광·이름·세상·하나"가 채움.
2 첫 느낌·분위기	청중이 제자에서 아버지로 전환. 사건 없이 부르심·아뢰만. 대상이 자기→제자→믿을 자로 넓어지는 동심원.
3 시작과 끝	시작 —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1절). 끝 — "사랑이 그들 안에"(26절). 영광으로 열려 사랑으로 닫힘.
4 등장인물·상황·사상	말하는 이 = 예수, 부름 = 아버지, 대상 = 제자·믿을 자. "주신 자"의 반복. 3절 영생=아는 것. 두 겹의 보냄(18절).
5 장면 컷	컷 1 자기 위한 기도(1-5). 컷 2 제자 위한 기도(6-19). 컷 3 믿을 자 위한 기도(20-26).
6 의문·발견·정보	눈을 든 자세. 3인칭 "예수 그리스도"(3절). 세상에 두되 지킴(15절). "하나"와 "믿게/알게"의 연결. kosmos의 양가성.
7 동영상	눈을 든 한 사람 → 자기 → 제자 → 믿을 자로 동심원이 넓어지며 사랑으로 닫히는 한 기도.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 "눈을 들어 —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부제 — "영광으로 열려, 사랑으로 닫히는 세 동심원의 기도".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눈을 든 음성 곁에 머물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안에 내 이름이 있는지 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넓어지는 동심원:** 기도는 자기(1-5)에서 시작해 제자(6-19)로, 다시 믿을 자(20-26)로 넓어진다. 한 사람의 기도가 아직 없는 사람들까지 품는다.
- 결 2 — 영광과 사랑의 두 끝:** 1절 "영화롭게"로 열려 26절 "사랑이 그들 안에"로 닫힌다. 위를 향한 첫 절과 사람 안으로 내려온 마지막 절이 마주 본다.
- 결 3 — "하나"의 사슬:** hen(하나)이 11·21·22·23절에 놓이고, 그 하나 됨이 세상의 "믿게/알게"와 이어진다. 본문은 "하나"를 안으로만 두지 않는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요 1:1** (창세 전·태초에, 17:5), **요 6:39**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않음, 17:12), **요 14:3** (함께 있게, 17:24).

- 같은 권 안 — 요 20:21 ("보내신 것같이 나도 보내노라", 17:18).
- 정경 흐름 — 17:3 "영생은 ... 아는 것"은 요 3:16의 "믿는 자마다 영생"과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긴 말씀 끝에 한 사람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른다.
- 멈춤 1: "영생은 곧 ... 아는 것"이라는 한 정의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세상에 두되 보전하시기를"(15절)의 두 방향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21절)가 아직 없는 사람들까지 품는 지점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기도가 자기에서 사람들에게로 넓어졌다*는 결을 손에 쥘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눈을 들어 부르시는 음성 결*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한 장 전체가 눈을 든 한 기도다
- [x] 1절 "영화롭게"로 열린다
- [x] 대상이 자기→제자→믿을 자로 넓어진다
- [x] "주신 자"가 반복된다
- [x] "하나"가 "믿게/알게"와 이어진다
- [x] 세상에 두되 지키시기를 구한다(15절)
- [x] 끝은 "사랑이 그들 안에"이다(26절)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복음의 운동은 "태초(로고스)에서 성육신을 지나 영적·우주적 완성으로" 흐른다. 통치 영역은 아버지와 의 친밀함이며, 17장은 그 친밀함이 가장 깊이 열리는 절정이다. 이 대체사장적 기도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5절)로 태초를 되짚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21절)로 완성을 내다본다 — 요한복음의 태초→완성 호 전체가 한 기도 안에 응결된다. 구속사 척추로 보면 이 장은 "사랑(마 22)"이 "하나됨"으로, 그 하나됨이 "세상이 믿게 하려 함"(21절)이라는 제자·열방의 보냄(마 28)으로 이어지는 경첩이다. "영생은 곧... 아는 것"(3절)이라는 본문 자체의 정의는, 통치가 외적 정복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는 사귄임을 못박는다. 우주적 완성이 한 사람의 기도, 곧 친밀한 앎과 연합으로 정의되는 좌표에 17장이 선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버지여"(친밀)→자기·제자·믿을 자(동심원의 확장)→"하나 되게 하옵소서"(21절, 연합).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한 분의 친밀에서 온 교회의 연합으로 미는 운동이다. 눈을 들어 "아버지여"(1절) → 자기를 위한 기도(1-5절) → 제자들을 위한 기도(6-19절) → 믿을 자들을 위한 기도(20-26절). 정지된 독백이 아니라, 두 분의 사랑이 점점 넓은 동심원으로 퍼져 끝내 "세상이 믿게 하려 함"(21절)으로 바깥을 향하는 한 운동이다.

I·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장면은 한 사람이 눈을 들어 드리는 기도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나누던 친밀이 사람에게로 열리는 사건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이다"(22절). "아는 것"(ginosko, 3절)은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 사귄이며, "하나"(hen, 21절)는 조직의 일치가 아니라 아버지·아들의 연합을 본으로 삼는 생명의 연합이다. 빙산의 수면 위는 한 기도지만, 아래는 창세 전의 사랑(5절)이 한 사람의 무의식·욕망까지 들여 안는 전면적 연합으로 번지는 통치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이 연합이 내가 쌓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안으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의 기도에 들어지는 것임이 만져지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20절)이라는 그 기도의 대상 자리에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두 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지는 그 자리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때.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위를 향하던 기도가 끝나자, 카메라가 동산으로 내려간다 — "하나 되게 하옵소서"의 친밀이, 등불과 무기를 든 무리 앞에서 "내가 그니라"(ego eimi)로 마주 서는 18장으로.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17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가?

- 본문은 자세를 명시하나(1절) 까닭은 말하지 않음.
- 위를 향한 기도의 결만 관찰로 남기고, 의미 추정은 묵상으로 이월.

Q2. 3절에서 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 3인칭으로 부르는가?

- 기도 안에서 자기 이름을 3인칭으로 두는 표현의 까닭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어법만 보존하고 해석은 뒤로.

Q3.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구하지 않고 보존하기를"(15절)은 어떻게 함께인가?

- 세상에 두되 지킨다는 두 방향이 한 절에 있음.
- 두 방향의 관계는 답하지 않고 보존.

Q4. "하나 됨"(21·23절)과 "믿게/알게"의 연결은?

- 하나 됨이 세상의 믿음·앎과 이어지는 자리.
- 관찰로는 위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5. 12절 "멸망의 자식"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 이름 없이 한 사람을 가리키는 듯하고, "성경을 응하게 함"으로만 설명됨.
- 지목은 보류, 본문 설명만 보존.

Q6. "창세 전의 영화"(5절)는 무엇을 말하는가?

- 시간 이전을 가리키는 표현이 요 1:1과 결이 닿음.
- 두 본문을 나란히만 두고 해석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 18장

JHN-018 · 복음서 · 헬라어

동산에서 잡히신 분과 안뜰에서 부인하는 한 사람. 두 심문이 나란히 흐르고, "진리가 무엇이냐"는 물음이 답 없이 남는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1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이동한다 — 기드론 저편 동산(1절, kepos) → 안나스(13절) → 가야바(24절) → 관정(28절, praitorion).
- 시간 배경은 밤과 "유월절"(28·39절). 18절 "날이 추운 고로 ... 숯불을 피우고"로 계절·시간이 박힌다.
- 소품 — 등과 횃불과 무기(3절), 칼(10절), 숯불(18절). 밤의 체포 무대를 채운다.
- 인물 이름이 명시됨 — 칼을 친 "시몬 베드로", 귀가 떨어진 종 "말고"(10절). 배경으로 기록.
- "내가 그니라"(ego eimi, 5·6·8절) 반복. 6절에 그 말에 무리가 "몰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더라".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17장의 고요한 기도에서 밤의 바깥으로 장면이 나간다. 등불·무리·결박의 동사가 공기를 무겁게 함.
- 6인 다수가 장면의 잦은 이동(동산→안나스→가야바→관정)과 안·밖의 교차를 공유.
- 예수의 말수가 적되 무겁게 떨어짐("내가 그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 절기와 어둠이 배경.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 함께한 걸음.
- 40절: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 군중의 외침·다른 이름.
- 함께에서 홀로, 고요에서 외침으로 움직인다. 시작은 좁은 걸음, 끝은 큰 소리.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예수 / 유다 / 군대·아랫사람 / 베드로 / 말고 / 안나스 / 가야바 / "다른 제자" / 문 지키는 여자 / 빌라도 / 무리.
- 유다는 잡으러 온 쪽에 섬(5절 "그를 파는 유다도 ... 함께 섰더라").
- 베드로의 세 부인 — 17절(문 지키는 여자), 25절, 26-27절(말고의 친척), 끝에 "곧 닭이 울더라"(27절).
- 두 대답의 마주섬 — 예수 "내가 그니라"(ego eimi, 5절) / 베드로 "나는 아니라"(ouk eimi, 17·25절).
- 후반 사상 — "나라"(basileia,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와 "진리"(aletheia, 37-38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1): 동산, "누구를 찾느냐"→"내가 그니라"→엎드러짐, 베드로의 칼·말고, "주신 잔".

- 컷 2 (12-14): 결박, 먼저 안나스에게, 가야바 상기("한 사람이 죽는 것").
- 컷 3 (15-18): 베드로·다른 제자 따라감, 문 지키는 여자, 첫 부인, 숯불 곁.
- 컷 4 (19-24): 안나스 심문(교훈·제자), "드러내 놓고 말하였노라", 손으로 침, 가야바에게로.
- 컷 5 (25-40): 둘째·셋째 부인·닭 울음(25-27), 관정 빌라도 문답(왕·나라·진리, 28-38), 바라바(39-40).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ego eimi(ἐγώ εἰμι) — "내가 그니라"(직역 나는 ~이다). 5·6·8절.
- ouk eimi(οὐκ εἰμί) — "나는 아니라". 베드로의 부인, 17·25절.
- arneomai(ἀρνέομαι) — 부인하다. 25·27절.
- kepos(κῆπος) — 동산. 1·26절.
- praitorion(πραιτώριον) — 관정·빌라도의 처소. 28·33절.
- basileia(βασίλεια) — 나라.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 aletheia(ἀλήθεια) — 진리. 37·38절 "진리가 무엇이냐".
- machaira(μάχαιρα) — 칼. 10·11절.

6 — (2) 문학 구조

- 안과 밖의 교차 구조 — 심문(컷 2·4)을 베드로의 부인(컷 3·5 첫머리)이 감싼다.
- 두 대답의 대칭 — 예수의 ego eimi(긍정)와 베드로의 ouk eimi(부정)가 같은 어간 위에서 갈린다.
- 숯불의 수미 — 18절에 깔리고, 첫 부인(17-18)과 셋째 부인(25-27)이 그 곁에서 일어난다.
- 관정 단락(28-40)이 "왕→나라→진리"로 좁혀지다 "진리가 무엇이냐"의 답 없는 물음에서 닫힌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28절 "유월절을 먹고자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는 이방인의 처소 출입과 정결 규례의 곁. 배경으로만 기록.
-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13절 "가야바의 장인")는 본문이 직접 명시. 두 심문이 나뉘는 까닭은 보류.
- "내가 그니라" ego eimi의 무게는 요한복음의 다른 "나는 ~이다" 표현(6:35, 8:58 등)과 곁이 닿음 — 교차로만 표시, 해석은 보류.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 18:9 ↔ 요 17:12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않음)
- 요 18:11 ↔ 마 26:39 (잔 — 다른 복음서의 동산 기도)
- 요 18:5 ↔ 요 8:58 (ego eimi의 다른 자리)
- 요 18:17,25-27 ↔ 요 13:38 (닭 울기 전 세 번 부인의 예고)
- 요 18:37 ↔ 요 10:27 ("내 음성을 듣느니라")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기도를 마친 분이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으로 간다. 유다가 등불과 무기를 든 무리를 데려오고, "누구를 찾느냐"는 물음에 "내가 그니라" 하시자 그들이 물러가 옆드러진다.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치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말하며 결박되어 안나스에게로 간다. 베드로는 따라 들어가 문 지키는 여자 앞에서 "나는 아니라" 하고, 추운 밤 숯불 곁에 선다. 안나스가 교훈과 제자를 묻고, 그분은 "드러내 놓고 말하였노라" 답하시며 가야바에게로 보내진다. 밖에서 베드로는 두 번 더 부인하고 닭이 운다. 관정에서 빌라도가 "네

가 왕이냐" 묻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는 답이 나온다. "진리가 무엇이나" 묻고는 답을 듣지 않고 나가, 무리가 "바라바"를 외치며 달린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내가 그니라 — 안과 밖, 진리가 무엇이나"
- 초벌 부제: "함께에서 홀로, 고요에서 외침으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유월절 정결·안나스/가야바·안과 밖 교차)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6절 "옆드러짐"의 까닭을 신학 명제로 굳히지 않음 → 본문이 까닭을 말하지 않는 것까지만 기록.
- "내가 그니라" ego eimi를 곧장 신적 호칭으로 확정하지 않음 → 8:58 등과 나란히만 둬.
- 38절 "진리가 무엇이나"의 답 없음을 해석으로 채우지 않음 → 물음이 답 없이 남은 것까지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18장은 동산에서 잡히신 분과 안뜰에서 부인하는 한 사람이 안과 밖으로 교차하다 "진리가 무엇이나"의 답 없는 물음에 이르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고요한 기도에서 밤의 바깥으로 나간다. 동산의 "내가 그니라"(5절) 한 마디에 무리가 엎드러지고, 결박된 분이 두 심문으로 끌려가는 동안, 밖에서는 베드로가 숲불 곁에서 세 번 "나는 아니라" 한다.

안의 심문과 밖의 부인이 한 장 안에서 겹치고, 마지막 관정에서 "왕→나라→진리"로 좁혀지다 "진리가 무엇이나"가 답 없이 남는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동산(kepos, 1절) → 안나스 → 가야바 → 관정(praitorion, 28절). 밤·유월절. 소품 = 등불·칼·숫불. "내가 그니라"(ego eimi)의 반복.
2 첫 느낌·분위기	고요한 기도에서 밤의 바깥으로. 장면의 잦은 이동과 안·밖의 교차. 적은 말이 무겁게 떨어짐.
3 시작과 끝	시작 — "제자들과 함께 ... 나가시니"(1절). 끝 — "바라바라"(40절). 함께에서 홀로, 고요에서 외침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예수·유다·베드로·말고·안나스·가야바·빌라도·무리. 두 대답의 마주섬(ego eimi / ouk eimi). 나라·진리.
5 장면 컷	컷 1 동산·체포(1-11). 컷 2 결박·안나스로(12-14). 컷 3 첫 부인·숫불(15-18). 컷 4 안나스 심문(19-24). 컷 5 부인·닭·빌라도·바라바(25-40).
6 의문·발견·정보	먼저 나아가 물으심(4절). 엎드러짐(6절)의 까닭 없음. 18:9↔17:12. 숫불 곁 세 부인. 답 없는 "진리가 무엇이나".
7 동영상	동산 체포 → 안·밖 교차(심문·부인) → 관정의 "진리가 무엇이나" → "바라바"의 외침으로 흐르는 한 동영상.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내가 그니라 — 안과 밖, 진리가 무엇이나". 부제 — "함께에서 홀로, 고요에서 외침으로".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동산·안뜰·관정을 걸으며 숫불 곁 "나는 아니라"의 자리 앞에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두 대답의 마주섬:** 동산의 "내가 그니라"(ego eimi, 5절)와 안뜰의 "나는 아니라"(ouk eimi, 17:25절)가 같은 어간 위에서 긍정과 부정으로 갈린다.
- 결 2 — 안과 밖의 교차:** 안의 심문(안나스·가야바)과 밖의 부인(베드로)이 번갈아 놓여, 한 장이 두 자리를 함께 비춘다.
- 결 3 — 답 없는 물음:** 관정은 "왕→나라→진리"로 좁혀지다 "진리가 무엇이나"에서 멈춘다. 본문은 그 답을 채우지 않고 둔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요 17:12** (하나도 잃지 않음, 18:9), **요 8:58** (ego eimi의 다른 자리), **요 13:38** (닭 울기 전 세 번 부인의 예고).
- 같은 권 안 — **요 10:27** ("내 음성을 듣느니라", 18:37).
- 정경 흐름 — 18:11 "잔"은 다른 복음서의 동산 기도(마 26:39)와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기도를 마친 분이 제자들과 시내를 건너 동산으로 들어간다.
- **멈춤 1:** "내가 그니라" 한 마디에 무리가 엎드러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2:** 숯불 곁 "나는 아니라"가 세 번 되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진리가 무엇이냐"가 답 없이 나가는 지점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그나라와 아니라가 한 장에 있다*는 곁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숯불 곁의 한 사람* 옆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곁:

- [x] 동산에서 "내가 그나라"에 무리가 앞드러진다
- [x] 베드로의 칼과 "주신 잔"이 마주 선다
- [x] 안의 심문과 밖의 부인이 교차한다
- [x] 부인이 세 번, 답이 운다
- [x] 관정이 왕·나라·진리로 좁혀진다
- [x] "진리가 무엇이냐"가 답 없이 남는다
- [x] 끝은 "바라바"의 외침이다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복음의 운동은 "태초(로고스)에서 성육신을 지나 영적·우주적 완성으로" 흐르며, 18장은 그 완성이 수난의 길로 들어서는 첫 문이다. 통치 영역은 **아버지와 친밀함**이지만, 여기서는 그 친밀함이 결박과 심문 한가운데로 내려간다. 동산의 "내가 그나라"(ego eimi, 5·6·8절)는 요한복음 자기선언의 곁을 체포 장면에서 새겨, 잡히는 분이 실은 장면의 주(主)이심을 보인다 — 무리가 도리어 "땅에 앞드러지더라"(6절). 구속사 호로 보면 이 장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36절)는 선언으로, 통치가 외적 권력이 아니라 진리에 속한 다른 차원의 나라임을 못박는다. 우주적 왕이신 분이 결박당한 채 그 나라를 증언하는 좌표에 18장이 선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불잡히심 → 내어주심("아버지께서 주신 잔", 11절) / 떳떳한 증언(예수)과 세 번의 부인(베드로)이 한 밤에 교차.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체포가 자기 내어줌으로 미는 운동이다. 동산의 ego eimi(5절) → 제자들을 놓아주심(8절) → 잔을 받으심(11절) → 안나스·가야바의 심문(19-24절)과 베드로의 부인(17·25·27절)이 교차 → 빌라도 앞 "내 나라"(36절)와 "진리가 무엇이냐"(38절). 정지된 재판 기록이 아니라, 끌려가심이 도리어 능동적 내어줌으로 드러나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체포·심문·부인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불잡히심조차 주께서 이끄시는 자기 내어줌**이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8절)로 제자들을 먼저 보호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11절)로 잔을 받으신다. 두 심문의 병치는 그 아래의 곁을 드러낸다 — 한 입은 빛 가운데 떳떳이 증언하고("드러나게 세상에 말하였노라", 20절), 한 입은 숯불 곁에서 세 번 물러선다(18·25·27절). 빙산의 수면 위는 한 죄수의 재판이지만, 아래는 진리에 속한 나라가 결박 한가운데서 자기를 내어주는 통치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떨떨한 증언과 세 번의 부인이 같은 밤에 나란히 있을 때, 나는 그 숯불 곁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안뜰의 숯불 곁, 베드로가 섰던 그 자리에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두 입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보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진리.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진리가 무엇이냐"는 답 없는 물음이, 채찍과 가시관을 지나 "이 사람을 보라"로 — 결박당한 왕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로 완성되는 19장으로.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18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내가 그니라"에 왜 무리가 물러가 엎드러지는가?

- 본문은 6절에 그 일을 보고하나 까닭을 말하지 않음.
- 잡으러 온 쪽이 엎드러지는 결만 관찰로 남기고, 의미 추정은 묵상으로 이월.

Q2. 왜 먼저 안나스에게로, 그다음 가야바에게로 가는가?

- 본문은 13·24절에 두 심문을 나누나 그 순서의 까닭은 설명하지 않음.
- 두 심문의 나뉘임만 보존하고 해석은 뒤로.

Q3. 세 번의 부인이 모두 "숯불 곁"인 것은?

- 18절 숯불이 깔리고, 첫·셋째 부인이 그 곁에서 일어남.
- 장소의 겹침만 기록, 관계는 보류.

Q4. 예수의 "내가 그니라"와 베드로의 "나는 아니라"는 어떻게 마주 보는가?

- 같은 어간 위에서 긍정과 부정이 갈림(ego eimi / ouk eimi).
- 관찰로는 두 말의 위치만 기록, 관계는 보류.

Q5. 28절 "정결을 위해 관정에 들어가지 않음"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 정결을 지키려 바깥에 서 있는 장면이 본문에 명시됨.
- 대비의 까닭은 답하지 않고 보존.

Q6. "진리가 무엇이냐"(38절)에 왜 답이 없는가?

- 빌라도가 묻고는 답을 듣지 않고 나감.
- 물음이 답 없이 남는 것까지만 두고 해석은 묵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 19장

JHN-019 · 복음서 · 헬라어

"이 사람을 보라"에서 십자가까지,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한 마디. 절제된 보고가 한 죽음과 장사를 차분히 따라간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1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가 이동한다 — 관정·박석(가바다, 13절) → 골고다(해골의 곳, 17절) → 동산의 새 무덤(41절).
- 시간 배경이 또박또박 — "유월절 준비일, 제육시"(14절), "준비일 ... 큰 안식일"(31절), "준비일 ... 무덤이 가까운 고로"(42절).
- 소품 — 가시관·자색 옷(2절), 십자가(stauros, 17절), 패(titlos, 19절, 세 언어), 나뉜 옷·제비뽑은 속옷(23-24절), 신 포도주·우슬초(hyssopos, 29절), 창(34절), 몰약·침향·세마포(39-40절).
- 짧은 두 마디 — "내가 목마르다"(dipsao, 28절), "다 이루었다"(tetelestai, 30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무게 있는 장을 본문이 과장 없이 담담하게 적어 간다. 절제된 보고의 결.
- 6인 다수가 빌라도의 안·밖 동선과 전·후반의 결 나뉨(관정 실랑이 / 십자가·장사)을 공유.
- "보라"의 두 외침(5·14절), "성경을 응하게 하려"의 반복, 또박또박한 시간 표시가 인상.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 격한 동작으로 차갑게 시작.
- 42절: "예수를 거기 두니라" — 한 몸을 무덤에 두는 정지로 닫힘.
- 동작에서 멈춤으로, 소란에서 고요로. 사람 많던 무대가 두세 사람의 장사로 비어 간다.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빌라도 / 예수 / 군인들 / 대제사장·아랫사람 / 무리 / 어머니·이모·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막달라 마리아 / "사랑하시는 제자" / 아리마대 요셉 / 니고데모.
- 빌라도의 흔들림 —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의 반복(4·6절) 끝에 "넘겨 주니라"(16절).
- 십자가 결 —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 보라 네 어머니라"(26-27절), 제자가 모심.
- 사상 = "왕"(가시관·자색 옷·패·"유대인의 왕")과 "성취"(24·28·36·37절 "성경을 응하게 하려", 30절 tetelestai).
- 34-35절 — 창에 찢림, "피와 물", 그리고 본 자의 "증언"이 한 줄 박힘.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7): 채찍질·가시관·자색 옷, "이 사람을 보라"(5절), "죄를 찾지 못함", "하나님의 아들" 고발.

- 컷 2 (8-16): 빌라도의 두려움·문답, 가바다 재판석, "너희 왕을 보라"(14절), 넘겨 줌.
- 컷 3 (17-22): 골고다·십자가·두 사람, 세 언어의 패, "기록한 것을 기록하였다".
- 컷 4 (23-27): 옷 나눔·속옷 제비뽑음(성경 응함), 여인들, 어머니와 제자.
- 컷 5 (28-37): "목마르다"·신 포도주·우슬초, "다 이루었다"(30절), 뼈 안 꺾음·창에 찔림(피와 물), 두 성경 인용.
- 컷 6 (38-42): 아리마대 요셉·니고데모, 몰약·침향·세마포, 동산의 새 무덤에 둠.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idou ho anthropos(ἰδοὺ ὁ ἄνθρωπος) — "이 사람을 보라"(라틴 전통 Ecce Homo). 5절.
- tetelestai(τετέλεσται) — "다 이루었다"(완료형). 30절. 28절 "이루려고"와 같은 어간.
- dipsao(διψᾶω) — 목마르다. 28절.
- stauros(σταυρός) — 십자가. 17·19·25·31절.
- titlos(τίτλος) — 패·죄패. 19절, 세 언어로 기록(20절).
- hyssopos(ῥόσσωπος) — 우슬초. 29절.
- gabbatha(가바다, 박석/lithostroton) — 13절. / golgotha(골고다, 해골의 곳) — 17절.

6 — (2) 문학 구조

- 두 묶음 — 관정의 "왕" 실랑이(1-16)와 십자가·장사(17-42).
- "보라"의 대칭 — "이 사람을 보라"(5절)와 "너희 왕을 보라"(14절)가 전반을 감싼다.
- "성경을 응하게 하려"의 사슬 — 옷 제비뽑기(24) → 목마름(28) → 뼈 안 꺾음(36) → 찢은 자 봄(37).
- 시간 표지의 반복 — "준비일"(14·31·42절)이 전·중·후에 놓여 하루의 흐름을 잡는다.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패가 "히브리·로마·헬라" 세 언어로 적힘(20절)은 당시 공용 언어 환경의 결. 배경으로만 기록.
- "안식일에 시체를 두지 않으려" 다리를 꺾어 내리려 함(31절)은 신 21:22-23 등 매장 규례의 결. 본문은 "큰 날"이라 함.
- 몰약·침향 "백 리트라"와 세마포(39-40절)는 당시 장례 관행의 결. 본문이 분량을 명시.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 19:24 ↔ 시 22:18 (옷을 나누고 제비뽑음)
- 요 19:28-29 ↔ 시 69:21 (목마름·신 포도주)
- 요 19:36 ↔ 출 12:46 / 시 34:20 (뼈를 꺾지 아니함)
- 요 19:37 ↔ 속 12:10 (그 찢은 자를 보리라)
- 요 19:30 ↔ 요 4:34 / 17:4 (아버지의 일을 이룸)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빌라도가 채찍질하게 하고, 군인들이 가시관과 자색 옷을 입힌다. "이 사람을 보라" 하나 대제사장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친다. 빌라도가 두려워 다시 묻고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답을 듣는다. 가바다 재판석에서 "너희 왕을 보라" 하나, 무리의 외침에 넘겨준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옆에 두 사람이 함께 달리며, "유대인의 왕"이라 적힌 패가 세 언어로 붙는다. 군인들이 옷을 나누고 속옷은 제비뽑는다. 어머니와

제자를 서로에게 맡기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신 포도주를 우슬초에 적셔 댄다. "다 이루었다" 하시며 머리를 숙여 영혼이 떠나간다. 다리는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고, 본 자가 증언한다. 저물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세마포로 싸 동산의 새 무덤에 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이 사람을 보라 — 다 이루었다"
- 초벌 부제: "동작에서 멈춤으로, 소란에서 고요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이상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세 언어 패·매장 규례·장례 관행)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6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수난 장면을 선정적으로 키우지 않음 → 본문이 보고하는 사실(채찍질·창·피와 물)만 절제하여 기록.
- 30절 "다 이루었다"의 "다"의 목적어를 채우지 않음 → 본문이 한 단어로만 말하는 것까지만 보존.
- 34절 "피와 물"의 까닭을 신학·생리 명제로 굳히지 않음 → 보고와 증언(35절)까지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19장은 "이 사람을 보라"에서 십자가와 "다 이루었다"를 지나 동산의 새 무덤에 조용히 두는 데서 멈추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무게 있는 사건을 과장 없이 담담하게 적어 간다. 관정의 "왕" 실랑이(1-16)에서 빌라도는 안과 밖을 오가며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를 거듭하다 넘겨준다. 골고다의 십자가(17-37)에서 옷이 나뉘고, 어

머니와 제자가 맡겨지고, "다 이루었다"(30절)는 한 마디 뒤에 창에 찢림과 증언이 따른다. 끝은 동산의 새 무덤(38-42)에 "거기 두니라"는 정지다. 사람 많던 무대가 두세 사람의 장사로 비어 간다.

B· 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가바다(13절) → 골고다(17절) → 동산의 새 무덤(41절). 시간 = 준비일·제육시. 소품 = 가시관·패(세 언어)·창·세마포. tetelestai 한 단어.
2 첫 느낌·분위기	무게 있는 장을 본문이 담담하게 보고. 빌라도의 안·밖 동선. "보라"의 두 외침, 또박또박한 시간 표시.
3 시작과 끝	시작 — "채찍질하더라"(1절). 끝 — "거기 두니라"(42절). 동작에서 멈춤으로, 소란에서 고요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빌라도·예수·군인·무리·여인들·제자·요셉·니고데모. "왕"의 반복과 "성취"의 어휘. 34-35절 증언.
5 장면 컷	컷 1 채찍질·이 사람을 보라(1-7). 컷 2 가바다·넘겨 줌(8-16). 컷 3 골고다·패(17-22). 컷 4 옷·어머니(23-27). 컷 5 목마름·다 이루었다·창(28-37). 컷 6 장사(38-42).
6 의문·발견·정보	두 "보라"의 마주섬. "위"의 미설명(11절). "성경을 응하게 하려"의 네 표지. "다"의 목적어 없음. "피와 물"의 까닭 없음.
7 동영상	이 사람을 보라 → 가바다 넘겨 줌 → 골고다 십자가 → 옷·어머니 → 다 이루었다·창 → 동산 무덤으로 흐르는 한 동영상.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이 사람을 보라 — 다 이루었다". 부제 — "동작에서 멈춤으로, 소란에서 고요로".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관정·골고다·동산을 걸으며 "다 이루었다" 앞에 말을 잃고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두 번의 "보라"**: "이 사람을 보라"(5절)와 "너희 왕을 보라"(14절)가 전반을 감싼다. 사람과 왕이 같은 동사로 두 번 가리켜진다.
- 결 2 — "성취"의 사슬**: 후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를 옷 제비뽑기·목마름·뼈 안 꺾음·찌른 자 봄에 거듭 짚고, 그 가운데 "다 이루었다"(30절)가 놓인다.
- 결 3 — 비어 가는 무대**: 시작의 채찍질과 외침에서, 끝의 "거기 두니라"는 정지로 무대가 비어 간다. 본문은 그 비움을 담담히 따라간다.

D· 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요 4:34 / 17:4 (아버지의 일을 이름, 19:30), 요 18장 (관정·빌라도의 앞 장면으로 이어짐).
- 다른 권 — 시 22:18 (옷을 나눔, 19:24), 시 69:21 (목마름, 19:28), 출 12:46/시 34:20 (뼈 안 꺾음, 19:36), 속 12:10 (찌른 자를 봄, 19:37).
- 정경 흐름 — 19:41 "동산의 새 무덤"은 20장 부활 아침의 무대로 곧장 이어진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관정에서 채찍질과 가시관의 자리 앞에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이 사람을 보라"는 외침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어머니와 제자가 서로에게 맡겨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멈춤 3:** "다 이루었다"는 한 마디 앞에서 말을 잃고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일어나며 *동산의 새 무덤에 조용히 두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말을 잃고 머무는 자리*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이 사람을 보라"와 "너희 왕을 보라"가 마주 선다
- [x] 패가 세 언어로 적힌다
- [x] 옷이 나뉘고 속옷은 제비뽑힌다
- [x] 어머니와 제자가 서로에게 맡겨진다
- [x] "다 이루었다"는 한 마디가 후반의 중심에 놓인다
- [x] 창에 찔려 피와 물이 나오고 증언이 붙는다
- [x] 끝은 동산의 새 무덤에 "거기 두니라"이다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복음의 운동은 "태초(로고스)에서 성육신을 지나 영적·우주적 완성으로" 흐르며, 19장은 그 **완성의 절정**이다. "다 이루었다"(tetelestai, 30절)는 완료형으로, 1장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향해 온 도착점을 한 어절에 매듭짓는다 — 요한복음 전체의 태초→완성 호가 여기서 닫힌다. 구속사 호로 보면 이 장은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양("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36절; 출 12장·시 34장의 결)과 잇닿아, 한 죽음이 옛 언약의 그림자들을 성취하는 자리임을 본문 인용으로 가리킨다. 우주적 완성이 외적 정복이 아니라 한 십자가의 완료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 요한복음 좌표의 정점에 19장이 선다. 본문은 이 죽음을 절제된 보고로 따라가며, 해석을 더하지 않고 사실만 차분히 기록한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이 사람을 보라"(5절, 조롱의 전시)→"다 이루었다"(30절, tetelestai, 완성의 선언) / 십자가→새 무덤(고요한 장사).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전시에서 완성으로 미는 운동이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5절) → 십자가의 패(19절) → 어머니와 제자를 이으심(26-27절) → "다 이루었다"(30절) → 피와 물(34절) → 새 무덤(41절). 정지된 처형 기록이 아니라, 조롱하듯 내어 보인 한 사람이 끝내 완성을 선언하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채찍·가시관·십자가·장사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모든 것이 완료되어 그 상태로 머무는 완성**이다. tetelestai(30절)의 완료형은 "끝장"이 아니라 "이루어져 있음"을 가리킨다.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와 제자를 새 가족으로 이으심(26-27절)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흘지 않고 잇는 결을 드러낸다. 찔린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34절)을 본문은 목격의 증언으로 담담히 기록한다. 빙산의 수면 위는 한 처형이지만, 아래는 태초부터 향해 온 일이 한 어절에서 완료되는 우주적 완성이다.

J·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다 이루었다" 앞에서, 내가 더 채워야 할 빈자리가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그 상태로 있는 한 마디 앞에 말을 잃고 머물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십자가 아래, "보라 이 사람이로다"가 들리던 그 자리에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완료된 한 마디 앞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새 무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다 이루었다"로 봉인된 새 무덤(41절)이, 첫날 새벽 옮겨진 돌로 열린다 — 완성의 침묵이 "랍오니"와 "평강"의 부활 아침으로 번지는 20장으로.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19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목상·사꺾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이 사람을 보라"(5절)와 "너희 왕을 보라"(14절)는 어떻게 마주 보는가?

- 같은 "보라"가 사람과 왕을 두고 두 번 외쳐짐.
- 두 외침의 마주섬만 관찰로 남기고, 의미 추정은 목상으로 이월.

Q2. 11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의 "위"는 무엇인가?

- 본문은 "위"를 더 풀지 않음.
- 표현만 보존하고 해석은 뒤로.

Q3. "다 이루었다"(30절)의 "다"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 본문은 한 단어(tetelestai)로만 말하고 목적어를 풀지 않음.
- "성취" 표지들 가운데 놓인 위치만 기록, 내용은 보류.

Q4. 34절 "피와 물"은 왜 둘 다 나왔다고 적는가?

- 본문은 그 일을 보고하고 35절에 "증언"을 붙이나 까닭은 말하지 않음.
- 보고와 증언까지만 두고 까닭은 보류.

Q5. 왜 시간 표지(준비일·제육시·큰 안식일)를 또박또박 적는가?

- 14·31·42절에 시간이 거듭 명시됨.
- 시간 표시의 반복만 기록, 의도는 보류.

Q6.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왜 이 마지막 자리에 함께 나오는가?

- 두 사람이 몰약·침향과 세마포로 장사를 맡음(38-40절).
- 두 인물의 등장 자리만 보존하고 해석은 목상에서 다시.

이 질문들은 목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 20장

JHN-020 · 복음서 · 헬라어

옮겨진 돌에서 시작해 "랍오니"와 "평강"을 지나, 보지 않고 믿는 복과 기록의 목적으로 닫힌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2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새벽 무덤(1-18절) → 문 닫힌 방(19-25절) → 여드레 뒤 같은 방(26-29절) → 장소 없는 글쓴이의 맺음말(30-31절)로 옮겨간다.
- 시간 배경이 또렷함 —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1절), "그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19절), "여드레를 지나서"(26절).
- 소품 — 옮겨진 돌(1절), 세마포(5·6·7절), 따로 개켜진 머리 수건(7절), 손의 못 자국과 옆구리(20·25·27절).
- 닫힌 문이 두 번 명시됨(19·26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단음(19절).
- 무덤은 mnemeion(반복), "안식 후 첫날"은 직역 "안식일들의 첫째 날".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아직 어두울 때"로 시작해 점점 밝아지는 결. 6인이 어둠→밝음의 이동을 공유함.
-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세 번 반복(19·21·26절). 닫힌 문 안으로의 조용한 들어옴.
- 큰 군중 없이 작은 만남들로 분절 — 마리아 한 사람, 제자들, 도마 한 사람.
- 30-31절에서 글쓴이의 목소리로 전환되는 결이 인상으로 남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 어둠 속 한 가지 봄.
- 31절: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 믿게 하려 함이요 ...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 글 전체의 목적 선언.
- 봄(blepei, 1절)에서 믿음(pisteuō, 31절)으로 가는 폭이 처음과 끝에 걸림.
- 30절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가 한 장의 끝이자 책 전체의 단음처럼 들림.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막달라 마리아 / 베드로 /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 두 천사 / 예수 / 제자들 / 도마.
- 마리아 — 처음엔 시신을 옮긴 줄 앞(2·13절), "마리아야" 부름에 "랍오니"로 돌아섬(16절).
- 두 제자의 대비 — 다른 제자가 먼저 이르러 들여다봄(5절), 베드로가 먼저 들어감(6절), 다른 제자가 "보고 믿더라"(8절).

- 도마 — 못 자국을 보고 만져야 믿겠다 함(25절), 재회 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28절).
- 사상 — 22절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pneuma). 23절 죄 사함의 말씀.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2): 새벽 무덤, 옮겨진 돌, 마리아가 두 제자에게 알림.
- 컷 2 (3-10): 두 제자의 달음질, 세마포와 수건, "보고 믿더라", 집으로 돌아감.
- 컷 3 (11-18): 우는 마리아, 두 천사, "마리아야" — "랍오니", "내 형제들에게 가서…".
- 컷 4 (19-23): 닫힌 문, "평강이 있을지어다"(2회), 손과 옆구리, "성령을 받으라".
- 컷 5 (24-29): 도마의 불신, 여드레 뒤 재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 맺음말 (30-31): 글쓴이의 기록 목적 선언.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mnemeion(μνημεῖον) — 무덤. 1·2·3·4·6·8·11절 반복.
- Rabbouni(Ραββουνί) — 아람어 음역 "랍오니", 본문이 "선생님"(didaskale)으로 풀어 줌(16절).
- eirēnē hymin(εἰρήνη ὑμῖν) — "평강이 있을지어다". 19·21·26절 세 번.
- pneuma(πνεῦμα) — 성령·숨. 22절 "성령을 받으라"와 숨을 내쉬는 동작이 겹침.
- kyrios / theos — 28절 도마의 고백 "나의 주(kyrios)요 나의 하나님(theos)".
- pisteuō(πιστεύω) — 믿다. 8·25·27·29·31절. 봄과 믿음이 장 전체에 걸림.
- "보다"의 세 결 — blepei(5절, 들여다봄), theōrei(6절, 자세히 살핌), eiden(8절, 알아봄).

6 — (2) 문학 구조

- 네 만남의 연쇄 — 무덤의 두 제자(3-10) / 무덤 밖 마리아(11-18) / 닫힌 방의 제자들(19-23) / 도마(24-29).
-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19·21·26절에 세 번 — 두 번째 만남을 묶는 후렴.
- 봄→믿음의 어휘가 처음(1절)과 끝(31절)을 수미로 감쌌.
- 30-31절의 맺음말이 장과 책을 함께 닫는 이중 닫음.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안식 후 첫날"은 한 주의 첫날을 가리키는 시간 표현 — 본문은 절기 해석을 더하지 않음. 시간 표시로만 기록.
- "머리 수건이 딴 곳에 썼던 대로 놓여 있더라"(7절)는 무덤 안 물건의 배치 묘사 — 정황으로만 기록.
- "문들이 닫혔는데 … 가운데 서시며"(19·26절)는 본문이 보고하는 정황 — 방식의 해석은 보류.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 20:16 ↔ 요 10:3 ("양은 그의 음성을 안다" — 이름 부름·알아봄)
- 요 20:22 ↔ 창 2:7 (숨을 내쉬·생기를 불어넣음, 어휘 결만)
- 요 20:31 ↔ 요 1:4, 요 5:24 (믿음·생명 주제)

- 요 20:9 ↔ 눅 24:25-27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함 / 성경이 그를 증언함)
- 요 20:28 ↔ 요 1:1 ("말씀은 곧 하나님" / "나의 하나님")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아직 어두운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 돌이 옮겨진 것을 본다. 두 제자에게 달려가 알리니, 그들이 달려와 세마포와 따로 개켜진 수건을 보고, 다른 제자가 보고 믿는다.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운다. 두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묻고, 돌아선 그에게 한 분이 "마리아야" 부르시니 "랍오니" 하며 돌아선다.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시고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신다. 그 날 저녁, 문 닫힌 방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다.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믿지 못한다 하고, 여드레 뒤 다시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내미시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끝으로 글쓴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로 닫는다.

8 초별 제목과 부제 정하기 (목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별 제목: "마리아야 — 무덤에서 기록의 목적까지"
- 초별 부제: "옮겨진 돌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복으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시간 표현·무덤 물건 배치·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목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맺음말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별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17절 "나를 붙들지 말라"와 27절 "내 옆구리에 넣으라"의 차이는 어휘·상황만 기록, 까닭은 보류.
- 23절 죄 사함의 말씀은 본문 위치만 기록, 신학 진술로 확정하지 않음.
- 8절 "보고 믿더라"와 9절 "아직 성경을 알지 못하더라"의 병치는 그대로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20장은 어둠 속 옮겨진 돌에서 시작해 부름과 평강과 고백을 지나 기록의 목적으로 닫히는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아직 어두운 새벽 한 가지 봄(옮겨진 돌)에서 출발한다. 빈 무덤의 세 가지 봄, 우는 마리아를 돌려세우는 "마리아야"의 부름, 닫힌 문으로 오신 세 번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지나, 글쓴이의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로 닫힌다. 봄에서 믿음으로 가는 폭이 장 전체를 감싼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새벽 무덤 → 닫힌 방 → 여드레 뒤 같은 방 → 글쓴이의 맺음말. 소품 = 옮겨진 돌·세마포·따로 개킨 수건·못 자국과 옆구리.
2 첫 느낌·분위기	"아직 어두울 때"로 시작해 밝아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 작은 만남들로 분절.
3 시작과 끝	시작 — 어둠 속 옮겨진 돌을 봄(1절). 끝 — 기록의 목적 선언(31절). 봄에서 믿음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마리아 / 두 제자 / 천사 / 예수 / 제자들 / 도마. 부름·알아봄·믿음·고백이 인물마다 다른 결로 옴.
5 장면 컷	컷 1 새벽 무덤(1-2). 컷 2 두 제자(3-10). 컷 3 마리아·랍오니(11-18). 컷 4 닫힌 방·평강(19-23). 컷 5 도마(24-29). 맺음말(30-31).
6 의문·발견·정보	"보다"의 세 결(blepei·theōrei·eiden). 8절 믿음과 9절 모름의 병치. 붙들지 말라/만지라의 차이. 숨과 pneuma.
7 동영상	옮겨진 돌 → 빈 무덤 → "마리아야" → 닫힌 방의 평강 → 도마의 고백 → 기록의 목적으로 흐르는 한 동영상.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마리아야 — 부름에서 기록의 목적까지". 부제 — "옮겨진 돌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복으로".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우는 자리에서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 앞에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봄에서 믿음으로:** "보고 믿더라"(8절)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29절)까지, 본문은 봄의 여러 결을 통과해 봄 없는 믿음으로 옮겨 간다. 처음의 봄(1절)과 끝의 믿음(31절)이 수미로 마주 본다.
- 결 2 — 부름과 알아봄:** 동산지기로 여기던 마리아가 "마리아야" 한 마디에 돌아선다. 알아봄이 봄이 아니라 부름에서 온다.
- 결 3 — 닫힌 문과 평강:** 두려움으로 닫힌 문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세 번 놓인다. 닫힘 안으로 들어오는 평강이 두 만남을 묶는 후렴이 된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요 10:3** (음성을 알아봄), **요 1:4·5:24** (믿음·생명 주제), **요 1:1** ("말씀은 곧 하나님" ↔ 20:28 "나의 하나님").

- 다른 권 — **눅 24:25-27**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함 / 성경이 그를 증언함), **창 2:7** (숨을 내쉬, 어휘 결단).
- 정경 흐름 — 20:31 "믿게 하려 함이요 …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은 요한복음의 생명 주제(요 1:4)와 마주 본다.

E· 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아직 어두운 새벽, 옮겨진 돌 앞에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우는 자리에서 "마리아야" 부름 앞에 멈춘다.
- **멈춤 2:**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온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에 멈춘다.
- **멈춤 3:**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의 고백 앞에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봄과 믿음이 한 자리에 있다*는 결을 손에 쥐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우는 자리에서 이름을 부르시는 분*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 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결:

- [x] 어둠 속 옮겨진 돌에서 새벽이 열린다
- [x] 빈 무덤의 봄이 세 결로 갈린다
- [x] "마리아야" 부름이 알아봄을 연다
- [x] 닫힌 문 안으로 평강이 세 번 들어온다
- [x]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한다
- [x]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이 선언된다
- [x] 끝은 믿음·생명을 위한 기록의 목적이다

G·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복음의 운동은 "태초(로고스)에서 성육신을 지나 영적·우주적 완성으로" 흐르며, 20장은 19장의 "다 이루었다"가 부활로 입증되는 자리다. 통치 영역인 **아버지와**의 친밀함은 여기서 한 이름을 부르심("마리아야", 16절)과 두 번의 "평강"(19·21절)으로 사람에게 닿는다. 구속사 호로 보면 이 장은 **완성에서 보냄으로** 넘어가는 경첩이다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21절)는, 요한복음의 친밀함이 17장 기도의 "세상이 믿게 하려 함"을 향해 다시 바깥으로 열림을 보인다. "이것을 기록함은… 믿게 하려 함이요"(31절)라는 책의 목적 진술은, 이 복음서 전체가 한 독자의 믿음을 향해 쓰였음을 못박는다. 우주적 완성 이 한 이름의 부르심과 한 독자의 믿음으로 좁혀지는 좌표에 20장이 선다.

H·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옮겨진 돌(1절, 빈 무덤)→"마리아야"(16절, 이름 부르심)→"평강"과 보냄(19·21절)→기록의 목적(31절, 믿음).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빈자리에서 믿음으로 미는 운동이다. 옮겨진 돌(1절) → 우는 마리아와 "랍오니"(16절) → 닫힌 문 안의 "평강"(19절) →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21절) → 도마의 고백(28절) →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29절)와 기록의 목적(31절). 정지된 부활 보고가 아니라, 빈 무덤이 이름·평강·보냄·믿음으로 번져 가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빈 무덤·재회·달한 문 안의 나타나심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이름을 부르심으로 회복되는 친밀과, 그 친밀에서 흘러나오는 보냄**이다. 마리아는 동산지기로 알다가(15절) "마리아야" 한 음성에 돌이켜 "랍오니"(16절) 한다 — 알아봄이 증명이 아니라 부르심에서 열린다. "평강이 있을 지어다"(eirene, 19·21절)는 두 번 울리며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곧 보냄으로 이어진다. 빙산의 수면 위는 부활의 목격이지만, 아래는 잃은 줄 알았던 관계가 한 이름으로 회복되고, 그 회복이 "너희를 보내노라"의 운동으로 번지는 통치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부활을 멀리서 증명받기 전에, 우는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이 불리는 음성에 돌이켜 "랍오니"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29절)의 자리, 곧 기록이 향한 그 독자의 자리에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 곁에 머물도록 부른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믿음.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너희를 보내노라"의 평강이, 디베라 바닷가의 숯불 조반으로 이어진다 — 부인했던 베드로가 세 번의 "나를 사랑하느냐"로 회복되어 "나를 따르라"로 보내지는 21장으로.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20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보고 믿더라"(8절)와 "아직 성경을 알지 못하더라"(9절)는 어떻게 함께인가?

- 믿음과 모름이 한 자리에 놓임.
- 둘의 관계는 답하지 않고 보존.

Q2. "나를 붙들지 말라"(17절)와 "내 옆구리에 넣으라"(27절)는 왜 다른가?

- 마리아에게는 붙들지 말라, 도마에게는 만지라 하심.
- 두 말씀을 나란히만 두고 까닭은 뒤로.

Q3. "마리아야" 부름에 왜 곧 알아보는가?

- 15절 동산지기로 여기다가 16절 이름 부름에 돌아섬.
- 요 10:3과 나란히 두되 해석은 보류.

Q4. 22절 "성령을 받으라"와 숨을 내쉬심은 어떤 관계인가?

- 숨과 성령(pneuma)이 한 동작에 겹침.
- 어휘 겹침만 기록, 관계는 묵상으로 이월.

Q5. 23절 죄 사함의 말씀은 앞뒤와 어떻게 이어지는가?

- 평강·성령 다음에 갑자기 놓인 말씀.

- 위치만 보존, 연결은 보류.

Q6.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29절)는 누구를 향하는가?

- 도마를 곁에 두고 하신 말씀.
- 대상의 범위는 답하지 않고 둔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 21장

JHN-021 · 복음서 · 헬라어

빈 그물의 밤에서 153마리와 숯불 조반을 지나, 세 번의 "나를 사랑하느냐"가 "나를 따르라"로 달한다.

관찰된 사실

요한복음 2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는 디베랴 바다(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 1절) 바닷가. 밤→새벽의 시간대(3-4절).
- 소품 — 그물, 배, 백신세 마리 고기(11절), 숯불·생선·떡의 조반상(9절), 베드로의 겂옷(7절).
- 인물 수 명시 — 일곱 제자(2절). 거리도 숫자로("한 오십 칸쯤", 8절).
- "숯불"(anthrakia)은 요 18:18(베드로가 불 쬐던 자리)에도 나오는 같은 단어. 배경 정보로만 기록.
- 바다는 thalassa.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20장의 방 안에서 트인 바닷가로 공간이 바뀐. 밤에서 새벽으로의 시간 이동.
- 앞부분(고기잡이·조반)의 활기와 뒷부분(베드로 대화)의 잦아름이 두 결로 나뉨.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세 번 반복이 무게로 닿음(17절 "근심하더라").
- 24-25절에서 글쓴이의 목소리로 전환(20장 끝과 유사).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 한 번의 나타내심.
- 25절: "날날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 부족할 줄 아노라" — 다 담지 못할 분량.
- "나타내셨다"가 14절에 "세 번째로 나타내신 것"으로 다시 박힘.
- 24절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는 책 전체의 서명 같은 단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일곱 제자(베드로·도마·나다나엘·세베대의 아들들·두 제자, 2절) / 예수 / "사랑하시는 그 제자".
- 알아봄 — 사랑하시는 제자가 먼저 "주님이시라"(7절),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림.
- 세 번의 물음·답·말기심 — "사랑하느냐"(15·16절 agapaō, 17절 phileō) / 답은 phileō / "먹이라·치라".
- 말기심의 어휘 교차 — "먹이라"(boskō)와 "치라"(poimainō), "어린 양"(arnion)과 "양"(probaton).
- 사상 — 베드로의 장래(18절)와 19절의 풀이(죽음으로 영광 돌림), 그리고 "나를 따르라"(19·22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 디베랴 바다, 일곱 제자,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빈 그물의 밤.

- 컷 2 (4-8): 새벽의 한 분, "오른편에 던지라", 끌 수 없는 고기, "주님이시라", 베드로가 뛰어내림.
- 컷 3 (9-14): 숯불·생선·떡,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백선세 마리, 조반, "세 번째 나타내심".
- 컷 4 (15-19): 세 번 "사랑하느냐", 세 번 "먹이라/치라", 베드로의 장래, "나를 따르라".
- 컷 5 (20-23):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소문의 바로잡음.
- 맺음말 (24-25): 글쓴이의 서명과 다 담지 못할 분량.

6 의문점, 발견, 깨달음, 정보, 탐구 내용 등을 기록해두기 — (1) 원어 카드

- thalassa(θάλασσα) — 바다. 디베랴 바다(1절).
- anthrakia(ἀνθρακιά) — 숯불(9절). 요 18:18 베드로의 자리에도 같은 단어.
- agapaō(ἀγαπάω) — 사랑하다. 15·16절 예수의 물음.
- phileō(φιλέω) — 사랑하다(우애·애정 결). 베드로의 답(15·16·17절)과 17절 세 번째 물음.
- boskō / poimainō — "먹이다"(15·17절) / "치다·기르다"(16절).
- arnion / probaton — "어린 양"(15절) / "양"(16·17절).
- akolouthei moi — "나를 따르라"(19·22절), 두 번 반복.

6 — (2) 문학 구조

- 두 묶음 — 고기잡이와 조반(1-14, 사건)과 베드로 대화(15-23, 담화).
- 3의 반복 — 세 번의 물음·답·말기심(15-17), "세 번째로 나타내심"(14절).
- "나를 따르라"가 19·22절을 수미로 감쌌.
- 24-25절의 맺음말이 장과 책을 함께 닫는 이중 닫음(20:30-31과 짝).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 — 본문이 1절에서 직접 병기. 지명 정보로만 기록.
- "숯불"이 요 18:18과 21:9에 같은 단어로 두 번 — 본문 사실로만 기록, 연결 해석은 보류.
- agapaō/phileō 교차는 본문 사실. 요한복음 내 두 단어가 늘 구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미 차 해석은 미룸.

6 — (4) 교차 참조 노트

- 요 21:9 ↔ 요 18:18 ("숯불" 같은 단어)
- 요 21:15-17 ↔ 요 18:17·25·27 (세 번의 물음 / 세 번의 부인)
- 요 21:1·14 ↔ 요 20:19·26 (부활 후 나타내심의 연쇄)
- 요 21:15-17 ↔ 요 10:11 (목자·양 주제)
- 요 21:24-25 ↔ 요 20:30-31 (글쓴이의 맺음말·기록의 목적)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디베랴 바닷가, 일곱 제자가 모인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여 함께 배에 오르나 그 밤엔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 날이 새어갈 때 한 분이 바닷가에 서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니, 끌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힌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라" 하고,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린다. 물에는 숯불 위 생선과 떡이 있고, 끌어 올린 그물엔 백선세 마리인데도 찢어지지 않았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 세 번째 나타내심이다. 조반 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세 번 "내 양을 먹이라/치라" 말기

신다. 세 번째 물음에 베드로가 근심한다. 이어 그의 장래를 일러 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다. 베드로가 사랑하시는 제자를 두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묻자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다. 글쓴이는 떠도는 소문을 바로잡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다 담지 못할 분량의 행하신 일로 달는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묵상에서 재조정 가능)

- 초벌 제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 빈 그물에서 따름으로"
- 초벌 부제: "숫불 조반 곁의 세 번의 물음, 그리고 나를 따르라"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디베라 지명·"숫불" 교차·문학 구조)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open_questions 6건)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분석 이전 수행)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맺음말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agapaō/phileō 교차는 어휘 분포만 기록, 의미 차 단정은 보류.
- "숫불"의 18:18 ↔ 21:9 연결은 본문 사실까지만, 상징 해석은 묵상으로 이월.
- "백선세 마리"의 까닭은 본문이 말하지 않음 — 숫자만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요한복음 21장은 빈 그물의 새벽에서 시작해 조반과 세 번의 물음을 지나 "나를 따르라"로 닫히는, 이 권의 마지막 장이다.

한 문단: 본문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밤에서 출발한다. "오른편에 던지라"는 한 마디에 끌 수 없는 고기가 잡히고, 물의 숯불 곁에 조반이 차려진다. 백선세 마리의 썸을 지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세 번 양을 맡기신다. 베드로의 장래를 일러 주신 뒤 "나를 따르라"가 두 번 놓이고, 글쓴이는 다 담지 못할 분량의 행하신 일로 책을 닫는다.

B·9단계 통합 표 (LOCKED 원문 라벨 그대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디베랴 바닷가, 밤→새벽. 소품 = 그물·배·백선세 마리·숯불 조반·겉옷. 일곱 제자.
2 첫 느낌·분위기	트인 바닷가, 활기(고기잡이)에서 잦아들(베드로 대화)으로. "사랑하느냐" 세 번의 무게.
3 시작과 끝	시작 — 한 번의 나타내심(1절). 끝 — 다 담지 못할 분량(25절). 한 장면에서 무한으로.
4 등장인물·상황·사상	일곱 제자 / 예수 / 사랑하시는 제자. 세 번의 물음·답·맡기심. 베드로의 장래와 "나를 따르라".
5 장면 컷	컷 1 빈 그물(1-3). 컷 2 오른편 그물(4-8). 컷 3 숯불 조반·153마리(9-14). 컷 4 세 물음·맡기심(15-19). 컷 5 따르라·소문(20-23). 맺음말(24-25).
6 의문·발견·정보	agapaō/phileō 교차. "숯불" 18:18 ↔ 21:9. "떡이라/치라"."어린 양/양". 백선세 마리의 까닭.
7 동영상	빈 그물 → 오른편 그물 → 숯불 조반 → 세 번의 물음 → "나를 따르라"로 흐르는 한 동영상.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 빈 그물에서 따름으로". 부제 — "숯불 조반 곁의 세 번의 물음, 그리고 나를 따르라".
9 동영상 안건기·기도	빈 그물의 밤 끝에 차려진 조반 앞에 머문다. 답을 구하지 않고 드린다.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빈 그물과 차려진 상:** 아무것도 잡지 못한 밤이 "오른편에 던지라"는 한 마디로 뒤집히고, 물에는 이미 숯불 조반이 차려져 있다. 잡음과 받음이 한 새벽에 겹친다.
- 결 2 — 세 번의 물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세 번 오고, 세 번째에 베드로가 근심한다. 같은 자리에서 양을 세 번 맡기신다. 물음과 맡김이 한 묶음이다.
- 결 3 —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장래도, 다른 제자의 장래도 결국 "너는 나를 따르라"(19·22절)로 모인다. 본문은 따름의 한 단어를 수미에 둔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요 18:18** ("숯불" 같은 단어), **요 18:17·25·27** (세 번의 부인 ↔ 세 번의 물음), **요 10:11** (목자·양 주제), **요 20:30-31** (글쓴이의 맺음말과 짝).
- 정경 흐름 — 21:1·14의 "나타내심"은 20:19·26의 나타내심과 이어지는 연쇄다.
- 책의 닫음 — 20:31이 "믿게 하려 함"이라면, 21:25는 "다 담지 못할 분량"으로 같은 책을 두 번 봉인한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아무것도 잡지 못한 밤, 빈 그물 앞에 한 사람이 멈춘다.

- **멈춤 1:** 차려진 숯불 조반 앞에 멈춘다.
- **멈춤 2:** 세 번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에 멈춘다.
- **멈춤 3:** "내 양을 먹이라"의 말기심 앞에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물음과 말김이 한 자리에 있다*는 걸을 손에 쥐고 "나를 따르라"를 듣는다.
- **기도:** 본문은 기도자를 *빈 그물 끝에 상을 차리시는 분* 곁에 둔다. 가르침 없이 곳만 안내한다.

F·자족성 점검

외부 자료 없이 이 장만으로 닿을 수 있는 걸:

- [x] 빈 그물의 밤에서 새벽이 열린다
- [x] "오른편에 던지라"가 그물을 채운다
- [x] 물에 숯불 조반이 이미 차려져 있다
- [x] 세 번의 "사랑하느냐"가 세 번의 말김과 짝한다
- [x] 베드로의 장래가 일러진다
- [x] "나를 따르라"가 두 번 놓인다
- [x] 끝은 다 담지 못할 분량의 봉인이다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요한복음의 운동은 "태초(로고스)에서 성육신을 지나 영적·우주적 완성으로" 흐른다. 통치 영역인 아버지와 의 친밀함은 마지막 장에서 한 바닷가의 조반과 한 사람의 회복으로 좁혀진다. 19장의 "다 이루었다"가 우주적 완성을 매듭지었다면, 21장은 그 완성이 한 사람의 회복과 보냄으로 다시 열리는 자리다. "내 양을 먹이라"(15-17절)와 "나를 따르라"(19·22절)는, 17장 기도의 "세상이 믿게 하려 함"과 20장의 "너희를 보내노라"를 이어받아, 누가-사도행전이 '땅끝까지'로 폭발시킬 보냄의 운동을 요한복음 식으로 연다. 구속사 척추로 보면 이 장은 "사랑(마 22)"의 물음이 "제자(마 28)"의 보냄으로 이어지는 자리다 — "나를 사랑하느냐"가 "내 양을 먹이라"로, 그것이 "나를 따르라"로 흐른다. 한 권이 닫히되 도리어 길 위로 열리는, 닫힘이 곧 보냄인 좌표에 21장이 선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빈 그물(3절)→채워진 그물·숯불 조반(6·9절)→세 번의 "사랑하느냐"와 말김(15-17절)→"나를 따르라"(19·22절) / 부인의 숯불→회복의 숯불.

한 화살표로 좁히면, 이 장은 빈자리에서 따름으로 미는 운동이다. 밤새 빈 그물(3절) → "오른편에 던지라"의 153마리(6·11절) → 숯불 조반(9절) → 세 번의 물음과 "내 양을 먹이라"(15-17절) → 장래의 예고(18절) → "나를 따르라"(19·22절) → 다 담지 못할 분량의 봉인(25절). 정지된 후일담이 아니라, 무너진 한 사람이 다시 불러 길 위로 보내지는 한 운동이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고기잡이·조반·대화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부인했던 자리에서 같은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회복이다. 9절의 "숯불"(anthrakia)은 18장에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던 그 숯불과 같은 단어다 — 무너진 바로 그 곳에서 세 번의 "사랑하느냐"가 세 번의 부인을 덮는다. 회복은 책망이 아니라 다시 부르심으로 오고, 물음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김이 잇따른다. 빙산의 수면 위는 한 아침의 재회지

만, 아래는 무너진 한 사람이 같은 숯불 곁에서 회복되어 양 먹이는 자로, 끝내 "나를 따르라"의 길로 보내지는 통치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부인하던 그 숯불 곁에 다시 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음 받을 때, "주님 아시나이다" 답하고 일어나 따를 수 있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본문은 독자를 디베라 바닷가의 숯불 곁, 베드로가 다시 불리던 그 자리에 세운다. 답을 주지 않고, 다만 다시 부르시는 음성 앞에 일어나 따르는 자리로 부른다. 한 권의 마지막 부름은 달힘이 아니라 길 위로의 보냄이다.

이 권을 닫으며 가져갈 한 단어: 따름.

권을 닫으며 여는 운동: 요한복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길 위의 쉼표로 닫힌다 — "나를 따르라"의 보냄이, 누가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로 폭발시킬 그 연쇄의 진원이 되어, 한 바닷가의 회복을 열방을 향한 따름으로 연다.

미해결 질문

요한복음 21장 — 미해결 질문 (6단계 "의문점" + 9단계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문다")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귀 단계로 이월. 다음 만남의 여지.

Q1. 왜 "백신세 마리"인가?

- 본문은 셈을 정확히 적되 까닭은 말하지 않음.
-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11절)만 덧붙임. 숫자만 보존.

Q2. "숯불"(9절)이 요 18:18과 같은 단어인 것은?

- 베드로가 불 쪼며 부인하던 자리의 단어가 다시 등장.
- 본문 사실까지만 두고 연결의 까닭은 보류.

Q3. agapaō와 phileō의 교차는 의도된 것인가?

- 예수의 물음과 베드로의 답에서 두 단어가 갈림.
- 의미 차의 해석은 미루고 어휘 교차만 기록.

Q4. 세 번의 물음과 세 번의 부인(18장)은 어떤 관계인가?

- 17절 "세 번째 이르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 요 18:17·25·27과 나란히만 두고 관계는 뒤로.

Q5. "먹이라"와 "치라", "어린 양"과 "양"의 교차는?

- 말기심의 동사·목적어가 세 번에 걸쳐 조금씩 다름.
- 분포만 보존, 차이의 까닭은 보류.

Q6.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22절)는 무엇을 향하는가?

- 다른 제자의 장래를 묻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 23절이 소문을 바로잡음. 대상의 결은 답하지 않고 둔다.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기에, 다음 만남은 다른 권으로 이어진다.
